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관점에 따른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paration for Late-Middle-Aged
Adults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Ecological Perspective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양외금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관점에 따른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paration for Late-Middle-Aged
Adults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Ecological Perspective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7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양외금

양 외 금의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송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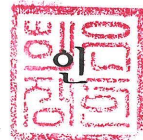
심사위원 고영삼



심사위원 김영주



심사위원 허은정



심사위원 정민자



울산대학교대학원

2022년 7월

목 차

<감사의 글>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문제	5
4.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중년 후기의 이해	8
2. 생태체계 관점	11
1) 생태체계 관점 특성	11
2) 생태체계 이론의 구성요소	13
3. 노후준비	23
1) 노후준비의 개념	23
2) 노후준비의 구성요인	25
4. 성공적 노화인식	31
1) 성공적 노화인식의 개념	31
2) 성공적 노화인식의 구성요인	33
5. 선행연구	36
1) 생태체계 관점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	36
2) 노후준비	38
3) 성공적 노화인식	40

III. 연구방법43

1. 연구 설계	43
1) 연구모형	43
2) 연구가설	47
3) 연구절차	49
2. 연구대상	50
3.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52
4. 측정 도구	53
1) 자아존중감	54
2) 여가활동 만족	55
3) 사회적 지지	56
4) 정책 신뢰	58
5) 노후준비	59
6) 성공적 노화인식	60
5. 자료 분석방법	62

IV. 연구결과63

1.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63
2. 측정모형분석	65
1) 적합도 지수 및 집중 타당성 평가	65
2)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평가	67
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인식	68
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68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차이	71
4.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73
5. 매개 효과검증	78
1) 매개모형 검증	78
2) 매개 효과검증	79
6.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조절 효과	80
1) 성별의 조절 효과	80
2) 학력의 조절 효과	83
3) 직업의 조절 효과	86

4) 종교의 조절 효과	88
--------------------	----

V. 결론92

1. 연구의 논의 및 함의	92
----------------------	----

1) 연구의 논의	92
-----------------	----

2) 연구의 함의	99
-----------------	----

2. 연구의 제언 및 한계점	100
-----------------------	-----

1) 연구의 제언	100
-----------------	-----

2) 연구의 한계점	101
------------------	-----

참고문헌	103
------------	-----

부록	124
----------	-----

ABSTRACT	133
-----------------------	------------

표 목 차

<표Ⅲ-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1
<표Ⅲ-2> 설문지 구성에 따른 변수명 및 출처	53
<표Ⅲ-3> 자아존중감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55
<표Ⅲ-4> 여가활동 만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56
<표Ⅲ-5> 사회적 지지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58
<표Ⅲ-6> 정책 신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59
<표Ⅲ-7> 노후준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60
<표Ⅲ-8> 성공적 노화인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61
<표Ⅳ-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치와 분포	64
<표Ⅳ-2> 측정모형 분석결과	66
<표Ⅳ-3>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와 판별 타당성 검증	68
<표Ⅳ-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69
<표Ⅳ-5>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차이	72
<표Ⅳ-6>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74
<표Ⅳ-7>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의 차이검증	78
<표Ⅳ-8> 매개 효과검증	79
<표Ⅳ-9> 성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81
<표Ⅳ-10> 성별에 따른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	81
<표Ⅳ-11> 학력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83
<표Ⅳ-12> 학력에 따른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	84
<표Ⅳ-13> 직업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86
<표Ⅳ-14> 직업에 따른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	87
<표Ⅳ-15> 종교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89
<표Ⅳ-16> 종교에 따른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	89

그림 목 차

[그림 Ⅲ-1] 연구 모형1	45
[그림 Ⅲ-2] 다집단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2	46
[그림 Ⅲ-3] 분석절차의 체계도	49
[그림 Ⅳ-1] 측정모형	67
[그림 Ⅳ-2] 구조방정식 모형	73
[그림 Ⅳ-3] 완전 매개모형	78
[그림 Ⅳ-4] 남성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82
[그림 Ⅳ-5] 여성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82
[그림 Ⅳ-6] 고졸 이하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84
[그림 Ⅳ-7] 대졸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85
[그림 Ⅳ-8] 대학원 이상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85
[그림 Ⅳ-9] 전문직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87
[그림 Ⅳ-10] 비전문직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87
[그림 Ⅳ-11] 종교가 있는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90
[그림 Ⅳ-12] 종교가 없는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90

감사의 글

박사과정을 진행하면서 저의 학위논문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의 시작에서부터 완성되기까지 챙겨주시고, 기다려주신 정민자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학위과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세심하게 봐주셔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송혜림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주신 고영삼 교수님, 김영주 교수님, 허은정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연구주제를 위해 많은 설문을 배포하고, 응답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찰하며 자서전을 쓴다는 생각으로 이번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연구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투병 생활을 하며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덕분에 제가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까지는 주변 분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들이 엄마를 챙기는 마음, 딸이 엄마를 위한 세심한 배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으로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지만, 많은 도움을 주신 가족학 전공 동문들을 비롯해 저를 아끼고 격려해 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한 모든 분들과의 인연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양 외 금 올림

국 문 초 록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 체계관점에 따른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양 외 금
지도 교수 정 민 자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생애발달주기에서 노인으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성공적 노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통해 중년 후기성인들이 성공적 노화를 도모하도록 기여 하고자 한다. 가족학 전문가들이 생태체계적 관점 접근의 필요성과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중년기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서 도출하고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를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중년 후기의 성인을 만 55 세에서 만 64 세로 규정하고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예비조사를 하여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성인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연구대상 범위에서 벗어난 설문지를 제외하고 496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에 따른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 간의 구조 관계를 알아보고자 미시체계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중간체계 요인으로 여가활동 만족, 외체계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거시체계 요인으로 정책 신뢰를 상정하고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조절변수로 하여 다집단분석으로 집단 간 경로의 차이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학력, 직업, 월 소득, 동거가족, 종교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은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따라 분류한 하위요인의 관계는 자아존중감, 여가활동만족, 사회적지지, 정책신뢰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다고 인식하며, 노후 준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공적 노화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시체계요인인 자아존중감, 중간체계요인인 여가활동 만족, 외 체계요인인 사회적지지, 거시체계요인인 정책 신뢰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후준비를 통해 노후인식을 개선하여, 성공적 노화인식에 변화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분석 결과, 성별에 의한 조절 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 만족은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에 의한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학력에 따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책 신뢰는 고졸 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에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는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직업에서는 여가활동 만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인식이 비전문직 집단에서는 정(+)¹의 영향을 미쳤으나 전문직 집단에서는 부(-)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인식은 전문직 집단에서 정(+)³의 영향을 보였으나, 비전문직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조절 효과는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를 가진 집단은 정(+)⁴의 영향을 보였으나 비종교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종교인 집단에서 정(+)⁵의 영향을 미쳤지만, 비종교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있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를 통합적으로 교육하거나, 통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후준비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책도 생태체계적 관점 및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를 탈피해 다양한 관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생태체계, 성공적 노화, 노후준비, 중년 후기, 성공적 노화인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현생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기대수명이 가장 길어진 시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백세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혹자는 이를 과학이 만들어 낸 축복이라 평가하고, 혹자는 인류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백세시대가 주는 가장 현실적인 의미는 우리의 생애에서 노인으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제 생애에서 노인으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에 따라 기존과 달리 노년기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성공적 노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BC 44년 Cicero가 좋은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부터였다. 학문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Mac Arethur 재단이 노화의 긍정적 요소들을 찾기 위해 다 학제적 연구들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장희숙, 2007). 그 과정에서 Rowe & Kahn(1987)은 사회 관계망을 유지·강화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였고, 노화의 개념을 통상적 노화(usual aging) 및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로 구분하였다.

통상적 노화란 어떤 건강 지표나 기능에서는 이상이 없어 정상적 상태로 판단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노화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성공적 노화란 연령 및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개별적 선택과 노력으로 질병과 장애의 위험성을 피하거나 상태를 호전시키면서 노화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 노화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성공적 노화로 변화할 수 있고 성공적 노화 역시 통상적 노화로 변화할 수 있다 (이주환, 2014). 통상적 노화를 성공적 노화로 이끌거나 성공적 노화를 통상적 노화로 변화시키는 것은 노년층에 대한 정책과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노후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김경희(1993)의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처음으로 알려졌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와 은퇴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로 야기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노년기의 행복을 다루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이 발의되어 시행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법의 추진배경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 및 노

후설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이며, 재무, 건강, 생애경력, 여가, 대인관계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성원, 2016).

또한, 2021년 7월 5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노후준비지원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방 자치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후준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2019년 50세~69세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86.4%는 대다수 노후의 경제생활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12.6%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남희·김경래 외, 2019)

노후준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노후준비도는 높지 않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19)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50세 이상의 성인남녀 중 스스로가 노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나이는 59.4세로, 이 중 43.2%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준비는 스스로는 노후라고 인정되는 나이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시작하며, 아직 노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연령대에서는 전혀 노후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가 노후준비를 할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송기영, 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 대인관계, 재무, 여가활동에서의 노후준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의 전반적 수준은 67.0점으로 영역별로는 건강영역이 75.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인관계 68.4점, 재무 57.5점, 여가활동 57.5점 순이었다. 이를 통해 건강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점수가 낮고, 특히 경제적 준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사회조사결과도 응답자의 67.4%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하였으나, 32.6%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36.8%는 노후준비를 할 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통계청, 2021).

또한, 과거에는 노년층을 공경하고 대우하는 전통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고도의 지식정보사회에서 ‘나이 듦’은 그저 사회에서의 도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 오롯이 노년을 책임지겠다는 인식도 노후준비에 대한 실행력을 낮추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이처럼 노후준비에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신체적 측면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심리적 좌절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심리적 측면의 모든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의 노후준비는 결국, 성공적 노화와 일치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공적 노화를 사회적 건강 (생산적 참여) 및 좋은

정신적(정서적, 인지적)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는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의 포괄적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은 중요성을 가진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개인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 (김동배, 이희연, 2003) 이 포괄적 시각이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노년의 삶의 질, 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와 관련해서도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가지는 추상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한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노화인식과 관련한 선행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안정신 외(2009)는 기존의 성공적 노화를 한국의 실정과 중년기 성인에 적용하여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한 척도를 마련하였고, 이후 연구들은 이 척도를 바탕으로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강성욱(2013)의 연구 역시 안정신 외(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도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 역시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박윤희(2017)는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이 높으며 노후준비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며 노후준비 교육에 참여할수록 노후준비 행동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성공적 노화, 노후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혜은(2018)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미시체계 요인에서는 종교 유무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산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 요인에서는 배우자 유무, 자녀 수, 자녀와의 동거 여부, 형제 수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형제와의 동거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시체계 여부에서는 거주지역과 정부 지원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노후생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리 (2021)는 중년여성의 생태체계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미시체계로 가족탄력성과 여가활동을 중간체계로 사회적 지지를 외체계로 정책 신뢰를 거시체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생태체계의 모든 요인이 노후준비와 상관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가활동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태체계학적 요인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는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 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 또는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연구들 모두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국내연구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데 있어 자아 및 현실수용, 독립적인 삶, 생산적인 참여와 봉사활동,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및 목표 의식 등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생각하는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준비와 안정, 가족관계 및 자녀

들의 성공, 안락한 생활, 존경과 대접받는 삶, 역할을 완수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 등을 중요하다고 여긴다 (백지은, 최혜경, 2005).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박윤희 (2017)의 연구에서도 가족적 측면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연구자는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의 반영으로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생태체계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국내의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 가족 탄력성, 가족관계, 자녀의 성공 등을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인식의 주요 요소로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서구사회와 달리 관계 중심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특히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노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도 일차적 관계인 가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수는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가구 수의 형성이유는 개인 생활 향유(19.9%), 기존주거지에서의 거주 희망(18.2%),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12.7%) 등이 높았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가구 수 형성의 이유가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사회적 관계망 역시 2017년 노인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 또는 친구나 이웃, 지인의 보유율이 확대되면서 혈연중심으로 한 관계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동년배와의 관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년기 이후 생애주기에서의 혈연의존도가 더욱 약화 될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공적 노화 연구가 가졌던 추상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성공적 노화인식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가족관계 수준에서 벗어나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관점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을 미시적 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서 도출하고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를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본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실제 중년 후기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관점에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하여 추상적인 분석 및 접근이 아니라 시대 변화와 시대 상황에 맞게 분석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는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의 포괄적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은 중요성을 가진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개인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김동배, 이희연, 2003) 이 포괄적 시각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후기성인의 삶과 일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고, 미시체계를 자아존중감, 중간체계를 여가활동 만족, 외체계를 사회적 지지, 거시체계를 정책 신뢰로 선정하여 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중년 후기성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도모함을 물론 나아가 노년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중년기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가족학 전문가들이 생태체계적 관점 접근의 필요성과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중년기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요인들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년 후기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은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은 성공적 노화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과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계에서 노후준비

는 어떻게 매개하는가?

여섯째, 중년 후기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1) 중년 후기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생활연령에 따른 구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활연령은 심리적 발달과제나 주 관심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분류 기준이나 중년기 연령 기준의 판단은 학자들 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강성욱, 2013).

Havighurst(1972)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 수준과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학적 변화를 기준으로 인생 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는데 30세부터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Erikson(1963)은 중년기를 생산성 대 침체 정의시기로 보고, 연령층은 40세에서 65세로 정의하였다. 국내의 중년기 선행연구에서는 김명자(1989)는 40~59세로 보았고, 고기숙(2003)은 40~60세, 김애순(2015)은 45~65세로 보았다. 그 외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40세~64세로 정의하였으나, 이러한 범위가 현재 취직, 결혼, 출산이 모두 늦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생애 주기와는 적합하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세대 격차가 큰 사회로서 40대와 50대를 한 범주로 보는 것은 부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55세~ 64세까지를 중년 후기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태체계적 관점

환경 속 인간(person-in-environment)의 개념에서 출발한 생태체계적인 입장에서 생태학적 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은 유기체인 인간과 환경, 그리고 양자 간 상호작용의 중심개념으로 유기체와 환경성을 고려한 총체적 이론이다(Shaffer, 1999). Bronfenbrenner(1979)는 개인의 환경을 다양한 체계로 구분하였다. 각 체계 간의 기능이 존재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양한 체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관련성을 강조하며, 체계는 미시 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z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나눈다. 본 연구에서도 Bronfenbrenner(1979)에 따라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 체계, 거시체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천연희 2019). 즉, 노후준비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다각도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노후준비는 노후생활 만족도나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 요건이며 노년기가 되기 전 단계인 중년기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후준비지원법」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빈곤, 무위, 고독 등에 관하여 미리 대처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노후준비를 ‘노년의 삶을 위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역에 대해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위한 포괄적인 준비 행동’으로 정의하고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로 세분화하여 보고자 한다.

4) 성공적 노화인식

성공적 노화인식은 성공적 노화에서 출발한 개념으로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년층과 노년층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성공적 노화를 현재 포함 과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미래 자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또한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심리적 발달과정이며 또한, 정신이나 신체상의 질병 없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이지모, 2021), 성공적 노화인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추구와 자신만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도영 외, 2016), 그리고 인생의 마감과 함께, 노년기의 발달 주기별 과업에 대처하고 순응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자기완성을 실현하며, 타인을 수용하고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지지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전병주, 최은영, 2016).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인식을 중년층이 노년기의 변화를 수용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평온하며 자아 성찰을 실현하며 일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으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 후기의 이해

중년의 사전적 정의는 “청년과 노년의 중간되는 나이”이며, 중년기에 있는 사람, 40세 전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희승, 1982). 중년기는 직업 역할의 변화, 노부모 부양과 성인 자녀에 대한 책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기대 등 다양한 변화에 마주하면서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공헌을 쌓게 되고 인생에서의 완성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동시에 갈등 및 상실감을 겪거나 자아 성찰과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 및 신체, 정서, 경제 수준의 노화로 무력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김명자, 1998; 신기영, 옥선화, 1991).

중년에 관한 연구는 Jung의 성인발달 심리학 연구 이후에 수많은 연구에서 중년기를 포함한 성인들의 발달단계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Jung은 40세 전후를 인생의 근본적 변동이 시작되는 인생의 정오(Noon of life) 시기로 보았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중년기 사람들이 인생의 무력감과 허탈감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 중년의 사회적 성공은 자아의 다른 면이 억압된 결과로 얻어진 것이므로 중년기에 억압된 어떤 것이 분출되어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김유정, 2009).

Levinson(1978)은 그의 연구에서 중년 성인기는 인생의 고조기이자 인생이라는 삶의 틀을 새롭게 형성하는 구조 전환기로서 노년기를 위한 새로운 삶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삶을 통찰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이 시기의 신체적 능력은 성인 초기보다 떨어지지만, 본인 스스로 만족스럽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에는 충분한 원동력을 지닌 시기라고 하였다.

반면 Erikson에 따르면, 중년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발달적 도전으로 생성감(generativity) 대 침체감(stagnation)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생성감은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활동인데, 양육과 돌봄을 통해 타인을 돕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삶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는 새로운 책임감 및 권위를 가지고 자기 방향성을 이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얻게 되는 생성감은 안녕감과 연결이 된다 (Goldharber, 1986). 사회적 영향이 개개인의 건강과 교육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생성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태학적 모델과 같이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년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생에서 남은 시간이 비슷하다고 깨닫는 시기이다. 또한, 성취의 황금기이자 동시에 남에게 베푸는 삶으로서 인생 후반기에 통합을 달성하는 발달단계이다. 이를 보면 중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송향주, 2012). 이런 중년기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범위가 35세~65세까지 때

우 다양하다. 이는 중년기의 대상과 인생발달 단계 중 어떤 시기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로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은 학자들의 주관적 개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vighurst의 발달단계에 따르면, 중년이란 3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이다(Waters & Sroufe, 1983). 반면에 Schaie (1982)는 35세~45세, Erickson (1982)은 35~50세, Levinson (1978)은 40세~60세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김명자(1989)는 40~59세를, 박선영(2013)은 40~64세를, 김미숙 (2018)은 40~65세를, 고기숙 (2003)은 40~60세, 김애순 (2015)은 45~65세를 중년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데 중년기의 발달과정이 좀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는 위계적(hierarchical) 변화보다 각 시기의 독특한 발달적 특징이 있는 계열적(sequential)인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송향주, 2012).

Neugarten, Moore & Lowe(1965) 등은 중년기는 연령 자체보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 개념과 가족관계 변화과정과 관련지어 중년기를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연령과 관계없이 막내가 독립하는 시기부터 은퇴하는 시기까지를 중년기로 보고 있다. Clinebell (1992)은 중년기를 40세에서 65세로 보았다. 이 중 중년 1기는 청년기의 자녀가 가정에 머무는 시기이며, 중년 2기는 퇴직 직전으로 자녀를 학교 결혼 등으로 떠나보내고 가정이 텅 빈 시기라고 구분한다. Conway (1992)는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로 정의하면서, 무엇인가, 불안한 시기이고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시기이며 삶에 관한 재평가를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Borland (1978)는 중년기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족발달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과는 무관하게 자녀 중 막내가 독립하는 시기부터 자기 자신의 은퇴 기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통 진수기, 빈둥지 시기, 탈 부모시기로 나누고 있다. Levinson(1978)은 계절로 인생 주기 단계를 설명하면서, 인생을 세 가지의 과도기로 구분하였는데, 성인 초기의 과도기는 17~22세, 중년의 과도기는 40~45세 그리고 성인 후기의 과도기는 60~65세로 보고 있다. Levinson(1994)은 중년기를 40~65세로 규정하였고, 이를 다시 중년 입문기(45~50세), 50대 전환기(50~55세), 중년의 절정기(55~60세), 노년기(성인 후기)의 전환기(60~65세)로 구분했다. 한편, Staudinger와 Bluck(2001)은 중년기를 중년 전기(early-midlife: 40~50세)와 중년 후기(late-midlife: 50~60세)로 구분하였다.

기존 국내에서 연구된 중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중년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완숙기로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수행하고 배우자 및 자녀와의 인격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 역할과 도리를 다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의 발달과업에 있는 시기이다 (이은희·최정화, 2004).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신체적으로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생의 유한적 특성에 직면하여 본질적인 자아에 대한 성찰에 초점을 두는 시기이고 사

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 직업 생활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절정에 도달하였으나 그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락과 은퇴를 감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는 늦었음을 인식하는 시기이다 (이경혜, 1997, 김명자, 1998). 그러나 최근에는 인간발달이 전 생애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보고 있으며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중년기를 다각도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년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구분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이서영(2016)의 경우는 평균수명의 연장을 고려하여 중년기의 기간을 확장하여 앞으로 10년 정도를 더한 30세에서 75세 사이를 중년기로 보기도 했다. 그만큼 현재 우리 학계는 중년기에 대해 다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년 전기와 중년 후기는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년기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애주기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기이면서 인생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기 (신경림, 1995)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중년기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가장 생산적인 시기와 과거를 바라보는 시기가 세밀하게 중년기를 바라보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한경혜·노영주 (2000)의 연구에서는 40세~60세를 중년으로 보되, 40세~50세와 50~60세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중년기 발달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40대 전환기에는 더는 젊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노화의 단서를 최초로 자각하고 자녀 양육의 성격 변화를 통해 가족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부와의 관계를 포함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전환기 대응으로 재취업하고 여가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신앙생활에 몰입하게 된다.

강유진(2004)은 중년기를 40대와 50대로 구분하고 중년 후기 50대 여성의 노년기 전환기 경험에 관해 연구하였다. 노년기 전환기는 젊음의 마무리, 성숙의 시기로 급격한 진행되는 노화 과정으로 인한 건강상실과 정신과 마음의 성숙함이라는 불협화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건강, 자식으로부터의 홀로서기, 새로운 삶의 방식 마련 등 어떻게 잘 늙은 것인가를 계획하였다. 오혜진 (2013)은 이러한 구분에서 발달 시기의 ‘전환’과 ‘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50대 초기는 하나의 인생 구조가 다른 구조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50대 후기는 중년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면서 또다시 노년기로 전환되어가는 시기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국내연구에서는 중년기를 40~60세에 이르는 시기로 40대와 50대 서로 다른 발달과제 및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가 중년 전기와 중년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노후를 생각하고 중년 후기를 다른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년 후기는 노년기 진입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경험과 변화는 노년기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 후기성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므로 연구의 대상을 중년 후기로 55세~64세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생태체계 관점

1) 생태체계 관점 특성

생태학(Ecology)이란 용어는 독일의 생물학자인 Haekel(1868)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생태학은 원래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생물학적 유기체와 그 주변의 사회, 물리적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의존적 체계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생태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회과학자들은 자신들의 학문적 관점을 바탕으로 ‘사람(Human)’ 또는 ‘사회(Social)’라는 말을 통해 ‘사람생태학(Human Ecology)’ 또는 사회생태학(Social Ecology)’이라는 말로 사용(Hess & Howard, 1981)하였고, Hobbs(1975)는 생태학적 개념을 인간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로 정의하였다 (반기완, 2015, 재인용). 생물학의 한 분야로 인식해온 생태학은 최근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학문의 분야에 따라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생물학에서는 정의와 달리 인간생태학 또는 사회생태학이라고 부른다. 이 인간생태이론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상호작용하는 인간에게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이 이론에서 가족은 물리적·생물학적 환경, 인위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과는 독립된 에너지 변형체계로 간주한다 (정현숙, 2009). 생태체계이론은 인간은 주위에 인접환경 중심으로 구조적인 체계인 생태계에서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발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유기체들이 어떻게 상호적응상태를 이루고, 어떻게 상호 적응해 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과 주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상호의존, 또는 역동적 교류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Bronfenbrenner, 1992). 결국, 생태체계이론이란 ‘개인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자신의 내면 또는 환경과 상호의존하며 적응하는 과정들이 사회적 계급과 민족, 성별, 나이에 따라 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개인의 니즈와 비전 충족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자원을 할당하는가?’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인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인과관계 도구로 설명할 수 있다 (유계숙 외 2003).

이를 살펴보면 생태체계이론의 중요한 관점은 ‘적응’과 ‘체계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생태체계이론에서 적응(adaptation)이란, 개인 대 환경의 적절한 결합을 의미한다. 이때 적절한 결합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의 욕구와 권리, 목적, 능력 등과 개인 혹은 집단이 속한 문화, 역사 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물질적, 사회적 환경의 특질과 실제 운영 간의 형태와 괴리, 즉,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욕구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의 수준을 뜻한다 (이선영, 2004). 생태체계 이론에 따르면 개인 또는 집단의 욕구와 권리, 목적, 능력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 사이의 맞물림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으면 개인뿐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환경도 손상을 입게 된다 (엄명용, 2002). ‘적응’ 만큼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체계적 사고’인데 생태체계이론에서 ‘체

계적 사고'는 개인의 존재에 대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개인 스스로 환경이 미치는 영향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만든다. 이때 체계적 사고는 사물이 어떠한가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여 중시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최은주, 2021). 그러므로 체계적 사고는 사례에서 여러 가능한 개입지점을 볼 수 있게 하며 사물의 성질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현실의 구성, 사람과 사건을 함께 묶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반면, 단편적 사고는 'X가 발생하면 Y가 생긴다.'와 같은 단순한 인과관계의 확실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중요한 차원을 간과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선영, 2004). 특정 시기에 있는 개개인의 환경은 여러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각 단계는 더 높은 단계와 관계되어있고, 단계별 기능은 이보다 더 높은 단계와 상호작용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다 (Bronfenbrenner, 1979). 이를 생태체계 차원으로 보고, 생태체계관점으로 그 차원을 구분할 수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의 접근 유용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관점이 넓고 관심 영역을 포괄하여 문제에 대해 총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개인, 집단, 공동체를 총괄하는 모든 크기의 사회체계에 활용되는 것으로 대상에 구속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사정의 도구로서도 직접적인 활용성이 있다. 특정한 체계의 속성과 체계 간의 연결성을 평가하고 체계 사이의 갈등과 상호성, 일치성 등의 정도와 상태를 표명할 수 있는 기준이 제공된다. 넷째,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여 개입할 때도 일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체에 개입하여 전반적 변화를 일으킨다 (장인협, 1998). 가족학에서 생태체계이론은 생태학적 이론과 체계적 이론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가족 생태학적 관점은 가족이라는 체계가 사회로부터 고립된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는 가족행동을 이해하는데 문화적 맥락, 장소, 성(性), 라이프스타일 등 외적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족의 욕구뿐만 아니라 가족이 살아가는 생태학적 환경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Walchewski & Bredehoft, 2003). Darling(1987)은 가족이 사는 환경은 크게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 인간행동 환경(human behavioral environment), 인간이 건설한 환경(human constructed environment)으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 인간행동 환경과 인간이 건설한 환경의 개념이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사하다. Darling(1987)은 인간이 건설한 환경은 도로, 건물 외에도 사회문화적 환경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 행동환경은 사회화와 행동규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생태체계에서 보는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와 같다고 할 것이다.

가족학에서의 체계이론 역시 생태체계이론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생태체계 이론에서 개인을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는 것처럼 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이 특별한 범위 및 규칙, 기대, 세대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운영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가족체계의 변화가 개별 가족 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또한, 이 가족체계는 더 큰 지역사회, 문화, 동료체계와 같은 시스템 일부로 이 시스템이 가족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체

계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대항하기도 한다고 본다. 즉, 체계이론은 생태체계적 관점과 동일하게 대상을 유기체로 바라보며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현숙, 2009). 또한, 정민자(2016) 연구에서 생태학 이론을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물학적 유기체이면서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생리적·물리적, 자연·인공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 의존하는 에너지 전환체계로 간주하였다. 개인 및 집단 또한 사회와 환경과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환경에 관한 적응과정을 강조한 이론이라 하였다. 즉,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하고, 동시에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전체론적 관점을 갖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특히 생태체계 이론을 가족학에 적용하면 이 이론은 직계가족의 관계에서부터 더 넓은 사회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다양한 측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김주연, 2016). 가족이 사회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사회도 가족을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이해는 가족 생활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현숙, 2009).

환경과 인간은 상호작용을 지속유지하고 서로 간에 교환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서로 적응을 해나가는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변화해 간다 (김동배·권중돈, 2001; 문수경, 2004; 임선영, 2015, 재인용). 인간은 사회문화적 체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개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배, 권중돈, 2004). 본 연구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요인에 따른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생태체계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하여 추상적인 분석 및 접근이 아니라 시대 변화와 시대 상황에 맞게 분석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는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의 포괄적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태체계 관점은 중요성을 가진다. 생태체계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개인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김동배, 이희연, 2003) 이 포괄적 시각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를 투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태체계 이론의 구성요소

생태체계이론의 구성요소는 중요하며, 각 생태체계 단계를 구분하면서 학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Bronfenbrenner(1979)가 개념화한 네 가지 환경체계는 마도로 시카 인형 세트처럼 인형이 겹겹이 겹쳐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생태학적 환경의 가장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유기체, 미시체계(the micro system), 중간체계(the

meso system), 외체계(the exo system), 거시 체계(the macro system) 순으로 배열되며 이 구조적 체계의 본성은 상호작용이다. 유기체는 개개인을 말하며, 미시체계는 유기체가 몸담은 인접 환경이다. 미시체계의 속성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생과 함께 달라진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끼리의 상호작용이다. 각각의 미시체계는 구별이 확연하지만 동시에 다른 미시체계와도 연결되어있다. 외체계는 유기체를 제외한 환경구조들로 중간체계나 미시체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거시체계는 가장 큰 체계로서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인종을 기반으로 한 문화권의 신념, 가치관 등이라 할 것이다 (윤중희, 2006).

Netting 등(1993)은 미시체계와 거시체계로 구별하였으며, 미시체계는 개인, 가족, 소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거시체계는 지역사회, 국가와 같은 거대 조직으로 구별하였다. Jastrow(2000)의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미시체계는 개개인이 포함되고, 중간체계는 가족 및 회사와 또래 집단처럼 소속된 집단이 포함하고, 거시체계는 조직, 지역사회, 국가가 속한다 (엄명용, 2002, 재인용). Ambrosino(2001)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하고, 미시체계는 개인, 가족을 포괄하며,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관계를 말하며, 외체계는 제도적 조직, 지방정부, 지역 등을 포함하며 거시체계는 국가와 제도 등을 포함하였다 (김상균, 2002, 재인용). Compton & Gallaway(1999)는 서로 다른 수준의 환경을 네 개의 환경, 즉 개인의 개별적 상황, 미시체계(micro system), 중간체계(mezzo system), 거시체계(macro system) 등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의 개별적 상황이라는 것은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환경으로 직접 마주치는 환경을 말한다 (Magnusson & Allen, 1983). 미시체계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 중에서 개인이 일상 속에서 접촉하고 상호 교류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중간체계는 환경 중에서 미시체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미시체계의 기능과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 거시체계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환경을 의미하며 사회의 경제적이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물리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이선영, 2004).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1979)가 체계화한 단계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1) 미시체계

미시체계(micro system)는 개인적 특성 혹은 사람이 속한 직접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들을 말한다. 개인은 포괄적 의미에서 물리적·심리적·사회적 체계의 한 형태이며, 이러한 체계들은 모두 상호 작용한다. 또한, 미시체계는 인간과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임정문, 2014). 여기서 환경이란 가정, 공원, 복지시설 등과 같이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며,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환경 일부를 구성해주고 있다고 본다 (최화강, 2012). 개인과 함께 미시체계 환경은 변화한다. 개인의 성장이나 변화에 따라 미시체계 환경도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시체계는 인간

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미시체계가 개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특성으로는 성과 연령, 종교, 경제력, 고용상태, 혼인상태, 주거환경,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으로 자신의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포함한다 (정옥분, 2005). 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태체계요인의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인식 혹은 노후준비에 관련해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미시체계를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한정하거나 혹은 개인특성체계를 따로 분류하여 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성공적 노화인식을 주제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여성이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 (강해자, 2012, 김재중, 2008), 남성이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신영희 외, 200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연구 (박윤영, 2015, 윤영애 외, 2010, 정여진, 2011) 등이 있다. 반면에 연령의 경우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교육수준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강해자, 2012, 김재중, 2008, 박윤영, 2015, 신영희 외, 2009). 자산상태에 관해서는 대체 적으로 자산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강해자(2012)의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독거노인에서 자산상태와 성공적 노화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 종교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나뉘어 나타났다. 강해자(2012)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으나 김재중(2008)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종교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성별과 종교의 경우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연령은 대체 적으로 성공적 노화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과 자산상태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혜은, 2017).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미시체계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자아존중감으로 정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설로 설정하였기에 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본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한 개인적 반응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반응을 상호조절·형성되어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염철기, 2017).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ottle (1965)은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이상이나 자신의 실제 개념과의 일치의 정도, 이상과 실제 성취의 불일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일치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김덕경, 2011). Rosenberg (1965)는 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가 좋다고 느끼는 정도이며 자기를 존경하는 정도와 자신을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Rosenberg & Simons (1971)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이 지향하는 평가적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감정, 느낌, 동기, 인지, 가치관 등이 자신의

심리 현상 안에서 수용되고 조직화 되는 전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박명옥, 2017). 또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긍정적인 견해 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서 삶의 만족을 심리적 측면으로 측정하는 도구라고 정의되고 있다 (김종선, 2016).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이 어렵고 열등감에 빠져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불안한 심리상태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의 성공 여부보다 그 과정과 노력에 만족감을 느끼며 실패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여긴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유정희, 2014).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작은 성취나 성공을 통해 형성되며, 특히 유아기에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 존중, 이해, 인정, 격려나 지지를 받는 것은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칭찬, 성취 경험을 통해 더욱 발달된다 (윤양희, 2010).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며, 타인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융통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소유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송진영, 2017).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수용(self-acceptance)과 자기 확신(self-confidence), 자기 가치(self-worth), 자기사랑(self-love) 등 용어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후준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내적인 심리상태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전체 생태체계에서 미시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중간체계

중간체계(mezzo system)의 기본적 구성단위는 환경의 기본요소들로 미시체계의 구성단위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미시체계와 달리 중간체계의 본질은 상호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간체계는 개개인의 인생에 존재하는 미시체계 간의 관계망으로서 구성된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 학교와 직장 간의 관계로 미시체계 각각에 존재하는 특성과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효과에 집중하는 것이다. (Bronfenbrenner, U. 1992). 중간체계는 개인이 참여하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과정과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관계를 의미하므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가변적이고 이동 적이다 (배지연, 2005). 개인이 새로운 환경과 접하거나 이동할 때

형성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연결(ink) 이외에 상호연결성에는 많은 부가적인 상호연결고리들이 있다. 즉, 두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사회조직망, 망 내에서의 중재적 연결, 환경과 환경 간의 형식적, 비형식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현상학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한 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른 환경에 대한 지식의 태도의 정도와 본질 등이다 (이영역, 1992).

선행연구에서 중간체계로 가족관계, 동료 관계 등 사회적 관계를 함께 보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간체계로 여가활동 만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사회에서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데 있어 자아 및 현실수용, 독립적인 삶, 생산적인 참여와 봉사활동,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및 목표 의식 등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생각하는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준비와 안정, 가족관계 및 자녀들의 성공, 안락한 생활, 존경과 대접받는 삶, 역할을 완수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 등을 중요하다고 여긴다 (백지은, 최혜경, 2005). 그러나 가족만이 성공적 노화에 주요한 요인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준비나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중간체계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Brightbill(1960)은 여가란 직업 활동에 반대되는 것으로 자유로운 시간인데 생업과 생존을 위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라 하였다. Neulinger(1974)는 여가의 정의를 “자유; 구체적으로 인지된 자유”라고 표현하였다. 즉, 여가는 자신이 행위를 하는 활동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스스로가 바라는 상태를 주관적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한 정의는 충분한 내면적 만족이 있다면 여가는 자기 일과 노동 혹은 작업과도 중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프랑스의 여가 사회학자 Dumazedier(1974)는 여가생활을 “개인이 직장, 가정,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휴식, 기분전환, 혹은 지식의 확대, 자발적 사회참여, 그리고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굴을 위해 행하는 개인의 임의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해 여가를 행동적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김오중(1994)은 여가란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생활에 필요한 활동이 아닌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로운 심리상태로 자신을 찾아가는 기회’라고 정의하였다. 이 같은 학자에 따른 여가의 정의를 볼 때 여가는 개인이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난 상태 아래에 휴식, 자기 계발 및 사회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여가활동이란 여가에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김송희, 2006). 첫째 여가활동은 개개인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성이 기본이다. 둘째, 여가는 동인에 의하여 실천되는 행동이며 금전과 시간 같은 조건이 갖춰지거나 여객체의 유인에 따른 결과이다. 셋째, 여가활동은 인간의 욕구가 친밀한 관련이 있다. 넷째, 여가활동은 그 결과에 따라 만족의 정도가 달라진다. 다섯째, 여가활동은 이용하는 개개인이 직접 여가 자원으로 접근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동이 전제된다. 여섯째, 여가에는 일정한 단계가 존재한다. 일곱째, 여가는 수시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안영선, 2009). 만족은 보상의 문제로서 개인의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다는 것이며 만족은 인간이 심리적 혹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일정한 목표나 요구를 달성하면 나타나는 한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의미한

다. 이를 여가활동에 적용하면 참가자가 만족하는 즐거움, 성취, 건강증진과 같은 보상을 득했을 때, 여가활동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안영선, 2009). 여가 만족과 여가활동과의 관계를 가장 명확히 제시한 이론으로는 Csikszentmihalyi (1975)의 몰입경험이론(Theory of Flow)을 들 수 있다. 활동이 개인의 능력 수준과 적절성을 갖추고 있을 때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즉, 활동의 난도가 너무 낮으면 우리는 지루하고 난도가 너무 높으면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즉, 적절한 난도와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즐거운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흥미 있는 활동에 즐길 만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여가 만족도란 여가활동의 경험 이에 대해 현재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여가의 만족스러운 감정은 개인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요구가 만족함으로써 야기된다 (전병구, 2012).

Bread & Ragheb (1980)은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 적 만족, 신체적 만족, 환경적 만족으로 크게 이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해 여가 만족도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심리적 만족에는 즐거움, 소속감, 자유의 정도가 포함되며 교육적 만족에는 지적환경, 학습이 사회적 만족에는 대인 유지와 사교가 포함된다. 또 휴식 적 만족에는 휴식과 긴장감 해소가 신체적 만족에는 건강, 체력유지, 신체개발이, 환경적 요인에는 아름다움과 미적 보상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김성규, 2016 재인용).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시간을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노년기를 여가생활로 보내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젊은 세대의 여가 개념인 생산력 향상을 위한 시간, 심신 재충전 등의 목적으로 보내는 여가 개념과 노인세대에서 보내는 여가 개념은, 목적과 형태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노년기 여가 (Leisurein Later life)라는 저서를 통해 Leitner(1985) 는 노년기 여가활동의 순기능을 건강증진, 대인관계의 확대, 일상에 대한 만족감 증대, 신체 및 심리적 자신감 확대, 자립성 증진, 자기 가치성과 유용성 증진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금룡 외, 2004, 재인용). 또한, 여가는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소득을 보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적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며, 사회·심리적으로는 생에 대한 애착이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신적으로는 긴장감을 해소하며 적절한 정신적인 자극을 주게 되어서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루다, 2019). 이런 요인으로 인해 여가활동 만족 역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의 요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여가활동 만족은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생태체계에 있어서 중간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3) 외체계

외체계(exo system)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들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 최소화한 한 가지 체계는 그 개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체계이다. 또한, 개인은 외체계

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환경들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정문, 2014). 외체계가 발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두 단계의 인과적 순서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개인의 미시체계에서 발생하는 각 과정과 연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시체계 내의 각 과정이 단계별 환경에 처해 있는 개인의 발달 및 변화와 연결되는 것이다. 인과적 순서는 반대 방향으로도 수립될 수는 있다. 발달과정에서 인간은 미시체계 내에 속해 있는 과정들을 변화하여 멀리에 까지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반사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두 단계순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영역, 199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생태체계 요인의 외체계의 하위변인으로 연구한 것을 기초로 하여 외체계의 하위변인을 사회적 지지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중 사회적 환경을 외체계로 보기도 하나, 그 영향력이 일차적으로 비개인적이고, 간접적이며 일방적이다 (정옥분, 2005). 또 외체계 의사결정자들이 개인을 모르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이 일차원적이지 않은 사회적 지지를 외체계로 선정하였다. 개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의 타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연결고리와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관계를 맺으며 도구적 및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체를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고 한다 (권미경, 2017).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는 용어는 Cassel(1974)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발달과 건강한 적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인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은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적응하는 능력도 높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환경과 관련된 변인으로써 신체적이며 심리적인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미숙, 2016).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가족 구성원 포함, 많은 대인관계로 인하여 개인이 주고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거나, 실제로 받는 정보적, 물질적, 정서적, 평가적이고, 실제적이면서 포괄적인 지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 또는 자원’, ‘남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상호 간의 의무 망 속에 존재하는 긍정적 지각이다.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타자가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지하고, 과업을 서로 나눠 도와주며, 나아가 물질적 도움이나, 기술 및 심리적 지도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적응과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애착(Kaplan, G. 1974)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는 사회적 지지의 정의만큼 다양한 유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서적 지지, 정보 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사회적 지지 구성요소를 총 4개의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원호, 2006).

첫째, 정서적 자원의 지지는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배려와 존중, 그리고 애정과 사랑의 대상으로 느끼게 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척희, 2020). 정서적 지지는 자신의 감정에 통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시킨다 (이건욱, 2016). 노인이 되면 신체적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원하게 되므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감정적 측면에서 정서적 지지가 필수적이다(유경근, 2014). 노인들이 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의 고립을 예방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여미옥, 2013). 둘째, 정보적 지지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적 지지와 관련된 행위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학습이 풍부한 사람과의 대화, 특수한 단체의 참여 등도 포함되며(박지원, 1985,) 문제해결, 충고, 조언 및 지지도 역시 정보적 지지에 해당한다 (정은호, 2015). 정보적 지지는 특히 노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적응을 돕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환경 적응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김미령, 2005). 셋째, 물질적 지지는 필요로 하는 무 유형의 자원을 직접 적으로 제공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Fitc & Slivinske(1998) 는 돈, 인력, 책 등의 제공과 같은 직접적이면서 신체적인 운송수단과 원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물질적 지지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어 경제 능력이 떨어지면 부족한 재정적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물질적인 지지를 가장 강력하게 원하게 되므로, 물질적 지지의 중요성은 노인의 경우 특히 절실하며, 인간의 물질적 욕구 해소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종민, 2014) 넷째, 평가적 지지는 개인에게 행위에 관한 확인, 사회적 비교, 피드백 등의 구체적인 평가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 본인 평가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이척희, 2020). 즉 사회적 지지의 유형은 독립적인 규정이 아니라 서로 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변인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중간체계로 보는 경우도 많으나 사회적 지지의 요소 중 정보적지지 나 물질적 지지는 중간체계적 성격보다는 외체계적 성격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외체계로 사회적 지지를 분류한 예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외체계로 설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4) 거시체계

거시 체계(macro system)는 지역사회, 일반적인 문화, 정치, 종교, 법, 교육, 경제정책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거시체계는 개개인의 인생에 직접 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 구조적인 맥락을 포함하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박은선, 2005; 조기곤, 2008). 거시체계는 특정 문화나 하위문화에서 구조적 특징을 갖춘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문화권 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정형적 환경으로 사회규범, 문화, 정치, 공공정책, 법률,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같이 비형식적이고 묵시적인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세계 속에 내재 되어 관습과 일상생활 습관으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이다 (Bronfenbrenner, 1979). 예를 들어 거시체계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유행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표출한다. 무엇이 현재 ‘유행하는 것’ 이고 ‘유행이 지난 것’ 인지 언론들은 거시체계의 경향성을 확인해준다. 또한, 거시체계는 미(美)의 기준을 보여주기도, 사회적 젠더 기준에 의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기준을 개념화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 지식의 정보는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해로운 음식에 대한 정보, 흡연에 대해 법적, 사회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옥분, 2005). 공공정책은 이 같은 거시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일상생활수준에서 발생하며, 행동과 발달의 과정을 조정하는 외체계 요인, 중간체계요인, 미시체계 요인의 특정한 속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도 공공의 영역 중에서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거시체계로 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신뢰(trusting policy)는 이론적, 경험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구성과 이해에 혼란이 심하며(박통희, 1999), 그 개념의 구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정책 신뢰의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오경민, 2000). 하지만 정책 신뢰를 “정부와 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기반을 두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신념”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 (박통희, 1999; 손호중·채원호, 2005; 오경민·박홍식, 2002). 많은 연구에서 정부 신뢰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 자체에 대해서 혹은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해 평가받아왔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는 정책을 수행함에, 민주적 권력과 권위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국정을 수행하기 쉽다는 점에서 주요 관심 영역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신뢰는 정치기관, 정부 정책 과정, 정부 공직자의 태도 등이 일반 시민의 요구를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박희봉, 신중호, 황윤원, 2013), 포괄적이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자체가 갖는 신뢰와 믿음으로 한정하여 축소된 의미의 개념으로 정책 신뢰가 필요하게 되었다. 정책 신뢰는 독자적 개념으로서보다는 정치 신뢰 혹은 정부 신뢰에 대한 부분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문태현, 1987), 여러 영역에서 폭넓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정책 신뢰를 ‘국가가 추진하는 노후준비 및 성공적 노화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통해 표출되는 기대감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신뢰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손호중·채원호, 2005). 첫째로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정책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둘째 정치참여, 셋째 단체 활동 참여, 넷째, 대인 신뢰로서 대통령이나 공직자, 다섯째 신뢰 대상인 정부의 특성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에서 정부의 특성으로는 ‘피해 감수의 의지’, ‘정부 신뢰의 정도’, ‘일관성’, ‘공공성’, ‘도덕성’, ‘정직’, ‘청렴’, ‘대응 성’, ‘절약’, ‘전문적 지식’, ‘능력’, ‘믿음’, ‘순응적 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신뢰 자가 피 신뢰 자의 행동을 옳게 혹은 그르게 하고 있다고 유추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신뢰 자의 주관적 기대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신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지수, 심준섭, 2011).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후와 관련된 정책은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정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후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들은 노인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정치, 사회, 경제적 영역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양옥남 외, 2006). 특히, 복지의식이 높아지면서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은퇴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자의 적, 타의 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생산수단을 상실한 노인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평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은퇴자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인식하는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여왔고,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년기의 삶 또한 국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인수 외, 2006). 노년기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으며 충분히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나 기대, 평가 즉,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의 개념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태도와 의지의 표현이며 의존적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태도와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김지경, 2006). 이러한 정책적 신뢰가 노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형성되는 경우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인 노후 불안감은 줄어들고 노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생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거시체계로 정책 신뢰를 설정하였다.

3. 노후준비

1) 노후준비의 개념

노후준비(Preparation for Old Age)란 노후 생활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노년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계상 2018).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5년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50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게다가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72.1%에서 51.1%로 21.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2). 즉,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층은 늘어나는 인구감소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노후대책, 노후대비를 노후준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준비의 의미는 필요한 것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고, 대비의 의미는 앞으로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노후준비는 자신의 행복에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배문조, 2009).

노후준비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 다차원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혜련, 2011). 노후준비와 퇴직준비를 흔히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퇴직준비가 고용관계 시 발생하는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노후준비는 고용관계뿐 아니라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생산영역에서 발생하는 변화 외에도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변화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수현, 2009). 노년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노후를 위한 아무런 경제적, 심리적, 준비 없이 퇴직하게 된 중년들의 노후는 가족 내에서 지위하락, 경제수준의 저하 및 사회활동의 단절로 인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된다. 그로 인하여 노인부양 문제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더욱 더 심각해지는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지금의 중년기 성인들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더욱더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이 있다 (노은영, 2017). 특히, 노인인구가 우리보다 먼저 증가했던 선진국의 경우 노인들의 개인적 노후준비가 강조되어오기도 했고, 국가적으로도 노후준비를 실행하여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반면에 압축적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도 노후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노후준비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과 빈곤, 고독과 무위 등을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인의 문제로 4 고(苦)인, 빈곤 고, 경제고, 무위고, 고독 고에 대하여, 노후에 겪을 수 있는 4 고(苦)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강신기, 조성숙, 2013). 이를 위해서는 노후준비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적응력, 대처능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다 (김문점, 2019).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행동이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고 노화를 겪으면서도 지혜가 쌓여, 더욱 성숙한 인생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노화태도는 생산적인 인생 전반과 비교하여 비생산적인 노년기를 사회적인 지위상실 과정으로 스스로 평가하면서 삶의 질,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건강약화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노후준비에서 긍정적인 노화태도를 보이는 것이 노후준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조아라, 오희영, 2017).

한국의 노년층이 부정적인 노화태도를 보이는 주요 이유는 소득수준이 낮고 주택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노후준비 역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로 2011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40%대 이하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에 3배의 달할 정도다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기 노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성이 낮기 때문, 중년들은 개인적으로 노후생활 대책을 위한 노후준비가 요구되며, 노후를 보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 및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영옥, 2020). 노후준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영역의 유·무형적인 요인들과 상호연결성에 주목하기 때문에(손덕화, 2016),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노인 빈곤과 노후준비의 사회적인 현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 「노후준비지원법」(2015.12.23. 시행)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 내에 중앙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노후준비지원실을 설치하여 전국 109개 지사에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였고, 이 중에서 75개 지역 센터에 행복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문점, 2019).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중장년이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노년기의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교육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노후준비에 대해서 국가정책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고 이를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를 다각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박창제 (2008)는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하여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로 정의하였고 최혜련 (2012)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년기 전에 적극적인 계획 및 실천을 위한 포괄적 준비로 정의하였다. 또한 강신기(2013)는 노후준비를 노년에 필요한 자원들을 준비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으로 정의하였으며 박현식(2012)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4중고의

문제해결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노후준비를 ‘노년의 삶을 위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영역에 대해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위한 포괄적인 준비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노후준비의 구성요인

노후에 대한 준비는 학자마다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노후 생활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Weiner는 신체적 문제영역, 정서적 문제영역, 경제적 문제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배옥현, 1990, 재인용).

노후준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기에 대비하여 건강이나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 대한 대책으로 정의하지만, 노후준비가 노인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위해 과거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제공받던 부양이나 서비스를 가족 부양 가치관의 약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 또는 사회 및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 부족 등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노후준비와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남승호 1994, 김성희, 1996, 김승희, 1998) 노후에 자녀와 동거 부양을 받기를 원하는지, 양로시설 이용을 원하는지, 경제적 노후준비는 되어있는지, 경제적 노후준비의 종류는 저축, 사적연금, 공적연금 등 어떤 방법 및 유형으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 경제적 준비와 소득 중심으로 노후준비를 살펴보았다 (양세정·성영애, 2001; 이선형, 2001; 곽인숙 외, 2007; 박혜성, 2007; 송창국, 2008; 박창제, 2011; 이묘숙, 2012). 물론 소득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적 상태가 성공적 노후의 예측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혜영·유정현, 2002). 그러나 과거보다는 최근에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 이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배문조, 2011). 김인숙(2004)은 경제적, 신체적, 건강주거, 여가준비로, 성말순(2004)은 노후준비의식,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준비로, 배문조(2009)는 노후준비의식을 노후준비 시기, 국가 노후정책관심도, 노후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 주거에 대한 의식으로 구분하고 노후준비 행동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여가준비 등으로 구분하며, 조추용 외(2009)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준비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박성준(2016), 서정숙(2018)은 신체적 준비도, 정서적 준비도, 사회적 준비도, 경제적 준비도의 4개 영역을, 장미숙(2017)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의 4개 영역을 구성요인으로 연구하였다.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주의 요인들을 노후준비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용어 선정 및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다른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 노후준비의 구성요소를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및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이윤선, 2021). 일부 연구의 경우 여가생활을 포함 시키거나 사회적 측면을 정서적, 경제적 측면과 함께 결합해 보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노후준비의 요소를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적 노후준비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활동을 증진 시키며, 다양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에 신체적 노후준비를 노후준비의 근본적인 요인이라면 경제적 준비는 삶의 질을 결정하고 생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가장 절실한 노후준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확보해야 할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준비이다 (이운선, 2021).

오늘날 노인의 역할과 지위가 약화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가장 직접적 요인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경제적 힘의 약화는 노인의 경제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김신철, 2021).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원의 중단일 것이다 (조성남 외, 1998).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개인적 생활주기를 근거로 하여 볼 때 경제생활 유형은, 20대 후반에, 취업하고,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소득의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형태이다. 정년퇴직 연령을 고려할 때 55~64세에는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65세 이후에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비 이외에 질병 치료에 드는 의료비 증가로 인해 적자 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권중돈, 2004). 따라서 노년기 이전 생활단계에서 생성된 저축이나 재산을 처분하여 가계지출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거나 가족이나 사회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서정숙, 2018).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거리를 찾는 노인이 늘고 있으며 노인 3명 중 1명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용돈 마련을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있고, 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15.2% 정도가 만족이며, 나머지는 만족하지 않다고 조사되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건복지부, 2017).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을 비롯하여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과거보다 사회 진출은 점점 늦어지고 퇴직은 더욱 빨라져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인생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배재덕, 2014). 결국,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일찍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치료나 자녀들로부터의 자립, 여가생활 등 반드시 노후에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따른다. 즉 기본적 인간 욕구충족과 건강 유지, 여가, 문화 활동 등

으로 인하여, 스스로 소속감,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자아감을 고취 시키는 역할을 하여 노년기의 경제적인 안정과 보장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손덕화, 2016). 김종진(2018)은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높아지면, 강요된 은퇴가 아닌 은퇴에 대한 자발성 증가로 심리적인 변화에 긍정 마인드가 높아지게 되며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영역이 심리적 영역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경제적 노후준비가 심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노후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한은행(2022)에서 발간한 금융 생활보고서에 따르면 41.5세부터 은퇴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나, 실제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된 40대는 15.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84.7%의 경우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50~64세의 응답자 중 80%는 은퇴 후 활용할 주요소득원을 ‘연금’으로 꼽았다. 이 연구에서 재무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보유자산과 투자수입 등을 은퇴 후 생활비로 꼽았지만, 준비 부족 자는 노령수당 등 공공자원에 기대하는 비중이 컸으며 근로소득에 의존하겠다는 답도 26.9%로 나타났다. 즉,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증가했지만, 구체적인 준비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적 영역의 노후준비를 위해 자신만의 구체적인 재무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노후의 필요자금 예측과 가계의 자산 현황, 월평균 생활비, 현금흐름을 확인하여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실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임지현, 2017).

(2) 신체적 노후준비

건강이 제일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한다. 이는 건강한 신체가 개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목표를 추구 달성하는데 절대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강한 상태’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식사, 수면, 운동 등 불편하고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충분한 체력과 에너지를 갖추고 신체 장기나 세포조직 등 생리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Robbins, Powers & Burgless (1997)).

신체적 노후준비는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정화, 2009, 박현식, 2012)으로 노년기의 건강상태는 자립적이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Rowe & Kahn (1997)은 노후준비의 신체적 준비도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 하였으며, 평소 생활 중에 건강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하였다. Shanas, L. S.(1979)에 의하면 건강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 시켜주는 핵심적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이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느끼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생활을 살펴보면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정화, 2009). Baltes & Baltes (1990)는 신체적 건강 혹은 정신적 건강이 노화의 예측 요인이라 하였다. Rowe & Kahn(1997)은 신체적 준비도는 질병을 피해 가는 것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평소 생활 중 얼마만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였다.

사실 신체적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노년기에 직면하는 인구 사회학적 위험이 가장 먼저 신체적 측면에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리학적 나이 40세 이후, 신체 능력과 체력적으로 약화·쇠퇴를 실증하게 된다 (Anderson, & Kras, 2005; Bandura, 1999; Hellströ 2004; Robinson-Smith, 2000). 신체는 생물학적 건강과 젊음을 표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가 보유한 집단 내 소속감, 권력 수준, 위신 등 사회적 의미까지도 내포(Hadaway & Roof, 1978; King et al. 2012)하고 있는데 유교 사상을 정신문화 근간이 된 한국 사회에서 인간 신체는 당당한 위신, 올바른 정신 표상처럼 인지되기도 하고 (최성재·장인협, 2005). 신체 활력과 건강한 신체가 사회 위신 및 직무능력을 표징 하게 된다(안지선, 전해정, 2012, 한경란 외, 2010). 이 때문에 우리나라 노령자의 경우 건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상훈 외, 2012).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진행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4~2020년까지 한국의 노년층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만성질환 중 당뇨, 암, 고혈압의 경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진, 2021). 실제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박희현 외, 2016; 배계희, 1989; 정경희 외 2013)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예상되는 가장 어려움으로 건강문제와 건강의 상실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노후준비에 있어서 신체적 건강이 가지는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백세시대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년의 건강을 대비하도록 헬스테크(Health-Tech)가 필요하다 (김왕기, 2019). 노년기에 들어서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건강한 상태를 지켜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중장년 대다수는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기 싫고 자신감의 부재로 운동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리 이를 습관화 시키는 신체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3) 정서적 노후준비

노년기 정서적 변화의 원인으로는 정년퇴직, 신체적 변화, 배우자 사별, 친구의 죽음 등 주로 역할상실 때문에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신체적 변화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의지와 달리 점차 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과 같은 감각들이 퇴화하고 인지기능이 감퇴하면서 성격이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같은 말과 행동 또는 같은 상황에서도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은 더 서러워하고 노여워할 수도 있으며 소외감과 상실감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김신철, 2021). 또한, 역할상실로 인해 이제까지 가졌던 인간관계가 축소되고 이로 인한 공

허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전귀연, 배문조, 2010). 내향성 증가로 능동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사용해 온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 또한 증가할 수 있으며, 과거에 대한 회상도 증가할 수 있어 우울한 성향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 때 정서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고독사의 문제, 노인 우울 증 및 자살 등 사회적 차원의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이소정, 2008). 그러나 노년기의 정서적 문제는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 보다 그 중요성은 크게 부각 되지 않은 채 노년기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강유진, 2005). 하지만 박현식(2012)은 노후준비에 이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서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후를 설명하는 예언 변인이며, 신체적, 경제적 준비보다 예측 및 중요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노승욱(1995) 역시 친구 역할과 단체구성원의 역할, 친척 관계가 노인의 정서적 건강 유지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보았으며, 이가영과 박태진(1997)은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지 않은 노인들보다 건강상태가 좋으며, 폭넓게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노인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지원망의 크기가 클수록, 지원망에 속한 성원과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가 많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다 (박경숙 1999).

정서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최근의 사회 변화와도 맞물려있다. 이전사회에서 노년기의 정서 문제는 가족들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즉, 배우자의 유무,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동거, 자녀와의 관계 등이 노년의 정서적 문제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고 건강한 가족관계의 회복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확산, 황혼이혼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노년기의 정서적 준비를 가족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관계로의 관계 확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 정서적 노후준비는 노후에 들어서 자신을 위한 자아정체성과 독립적 생활능력을 가지며, 준비된 노후에 관한 자신감으로 가족 및 직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사회활동 영역을 찾을 수 있게 한다(Krause,2003;Krause, 2008;Kreitler& Kreitler, 2006). 즉 중년 후기세대는 자신의 기량을 시험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을 탐색하게 되며(Austromet al. 2003), 이는 사회참여와 사회적 지지 형태로써 구현화 되기도 한다.

노후준비는 과거와 구별되는 자아정체성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는 은퇴 이전의 삶과는 대별 되는 존재로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이에 관한 결과가 바로 사회참여의 형태로 도출된다 (Elosua, 2011; Hellströmet al. 2004; 김미령, 2013; 오병철, 2012; 임종미, 2012). 즉, 중년 후기세대 역시 노후준비를 통해 축적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할 사회참여를 시도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처럼 중년 후기세대의 사회참여는 자신의 능력이 건재하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의문을 충족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중년 후기세대가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형태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와 같은 지연·혈연 기반의 모임과 더불어, 동호회, 종교모임과 같은 가치관과 기호를 공유하는 범주로서 정립된다 (주경희, 2011a, 주경희, 2011b).

기존 선행연구 (박경미, 2013; 배문조, 2011; 신수민, 2013)에서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를 통해 축적된 역량 수준에 관한 만족감은 주변인과의 관계 정립에 일정한 상관성이 있으며, 이것을 지속화하는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인숙(2015) 역시 노년기의 역할상실에 따른 삶의 고독감 및 정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지속해서 삶의 고독감 및 정서적 문제의 해결, 이웃, 친지 그리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들에서 여가생활 준비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는 것 역시 이 같은 사회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 성공적 노화인식

1) 성공적 노화인식의 개념

인간의 발달과정을 통해 사회적, 생리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퇴행적 발달을 노화라고 정의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는 것, 생리적 측면에서 신체 기관, 구조, 기능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 심리적인 측면에서 내적, 외적인 심리가 복합적으로 퇴행하는 노화를 포함하고 있다 (김동배, 권중돈, 2004). 이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적 노화는 ‘잘 노화하는 것(Aging well)’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성공적 노화란 웰빙(Well being) 이론과 고령화 논의의 중심적 개념으로서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well being)을 설명하고자 하여 ‘건강한’, ‘생산적인’, ‘활동적인’, ‘최적의’ 혹은 ‘긍정적인’ 노화로 표현되어왔다 (박윤희, 2017).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기원전 44세기경 키케로가 썼던 훌륭한 노화(Good aging)에 관한 수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키케로(M.T. Cicero)의 멋진 노화의 본질에 관한 수필에서 키케로는 멋진 노화를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보고 적절한 술과 음식을 즐기며, 독립성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미진; 2019, 이영애 2019). 키케로의 수필에서 노화는 ‘불건강(Illness)’과 혼돈되는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와 생산적 기능의 가능성을 포함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박형란, 2011)으로 제시되었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용어가 학계에 전면적으로 부각된 것은 신 노년학(New Gerontology)이 등장한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86년 미국 노년 사회학회의 주제로 소개된 이래 ‘성공적 노화’는 생물학을 비롯해 사회과학, 행동과학 그리고 의학 등 각각의 학문영역 안에서 널리 사용되어왔다 (강성욱, 2013). 때문에,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의도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왔다.

Fisher & Specht (1999)은 특별한 장애는 없지만,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들로 질환에 걸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고독하고 활기차지 못한 나날을 보내는 노년과정을 보통의 노화(Usual aging)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인 노화를 노인의 노력과 환경의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극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성공적 노화와 구별하여 제안하기도 하였다.

Strawbridge (2002)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주로 건강과 수명문제에 기초하여 정의됨으로써 일상생활의 활동이나 신체적 수행 정도를 중요시하였으나, 점점 심리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인지적 기능의 최적화와 생활 만족도, 자기효능감, 지각된 통제력 등으로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였다.

Baltes & Carstensen (1996)은 삶의 질,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노인에게 삶의 목적을 제공하게 되므로 노화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게 되어 이러한 과정 자체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성공적 노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Rowe & Kahn(1998)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전통적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해 성공적 노화를 3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첫째, 질병과 장애의 최소화(minimizing the risk of disease and disability)이다. 이것은 질병이나 장애가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노화라는 신체적 변화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영역으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났다. 둘째는 신체와 정신적 기능의 유지(maintaining physical and mental function)이며, 이 영역에서는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지막 영역은 삶에 참여를 지속하기 (continuing engagement with the life)이다. 이 영역에서 이들은 노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성공적 노화를 질병이나 장애가 없으며,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삶에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성공적 노화의 또 다른 모델은 Ryff & Keyes (1989)의 통합 모델로, 자기수용,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 자기 결정 및 자율성, 환경 적응력, 인생 목표, 개인 성장의 차원이라는 6가지로 성공적인 노화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노화를 생애 발달적 차원에서 개인의 성장과 임상, 그리고 정신건강으로 분리되는 심리학적 차원을 결합한 것이다. 또한, Vaillant (1994)는 성공적 노화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으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신체적 건강이란 생물학적 건강과 수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성적 질병을 통해 인간의 생명 단축 특히 치료가 힘든 만성적 질병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일상적 생활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심리·사회적 건강으로는 심리·사회적 능률, 생활 만족의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되는데 정신적 건강이 갈등, 상실, 슬픔, 실패와 같이 생활에서의 변화와 스트레스를 조절할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할수록 노후에 대한 적응, 성공적 노화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장홍영, 2021). 즉, 이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성공적 노화란 신체적 측면, 정신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성공적 노화 개념 등장 배경은 그동안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기존 노인이나 노화에 관한 관점에서 벗어나, 노인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제3의 인생 시기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생물학적 측면의 건강과 수명 관점에서 정의되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인지적인 기능과 심리·정서적 기능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관계와 지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미혜, 신경림, 2005). 우리나라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남기민, 이정민(2012)은 노년기를 전체 생애 발달적 가정에 있어서 노년의 시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화하여 신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심리적 안녕 상태에 이르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정희 (1996), 권중돈,

조주연(2000), 김미령(2008), 은 성공적인 노화를 삶의 질 차원에서 노년기 이전 생활을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과 적응하면서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느끼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성공적인 노화는 장기간으로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학술적 관심증가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도 노년기를 앞둔 중년기 성인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년기의 성인이 인지하는 성공적 노화와 중년기의 성인이 인지하는 성공적 노화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중년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시대적인 경험을 통해 다른 가치관의 특성을 보유한 세대이므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현재 노인세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박길화, 2013). 성공적 노화인식은 긍정적 가치 추구와 삶의 목표가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이도영 외, 2016),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인생 마감과 함께 변화에 대하여 수용과 적응 잘하는 것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자기완성을 실현하며, 자기와 타인을 수용하고,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전병주, 최은영, 2016). 이러한 성공적 노화인식은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개인 내에서도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며, 주변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가지고 있다.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는 노화를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바라보고 품위 있는 노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년기의 노화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자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성공적 노화인식은 성공적 노화의 척도보다는 중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선행 연구를 통해서 노년층보다 중년층은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성공적 노화인식의 구성요인

성공적 노화인식의 구성요인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서 출발한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학자에 따라 또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으나 대체 적으로 신체적 건강, 긍정적 심리상태, 인지능력, 적극적 사회참여 등을 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다차원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성요소를 연구하였으나 대체 적으로 정리해보면 신체적 건강, 적응과 통합, 적극적인 역할 참여, 삶에 대한 만족 등이 공통 적으로 나타난다 (강성욱, 2013).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중년의 성공적 노화인식을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노년기 성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차원들은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녕, 사회적 관계의 편안함 등이고, 노년을 준비하는 중년 세대들에게는 개인의 성장이나 의미추구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안정신 외 2009)은 중·노년기

모두가 공통 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차원을 포함하는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일상의 안녕, 자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여 사회적으로 기여 하는 바가 있고 상호 작용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역시 노년을 준비하는 중년 후기를 연구대상이므로 중년 세대까지 포함하여 생애 발달과정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정신 외 2009)의 개념에서 따라 성공적 노화인 식의 하위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상의 안녕

일상이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지칭하며, 안녕이란 아무런 탈이 없이 편안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상의 안녕에 대한 의미는 매일 아무 탈 없이 편안히 살아가는 과정의 차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생활의 만족감, 생활의 행복감, 생활의 주관적 안녕감 등과 같은 맥락으로 타인과 좋은 관계유지와 자신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 관리를 의미한다 (김영옥, 2020).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주로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일상의 안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성옥, 하규수, 2013). 안정신 외(2009)는 이를 성공적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이라고 강조하였고 백지은·최혜경(2005)은 일상의 안녕이란 건강, 경제, 가족 지지, 자녀 성공 등 삶의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상태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자료수집에 사용할 측정 도구를 참고 및 분석하여 일상의 안녕을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세 분야에서서의 편안한 상태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심리 사회적 안녕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심리 사회적 안녕은 사람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의 안녕 감으로서 심리학자들은 안녕감에 관해 간단하고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다양하게 수반된 안녕 감으로 심리 사회적 안녕을 정의하고 있다 (김영옥, 2020). 심리 사회적 측면은 신체 및 정신건강, 자기수용, 자율, 자기통제 등 심리적 적응과 인지기능 등 부모 자녀와 관계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 및 친밀한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과 복지 등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강성옥, 하규수, 2013). 즉, 심리 사회적 안녕감이란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 노화에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심리 사회적 안녕이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

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주변과 유지하며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자료수집에 사용할 측정 도구를 참고 및 분석하여 심리 사회적 안녕을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인정하고, 생에 만족하며, 사회에 이바지하고, 정기적 상호작용 및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떠한 결과 값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행동과 양식을 수행하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과 행동을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 능력에 관한 판단이며 개념이다 (김연선, 2008). 이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주관적, 인지적으로 대응하는 행동 척도이며, 당면 문제해결에 관한 확신과 행동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척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포함한다 (김연선, 2008). 자기효능감 향상은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과 주변 환경이 중요하며, 대인관계와 환경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영은, 2015). 한편 노인들은 현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활동에서 배제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잉된 판단으로 실패를 해본 경험 때문이다.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홍석관, 2006).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의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사회은퇴와 관계의 해체, 상실 등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약해지게 된다 (백인경, 2009).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요인으로 노인들이 계속 적으로 신체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질 수 있다 (김영옥, 2020). 이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변화하는 환경 및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옥, 하규수, 2013). 결국,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불안, 무기력을 동반하게 되어 자신의 목표와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며,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옥, 2020). 선행연구 분석 및 자료수집에 사용할 측정 도구를 참고 및 분석하여 자기효능감을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관리 및 자기 성장을 포함하여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5. 선행연구

1) 생태체계 관점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

생태체계 관점에서 중년층이나 노년층 대상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지혜은(2018)은 생태체계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성별, 연령, 교육수준, 자산 수준,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중간체계(자녀 수, 자녀와의 동거 여부, 형제 수, 형제와의 동거 여부), 거시체계(거주지역, 정부 지원에 따른 노후 생활기대감) 요인들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에서 교차 분석에서는 체계별 요인에 따라 유의미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신체적, 인지·심리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자녀 수, 형제와의 동거 여부,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해서 살펴본 김규리(2021)의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노후준비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노후준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심리적 노후준비가 가장 양호하며 생태체계 요인들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심리적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여가활동 만족, 가족 탄력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는 노후준비의 생태체계요인들로 확인된 바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살펴본 배나래(2007)는 노인의 삶의 질에 차이를 보인 미시체계요인은 배우자 친밀감,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 의식으로 나타났고, 중간체계는 지역사회환경으로 나타났으며 거시체계 요인으로는 노인차별 주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남성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시체계 요인에서만 나타나고 반면, 여성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로 나타난 바 있다. 최화강(2012)은 여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을 살펴본 결과 생태체계 요인 중에서도 가족관계, 노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우울과 자존감이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숙(2009)은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요인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개인체계(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타인의 도움), 미시체계(배우자의 지지, 자녀의 지지, 가족관계), 사회환경체계(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참여, 주변 생활환경) 중 미시체계 요인 중 가족관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자아존중감, 배우자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환경체계 요인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주변 생활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문제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배우자

의 지지가 많을수록,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할수록 주변 생활환경이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명숙(2011)은 노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을 개인체계(성별, 연령, 직업, 건강상태, 소득수준, 교육수준, 주거환경,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자녀지지, 배우자 지지, 친구, 이웃 지지), 중간체계(여가활동, 봉사활동, 종교 활동), 거시체계 요인(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 장기요양 보험제도/노인 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도 이용 여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자녀지지, 봉사활동, 여가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시체계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지지가 많을수록, 여가활동을 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현진 (2012)의 연구 역시 농촌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농촌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개인체계 하위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미시체계 하위요인인 배우자 지지가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배우자 지지가 강할수록 농촌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배우자 지지가 주관적 건강상태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명숙, 박경숙(2012)이 수도권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생활 만족도 연구와 다르게 과거 생활 만족도, 현재 생활 만족도, 미래 생활 만족도를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 분류에 따라 생태체계 요인도 다르게 나타났다. 과거 생활 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인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인 자녀지지, 중간체계 요인인 천주교 여부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생활 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건강상태, 주택 소유 여부,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인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인 여가활동 여부와 불교인 여부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미래 생활 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중간체계요인인 봉사활동 여부와 불교인 여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명범 (2011)은 생태체계 요인이 노인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개인체계에서는 건강상태 수준이 건강한 편일수록,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높을수록 노인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았다. 또한, 미시체계에서는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노인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았다. 중간체계인 사회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손덕순(2005)은 노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생태체계요인 관련 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체계요인, 사회환경체계요인 모두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은 자아존중감, 죽음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주거환경만족도, 노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지지 등이다. 송영달, 손지아, 박순미(2010)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는 개인체계 요인인 우울, 가족체계 요인인 가족구조, 지역사회 요인인 사회활동의 참여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

날수록, 가족구조에서, 동거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자살 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한 독거노인은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행(2010) 역시 노인 자살과 관련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미시체계(인구 사회학적 배경, 우울, 스트레스, 건강요인, 경제적 요인, 행태적 요인), 중간체계(가족관계, 가족 환경체계, 비공식적 지지), 거시체계(노인 차별주의 요인, 노인복지서비스요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보도, 노인복지 예산 비율,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미시체계요인에서는 건강요인과 경제적 요인, 우울증,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체계 요인으로는 가족 요인과 비공식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가족, 친구, 전문가 또는 정보, 정서, 물질, 평가적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관련이 있었다. 거시적 체계에서는 노인차별의식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체계적 관점이나 생태체계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년층이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생태체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노후준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노후준비 특성이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이윤선, 2021).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노후준비도와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Bromley(1974)는 중년남성이 인생에서 은퇴 경험은 인간 생애 발달 사건 중에서 가장 힘든 사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사전에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중년은 미리 준비된 중년보다 스트레스 및 긴장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Jeanneret(1995)는 Neuchatel Senior Citizens University 4개 조직의 남녀 회원 547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214명은 노후준비에 도움을 받았고, 33명은 어떠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214명 중에서 186명(87.3%)은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대답을 하였다. 이회경 (2003)은 중년층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도를 조사하였는데, 노후의 건강과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가계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영숙(2005) 연구에서는 노후 생활에서 예상하는 문제에 건강, 경제력 상실로 선정하였는데, 평소에 건강에 관하여 걱정은 하지만 건강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신체적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외식 줄이기, 체중 감

량, 과음, 흡연을 줄이거나 삼가며, 평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별하여 섭취하고 있어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소극적인 건강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의 건강관리에 있어 취업 여성이 사회활동으로 인한 과음과 흡연율이 높아 전업주부보다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동배 외(2012)는 중년기에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취미와 여가생활을 할수록 노년기 성공적 삶이 증진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분한·조진희(2012)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명일·신혜리(2015)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일수록, 과거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에 관한 생각 및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노후준비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이들 선행연구 대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노후준비도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강유진, 2005; 김양이·이채우, 2008; 이신영, 2009; 최성재, 2009; 신근영·고재욱, 2014). 예컨대, 전진우(2002)는 생활, 경제, 취업, 주거환경 등의 대책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배문조와 전귀연(2010)은 신체적, 심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의 준비도와 관련된 연구를 하였으며 또한, 성말순(2004)은 신체적, 심리적인 노후준비도와 사회적, 경제적인 노후준비도 그리고 노후준비 의식과 같은 노후준비도를 다루었고, 이어 배문조(2010)는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을 국가의 노후 정책관심도와 노후를 준비 시기, 노후의 신체적, 경제적, 주거와 정서적 및 여가에 대한 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조추용 외(2009)는 신체적, 정서적, 여가, 경제적 준비로 설명하고 있다. 김남순(2009) 역시 신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정신·사회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를 연구하였다.

여가와 주거를 정서적, 사회적 영역 대신에 살펴본 연구도 있다. 김지영(2009)은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도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여가준비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중년층의 성별과 소득 그리고 노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 수준이 4가지 영역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김인숙(2004)은 신체적, 경제적, 여가, 주거 등과 관련된 노후준비도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외 노후준비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신체, 정서, 경제 측면으로 나누어 본 연구들이 있다(이정화, 2009; 신근영·고재욱, 2014).

이밖에 노후준비를 변인으로 한 국내 선행연구는 노후준비 행동, 노후준비 의식, 여가활동, 경제적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화 태도 등을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가 있다.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김연선(2015)은 노후 생활 인식과 퇴직 태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공공 사회복지사는 퇴직 태도의 하위요인인 강요된 좌절과 새로운 출발로 인식하고 있을 때,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민간 사회복지사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 예상 문제점 인식이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노후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적응 유연성

이 높아지며, 노후준비의 하위요인인 신체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 중 정서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노후준비가 높을수록 적응 유연성도 높고, 적응 유연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희·김옥, 2013).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년기 적응에 있어 남편 없는 외로움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강유진·한경혜, 2002). 또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황승희 (2012)는 노후준비는 결혼상태, 종교, 월평균 소득, 주거형태, 노후준비의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기혼자였으며, 기독교나 천주교 등의 종교를 가졌으며, 월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노후준비를 40세~49세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노후준비도는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노화 불안과 성공적 노화 인식 및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연구한 홍금희 외(2015), 중년기를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로 나누어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최은영 (2015)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인식이 높을수록 삶을 소외와 상실로 인식하는 경우가 낮았고 재도전의 기회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거주지 유무, 현재 경제적 수준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배계희, 1988, 임경자, 2002, 이정화, 2009,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었고, 종교를 가진 그룹일수록 사회적, 정서적 노후준비가 높고(조미영, 2006), 배우자가 있고 시설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있어 시설입소를 원할수록(김양이 외, 2008)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종합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는 성공적인 노화의 필수조건이다. 노후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는 것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Keele & Aipert, 2015). 둘째, 노후준비는 생애 전 발달 주기에 거쳐서 준비해야 한다. 셋째, 노후준비는 중년기에 보유하고 있는 물질, 인적 자원을 유지 및 활용함으로써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한 장기적 과제이다 (박윤희, 2017). 즉, 노년기의 의존성, 건강, 생활의 질 등은 중년기의 생활 모습, 그리고 생활양식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Moen & Wethington, 1999; Will SL & Reid JD 1999),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은 중년기 성인의 ‘성공적인 노화’는 인간의 일생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원교, 2012).

3) 성공적 노화인식

국내에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연구 동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인

식에 관한 연구(정석환, 2011)로서 이 연구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였다. 관련 연구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백지은 (2006)의 연구다. 한국 노인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차원을 규명한 백지은 (2006)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가 일상의 안녕, 효능감, 물리적 안녕, 사회통합, 현실수용이 성공적 노화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일상의 안녕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현실수용, 사회통합, 물리적 안녕, 효능감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 있어 건강, 가족 및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갖는 관계 지향적인 요소,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들을 중요시(백지은, 2006)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성공적 노화에 관한 척도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들(김동배, 2008; 김은주, 김영희, 2011; 전은희, 2011)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성공적 노화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거나 척도를 활용하여 성공적 노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성공적 노화 모델을 검증하고 모델 구성 변인 간의 관계성에 관련된 연구들 (성혜영, 조희선, 2006; 김미령, 2008)이다. 넷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로서 이 연구들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영향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성공적 노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순옥, 2014)이다.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들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지만,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으로 노년기를 위한 준비는 중년기의 과업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중년기의 성공적 노화인식수준이 개인의 건강, 삶의 질, 노후준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최인영 (2007)은 백지은, 최혜경 (2005)이 사용한 성공적 노화에 관한 83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중년층이 인식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연구하였는데, 성공적 노화인식 영역을 개인 성장, 건강과 경제, 의미추구, 가족의 안녕, 중용, 과시성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중년기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가족의 안녕’을 꼽았는데, 가족의 안녕이 자녀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안정신 외 (2009)는 국내에서 개발된 성공적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성공적 노화 모델에 중년층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년층을 위한 성공적 노화인식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척도는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효능 감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정병은, 이기홍 (2010)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비교연구에 의하면 노년층이 재정적 능력과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을 제외하면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세대별로는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적 노화의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노년층은 자율성, 개인 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완수, 자아수용 순이었고 청년층은 자율성, 개인 성장, 역할완수, 자아수용, 안락한 생활 순이었다. 중년층의 경우, 이전 세대와는 달리 노년기 삶을 자녀의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진희,

김분한 (2012)은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우울함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 성장, 건강과 경제, 의미추구, 가족의 안녕, 중용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의 삶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시사하였다. 이신영 (2012)은 중년층과 노년층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 및 비교하기 위해 김미혜·신경림 (200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결과 중년층의 경우 성공적 노화에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부부간 동반자적 삶,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순이었다. 이 연구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노년층과 중년층의 인식 차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다. 강성욱 (2013)은 안정신 외(2009)가 개발한 척도를 조정하여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 역시 노후준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할수록 성공적 노화인식이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도 향상한다고 보았다. 강인 (2016) 역시 안정신 외(2009), 강성욱 (2013)이 사용한 척도를 같이 사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참여 순이었고 신체적 준비에 영향력이 큰 성공적 노화인식 영역은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 순이었고, 정서적 준비는 자기효능감,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학적 안녕 순이었으며, 사회참여 준비에는 심리 사회학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인은영 외 (2015)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백지은 외 (2005)의 83문항을 33문항으로 수정하여 중년기를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인식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의 안녕, 건강과 경제, 의미추구, 중용, 개인 성장인식, 타인의 인정 순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노후준비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며 노년층과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요인에 따른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생태체계 관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하여 추상적인 분석 및 접근이 아니라 시대 변화와 시대 상황에 맞게 분석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는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의 포괄적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태체계 관점은 중요성을 가진다. 생태체계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개인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데(김동배, 이희연, 2003) 이 포괄적 시각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생태체계관점은 초기에 주로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로 정립되었으나 곧 심리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었다(이명순, 2006). 생태체계적 관점이 갖는 시각은 인간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 사이에 상호 교환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론들의 관점을 공통으로 공유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낙관적이다(전미숙, 2017). 또한, 환경과 인간은 상호작용을 지속유지하고 서로 간에 교환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서로 적응을 해나가는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변화해 간다고 하였다(김동배·권중돈, 2001; 문수경, 2004; 임선영, 2015, 재인용). 생태체계관점에서는 여러 국면을 접하는 환경인 미시체계(micro system), 중간체계(meso system), 외체계(exo system), 거시체계(macro system)로 구분된다. 인간은 사회문화적 체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개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김동배, 권중돈, 2004). 인간을 둘러싼 사회체계는 끊임없이 환경적 요구에 직면하며,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이 소유한 것이 이상의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체계 내의 변화를 발생시키며, 더욱 높은 수준의 조직화를 위해 작동하는 잠재력을 불러일으킨다(최영란, 2016).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적 요인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관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를 투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시체계(micro system)는 개인특성의 포괄적 의미인 물리적·심리적·사회적 체계의 한 형태이며, 인간과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영

향력을 미친다 (임정문, 2014).

자아존중감은 개개인의 특성에 속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내적인 심리상태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전체 생태체계에서 미시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와 노후준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Cottle (1965)는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이상이나 자신의 실체 개념과의 일치의 정도이며, 이상과 실제 성취의 불일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일치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김덕경, 2011).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미시체계로 산정하고자 한다.

중간체계는 개인이 참여하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과정과의 상호 작용이나 상호관계를 의미하므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가변적이고 이동 적이다 (배지연, 2005). 여가는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소득을 보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적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며, 사회·심리적으로는 생에 대한 애착이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신적으로는 긴장감을 해소하며 적절한 정신적인 자극을 주게 되어서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루다, 2019). 이런 요인으로 인해 여가활동 만족 역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의 요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여가활동 만족은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생태체계에 있어서 중간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간체계로 여가활동 만족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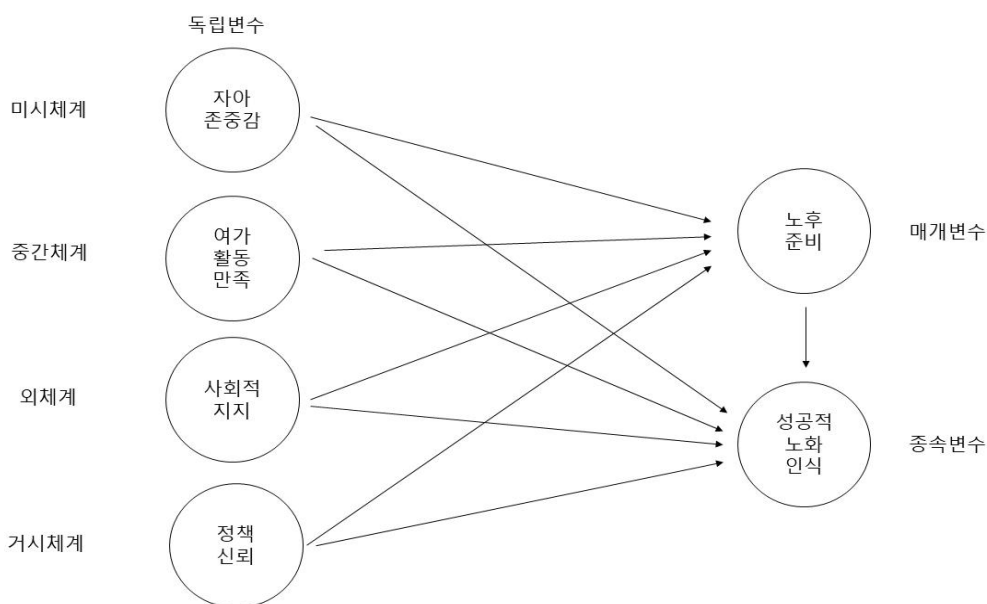
외체계(exo system)는 두 가지 이상의 환경들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 중 최소한 한 가지 체계는 그 개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체계이다. 또한, 개인은 외체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환경들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정문, 2014).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는 사회적 지지의 정의만큼 다양한 유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서적 지지, 정보 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구분하였다(이원호, 2006).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신체적, 물질적 변인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외체계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거시 체계(macro system)는 지역사회, 일반적인 문화, 정치, 종교, 법, 교육, 경제 정책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까지 포함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후와 관련된 정책은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정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후

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들은 노인 자신이나 가족은 물론, 정치, 사회, 경제적 영역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양옥남 외, 2006).

정책적 신뢰가 노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형성되는 경우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인 노후 불안감은 줄어들고 노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생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거시체계로 정책 신뢰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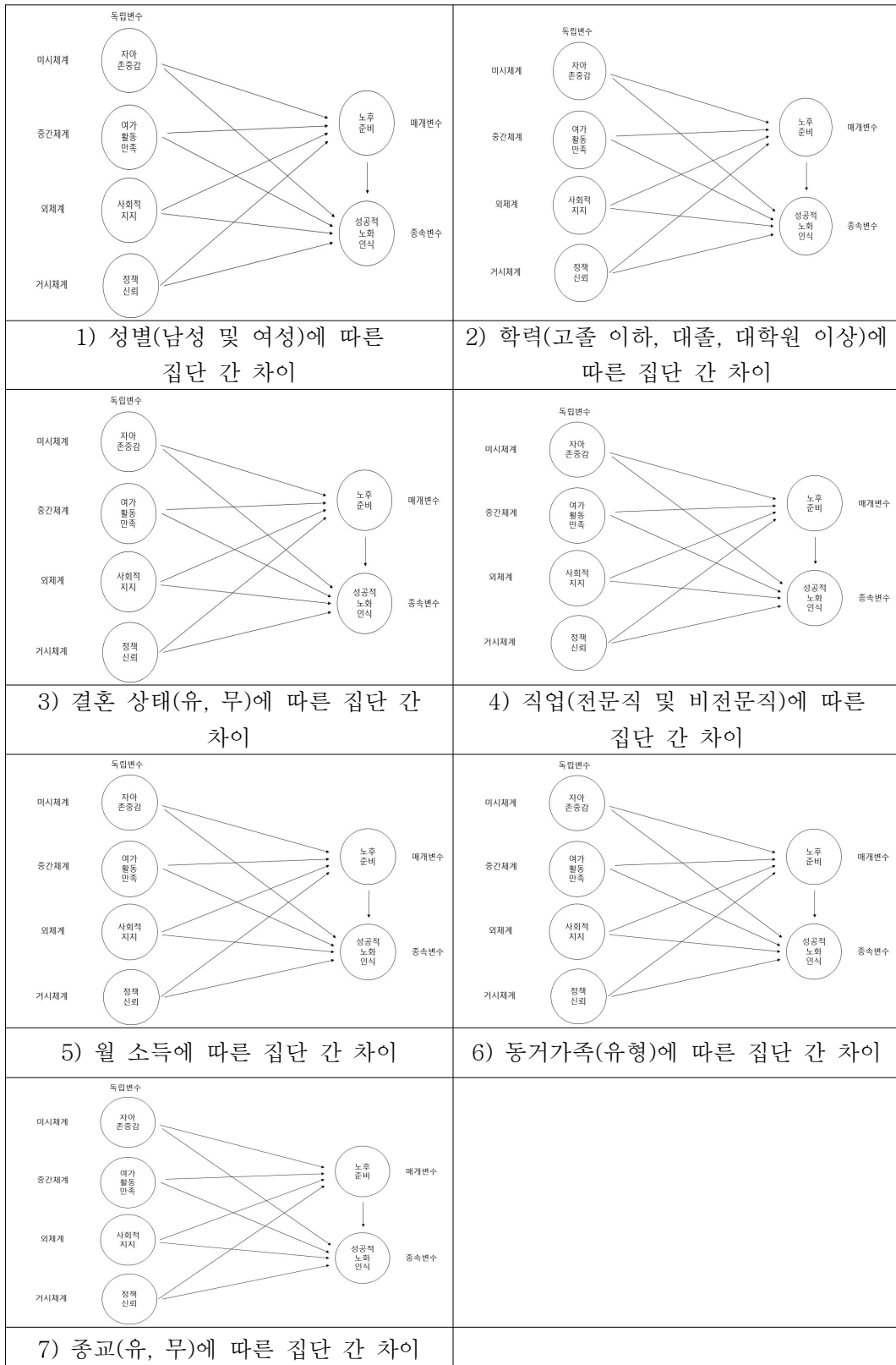
생태체계 관점에서 중년 후기성인의 자아존중감(미시체계), 여가활동 만족(중간체계), 사회적 지지(외체계), 정책 신뢰(거시체계)가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연구 모형1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인 중년 후기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구조모형 내에서의 각 경로의 차이를 검증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하였다. 다집단분석을 위해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III-2>와 같다.

다집단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그림 III-2] 연구모형 2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중년 후기 성인기의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중년 후기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중년 후기성인의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중년 후기성인의 학력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중년 후기성인의 결혼 상태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중년 후기성인의 직업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중년 후기성인의 월 소득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중년 후기성인의 동거가족 유형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7. 중년 후기성인의 종교 유무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은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년 후기성인의 미시체계요인은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년 후기성인의 중간체계요인은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중년 후기성인의 외체계요인은 노후준비에 정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중년 후기성인의 거시체계요인은 노후준비에 정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은 성공적 노화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중년 후기성인의 미시체계 요인은 성공적 노화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중년 후기성인의 중간체계 요인은 성공적 노화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중년 후기성인의 외체계 요인은 성공적 노화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중년 후기성인의 거시체계 요인은 성공적 노화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 요인과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1. 중년 후기성인의 미시체계 요인과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2. 중년 후기성인의 중간체계 요인과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3. 중년 후기성인의 외체계 요인과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5-4. 중년 후기성인의 거시체계 요인과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계에서 노후준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6> 중년 후기성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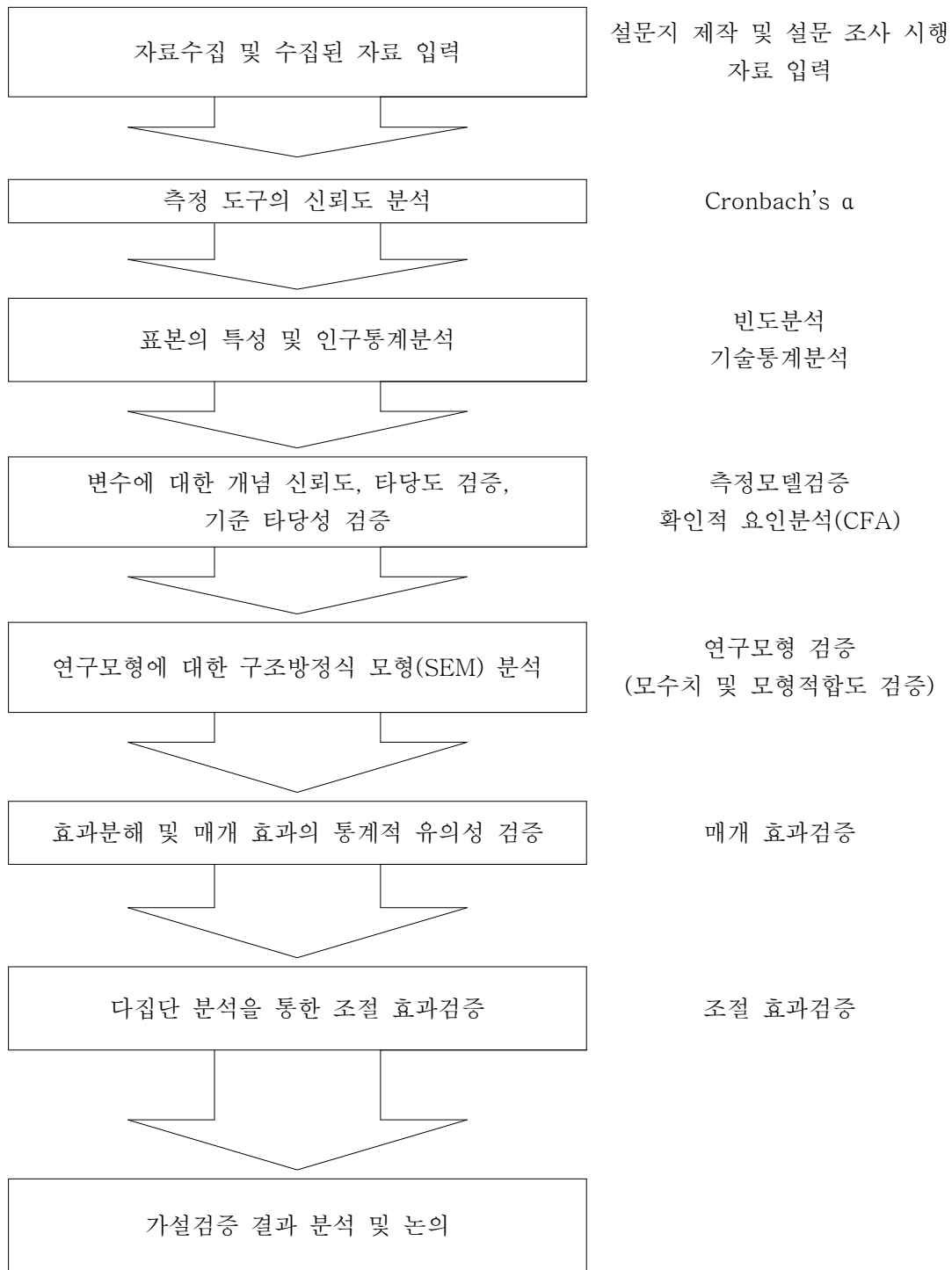
가설 6-1. 중년 후기성인의 성별에 따라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2. 중년 후기성인의 학력에 따라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3. 중년 후기성인의 직업에 따라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4. 중년 후기성인의 종교 유무에 따라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절차



연구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절차 체계도는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III-3] 분석절차의 체계도

중년 후기성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분석한 후,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확인과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versio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변수에 대한 개념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versio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으며, 상정된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전체 구조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 검증을 하고,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중년 후기성인 496명이다. ‘중년 후기’는 만 55세에서 만 64세까지로 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성별은 남성 55.2%, 여성 44.8%로 비슷하였다. 연령대는 55~57세 20.4%, 58~60세 39.9%, 61~64세 39.7% 등이었다. 학력은 중졸 3.5%, 고졸 28.8%, 대졸 41.5%, 대학원 이상 26.2%로 대졸이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 2.6%, 기혼 84.3%, 이혼/별거 6.3%, 재혼 1.6%, 사별 5.2% 등으로 기혼이 대부분이었다. 직업은 전문직 35.5%, 사무직 11.1%, 판매/서비스직 12.9%, 자영업 11.5%, 주부 15.1% 등이었고, 나머지 분류는 소수였다. 월 소득은 200만 원 미만 11.7%, 200~400만 원 미만 28.6%, 400~800만 원 미만 27.4%, 800만 원 이상 32.3% 등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 유형은 1인 가구 9.3%, 부부와 자녀동거 48.4%, 부부만 동거 33.9%, 3세대 가구 1.8%, 노부모 포함한 부모 2.4%, 자녀 포함한 부모 4.2% 등으로 부부동거 가구가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 25.4%, 천주교 14.5%, 불교 36.9%, 무교 22.0%, 기타 1.2% 등이었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96)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74	55.2
	여성	222	44.8
연령	55~57세	101	20.4
	58~60세	198	39.9
	61~64세	197	39.7
학력	중졸	17	3.4
	고졸	143	28.8
	대졸	206	41.5
	대학원 이상	130	26.2
결혼 상태	미혼	13	2.6
	기혼	418	84.3
	이혼/별거	31	6.3
	재혼	8	1.6
	사별	26	5.2
직업	전문직	176	35.5
	사무직	55	11.1
	판매/서비스직	64	12.9
	자영업	57	11.5
	농축 수산업	7	1.4
	생산/기술직	7	1.4
	주부	75	15.1
	무직	24	4.8
	기타	31	6.3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58	11.7
	200~400만 원 미만	142	28.6
	400~800만 원 미만	136	27.4
	800만 원 이상	160	32.3
동거가족	1인 가구	46	9.3
	부부 자녀 동거	240	48.4
	부부만 동거	168	33.9
	3세대 가구	9	1.8
	한 부모 동거(노부모)	12	2.4
	한 부모 동거(자녀)	21	4.2
종교	기독교	126	25.4
	천주교	72	14.5
	불교	183	36.9
	무교	109	22.0
	기타	6	1.2
전체		496	100.0

3.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의 표집 방법, 설문지의 수거, 자료수집 방법의 적절성, 응답자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 설문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는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설문지의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도, 응답 소요 시간 및 응답에 관한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주변의 중년 후기성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모집은 사회적 분위기인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비대면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사전에 제작된 온라인 설문지의 주소를 이메일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제공하여 안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도 동시에 수집하였다. 지면 조사는 설문지를 해당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본 연구자를 통해 회수하였다.

2) 본 조사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이 중년 후기라는 점에서 연령 구간을 나누기보다는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더 응답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경제 수준에 따른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득 또한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수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주로 중년 후기성인의 참여 빈도가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참여 활동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참여를 안내하였다. 참여자는 전국의 중년 후기성인으로 사전에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방법은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예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자가 사전에 제작한 온라인 설문지의 주소를 이메일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제공하여 안내하였다. 지면 조사는 설문지를 해당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지면 조사 응답 결과에 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지면 조사는 질문지를 서류 봉투에 각각 넣어 응답 후 봉투를 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56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55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및 중년 후기성인 연령 범위 (55세~64세)에서 벗어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496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인식이다. 이들 척도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자기 보고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질문지가 작성되었으며, 응답 시간은 평균 15분 내외로 소요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수는 <표 III-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 특성 8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여가활동 만족 16문항, 사회적 지지 25문항, 정책 신뢰 5문항, 노후준비 15문항, 성공적 노화인식 23문항으로 총 102문항이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연령과 월평균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외에는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III-2> 설문지 구성에 따른 변수명 및 출처

변수명	문항 수	출처
자아존중감	10	Rosenbeg (1965), 전병재(1974), 이성주 (2018), 이재모(2018), 김왕기(2019), 김규리 (2021)
여가활동 만족	16	Beard&Ragheb(1980), Sherer et.al(1982), 이종길(1992), 김성수(2009), 정춘호 (2018), 이재모(2018),), 김규리 (2021), 이지모 (2021)
사회적 지지	25	박지원 (1985), 윤혜정 (1993), 이영자 (1995), 김현주 (2018), 이명희 (2020), 김규리 (2021).
정책 신뢰	5	김규리 (2021), 김성남 (2012), 정주희 (2021)
노후준비	15	Havinghurst (1953), 강성욱(2013), 이재모 (2018), 이성주(2018)
성공적 노화인식	23	강성욱(2013), 김영옥(2020), 박윤희(2017) 오영은(2015), 안정신 외(2009)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이전에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조사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일반적인 주성분 분석에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회전을 적용

하였고,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이거나 측정 도구 설계와 다른 교차적재 문항은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로 사용한 각 척도의 구성요소 및 구체적인 내용,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SES: Self-Esteem Scale)를 번안한 전병재(197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규리(202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형태는 5점 리 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중년 후기성인을 대상으로 이성주(2018), 김왕기(2019), 이재모(2018), 김규리(202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척도 신뢰도는 김규리(20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7$ 로 분석되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긍정/부정 문항으로 구성되므로 단일차원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초기분석에서 8번 문항이 요인적재량 미달로 제외되었으며, 9문항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 KMO값이, .875였고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결과가 유의하여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문항은 분산설명력 46.573%에서 1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을 반영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85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9문항을 그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할 경우 다수의 측정변수에 의해 적합도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단일차원 측정 도구의 문항 묶음에 적합한 방식인 요인 알고리즘 방식(이지현, 김수영, 2016)을 통해 3개의 문항 묶음을 구성하였다. 요인 알고리즘 방식에서는 적재량 값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짝짓는 것을 반복하여 문항 묶음을 구성하므로 3/7/9, 1/6/10, 2/4/5 등으로 문항 묶음을 진행하였다

<표 III-3> 자아존중감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성분		Cronbach's α
	1		
자아존중감 7	.774		.850
자아존중감 1	.739		
자아존중감 4	.727		
자아존중감 3	.713		
자아존중감 10	.704		
자아존중감 5r	.639		
자아존중감 2r	.624		
자아존중감 6r	.619		
자아존중감 9r	.578		
고유킷	4.192		
% 분산	46.573		

KMO=.875, Bartlett's $\chi^2=1691.916(p<.001)$

주) r이 붙은 문항은 역 문항

2) 여가활동 만족

여가활동 만족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Beard & Ragheb (1980)가 개발한 여가 만족 척도(LSS: 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번안한 이종길(1992)의 도구를 참고한 박미현(2008)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정춘호(2018) 및 김성수(2009)의 도구를 상호보완하여 심리적, 교육적, 신체적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한 김규리(202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본래 6개의 하위요인(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학, 미학적 여가 만족)으로 구성된 24개 문항이었으나, 이후 여러 연구자의 수정보완을 거쳐 김규리(2021)에 의해 3개의 하위요인(심리적, 교육적, 신체적 여가 만족)으로 구성된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심리적 여가 만족 8문항, 교육적 여가 만족 3문항, 신체적 여가 만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형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신뢰도는 김규리(2021)의 연구에서 심리적 여가 만족이 Cronbach's $\alpha=.948$, 교육적 여가 만족이 Cronbach's $\alpha=.862$, 신체적 여가 만족이 Cronbach's $\alpha=.940$,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0$ 으로 분석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초기분석에서 12번 문항이 요인적재량 미달로 제외되었으며, 15문항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 KMO값이 .944였고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결과가 유의하여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5문항은 분산설명력 79.957%에서 3

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을 반영한 신뢰도는 심리적 여가 만족이 Cronbach's $\alpha=.952$, 교육적 여가 만족이 Cronbach's $\alpha=.881$, 신체적 여가 만족이 Cronbach's $\alpha=.942$,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0$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4> 여가활동 만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성분			Cronbach's α
		1	2	3	
심리적 만족	여가활동 만족 1	.820	.266	.225	.952
	여가활동 만족 2	.819	.312	.229	
	여가활동 만족 3	.749	.223	.397	
	여가활동 만족 4	.719	.253	.412	
	여가활동 만족 5	.717	.459	.220	
	여가활동 만족 6	.706	.388	.346	
	여가활동 만족 7	.691	.432	.315	
	여가활동 만족 8	.606	.508	.284	
교육적 만족	여가활동 만족 9	.316	.187	.846	.881
	여가활동 만족 10	.397	.274	.706	
	여가활동 만족 11	.256	.212	.862	
신체적 만족	여가활동 만족 13	.378	.818	.197	.942
	여가활동 만족 14	.372	.844	.191	
	여가활동 만족 15	.217	.889	.228	
	여가활동 만족 16	.318	.803	.202	
고유 값	5.029	4.061	2.903		
% 분산	33.529	27.073	19.355		
누적 %	33.529	60.602	79.957		
KMO=.944, Bartlett's $\chi^2=7532.860(p<.001)$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박지원(1985)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를 윤혜정(1993)이 수정하고, 김현주(2018), 이명희(2020), 김규리(2021)가 최근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리적 지지로 구성되며,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 정서와 사회적 욕구에 대한 만족으로 사랑, 존경, 이해

등이 포함된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및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사결정, 문제해결, 적응, 조언 등이 포함된다. 물질적 지지는 필요한 자원을 직접 도와주는 것으로 물건, 시간, 금전 등이 포함된다. 평가적 지지는 자기 평가에 관련된 정보 전달로 칭찬, 인정, 가치, 의사존중 등이 포함된다. 응답 형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신뢰도는 박지원(1985)에서 전체 신뢰도가 .94로 확인되었고, 이명희(2020)에서는 .96으로 확인되었다. 김규리(2021)의 연구에서 정보적 지지는 Cronbach's α =.956, 정보적 지지는 Cronbach's α =.945, 물질적 지지는 Cronbach's α =.926, 평가적 지지는 Cronbach's α =.939,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76으로 분석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6, 7, 14번 문항이 요인적재량 미달로 제외되었다. 나머지 22문항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 KMO값은 .966였으며,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결과가 유의하여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문항은 분산설명력 74.751%에서 4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을 반영한 신뢰도는 정서적 지지 Cronbach's α =.910, 정보적 지지 Cronbach's α =.926, 물질적 지지 Cronbach's α =.915, 평가적 지지 Cronbach's α =.919,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67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5> 사회적 지지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성분				Cronbach's α
		1	2	3	4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 1	.166	.228	.763	.333	.910
	사회적 지지 2	.299	.215	.771	.227	
	사회적 지지 3	.372	.319	.644	.241	
	사회적 지지 4	.296	.345	.678	.208	
	사회적 지지 5	.323	.382	.643	.257	
정보 적 지지	사회적 지지 8	.238	.525	.472	.222	.926
	사회적 지지 9	.297	.587	.426	.351	
	사회적 지지 10	.285	.748	.279	.232	
	사회적 지지 11	.228	.791	.250	.264	
	사회적 지지 12	.228	.689	.322	.351	
	사회적 지지 13	.273	.725	.239	.327	
물질적 지지	사회적 지지 15	.148	.199	.246	.821	.915
	사회적 지지 16	.335	.329	.304	.681	
	사회적 지지 17	.348	.372	.343	.644	
	사회적 지지 18	.398	.270	.248	.679	
	사회적 지지 19	.162	.348	.216	.713	
평가적 지지	사회적 지지 20	.553	.443	.203	.326	.919
	사회적 지지 21	.662	.282	.210	.448	
	사회적 지지 22	.697	.289	.261	.358	
	사회적 지지 23	.775	.309	.177	.046	
	사회적 지지 24	.799	.180	.321	.235	
	사회적 지지 25	.738	.129	.351	.236	
고유값		4.305	4.256	3.959	3.926	
% 분산		19.567	19.345	17.994	17.845	
누적 %		19.567	38.912	56.906	74.751	
KMO=.966, Bartlett's $\chi^2=9466.051(p<.001)$						

4) 정책 신뢰

정책 신뢰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정주희(2020)의 연구에서 활용된 정책 신뢰 척도를 참고한 김규리(2021)의 척도를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 생활에 중요하면서도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 분야에 대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년 후기성인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되는지를 질문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별도의 하위요인은 없으나, 중년 후기성인의 일상에 적용되는 관련 정책의 범주로서 의료, 돌봄, 소득, 고용, 가족 지원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 형태는 5점 리 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 신뢰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신뢰도는 정주희(2020)에서 .90으로 확인되었고, 김규리(2021)에서는 0.899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초기분석에서 5번 문항이 요인적재량 미달로 제외되었으며, 4 문항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 KMO값이 .777이었고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결과가 유의하여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문항은 분산설명력 73.618%에서 1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을 반영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878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III-6> 정책 신뢰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성분	Cronbach's α
		1	
정책 신뢰	정책 신뢰 1	.821	.878
	정책 신뢰 2	.880	
	정책 신뢰 3	.896	
	정책 신뢰 4	.833	
고유값		2.945	
% 분산		73.618	
KMO=.777, Bartlett's $\chi^2=1129.294(p<.001)$			

5) 노후준비

노후준비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강성욱(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로 구성되며,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신체적 준비는 노후준비를 위한 체중 관리, 규칙적인 생활, 신체단련 등이 포함된다. 정서적 준비는 마음 자세, 주변과의 소통, 사회참여 활동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준비는 저축, 투자, 보험, 지출 등의 습관이나 준비 등을 포함한다. 응답 형태는 5점 리 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신뢰도는 강성욱(2013)에서 신체적 준비는 Cronbach's $\alpha=.849$, 정서적 준비는 Cronbach's $\alpha=.843$, 경제적 준비는 Cronbach's $\alpha=.773$ 으로 분석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5번 문항이 교차적재, 15번 문항이 요인적재량 미달로 제외되었으며, 13문항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 KMO값이 .887이었고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결과가 유의하여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5문항은 분산설명력 67.530%에서 3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을 반영한 신뢰도는 신체적 준비 Cronbach's α =.806, 정서적 준비 Cronbach's α =.883, 경제적 준비 Cronbach's α =.817,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885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7> 노후준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성분			Cronbach's α
		1	2	3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 1	.178	.812	.163	.806
	노후준비 2	.160	.844	.194	
	노후준비 3	.010	.780	.145	
	노후준비 4	.483	.545	.092	
신체적 노후준비	노후준비 6	.825	.219	.121	.883
	노후준비 7	.813	.165	.194	
	노후준비 8	.802	.194	.191	
	노후준비 9	.645	-.062	.303	
정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 10	.793	.138	.285	.817
	노후준비 11	.308	.209	.728	
	노후준비 12	.054	.066	.836	
	노후준비 13	.386	.234	.671	
	노후준비 14	.346	.272	.683	
고유값		3.687	2.590	2.502	
% 분산		28.361	19.926	19.243	
누적 %		28.361	48.287	67.530	
KMO=.887, Bartlett's $\chi^2=3363.541(p<.001)$					

6) 성공적 노화인식

성공적 노화인식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는 안정신(2009)이 한국 중·노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강성욱(201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인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 효능감으로 구성되며, 총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일상의 안녕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세 분야에서 편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심리 사회적 안녕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인정하고, 생애 만족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자기관리 및 자기 성장을 포함하여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 형태는 안정신(2009) 연구에서 개발 당시에는 4점 리커트 척도였으나, 강성욱(2013)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조금 중요 4점, 매우 중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각 하위차원의 요인들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척도 신뢰도는 강성욱(2013)에서 심리 사회적 안녕은 Cronbach's α =.945, 일상의 안녕은 Cronbach's α =.929,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α =.930으로 분석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7, 15, 16, 17, 18번 문항이 교차적재, 10, 11번 문항이 요인적재량 미달로 제외되었다. 나머지 16문항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 KMO값은 .926이며,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결과가 유의하여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문항은 분산설명력 67.712%에서 3개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을 반영한 신뢰도는 심리 사회적 안녕 Cronbach's α =.858, 일상의 안녕 Cronbach's α =.873, 자기효능감 Cronbach's α =.918,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929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8> 성공적 노화인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성분			Cronbach's α
		1	2	3	
일상의 안녕	성공적 노화인식 1	.177	.653	.340	.858
	성공적 노화인식 2	.163	.770	.057	
	성공적 노화인식 3	.179	.816	.142	
	성공적 노화인식 4	.259	.778	.108	
	성공적 노화인식 5	.290	.587	.345	
	성공적 노화인식 6	.164	.586	.381	
심리 사회적 안녕	성공적 노화인식 8	.319	.357	.526	.873
	성공적 노화인식 9	.218	.140	.778	
	성공적 노화인식 12	.142	.267	.797	
	성공적 노화인식 13	.302	.215	.782	
	성공적 노화인식 14	.338	.114	.766	
자기효능감	성공적 노화인식 19	.658	.380	.311	.918
	성공적 노화인식 20	.762	.245	.297	
	성공적 노화인식 21	.865	.173	.213	
	성공적 노화인식 22	.836	.231	.207	
	성공적 노화인식 23	.810	.219	.284	
고유값		3.760	3.591	3.484	
% 분산		23.497	22.442	21.773	
누적 %		23.497	45.939	67.712	
KMO=.926, Bartlett's χ^2 =5016.202(p<.001)					

5. 자료 분석방법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및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으로,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의 경향성 파악을 위해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인식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측정변수들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및 성공적 노화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을 위해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가 상정한 주요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여섯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델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표본 수에 민감한 χ^2 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적합도 지수중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로 추천한 CFI, TLI, RMSEA와 절대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RMR을 기준으로 모델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일곱째, 본 연구가 상정한 주요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하였다. 여덟째, 본 연구의 매개 효과검증을 위해 각 간접효과를 분해하고,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아홉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정규성 검증 요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 첨도를 제시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 미만이면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채구묵, 2018), 본 연구의 추정변수들은 왜도가 $-1.59 \sim 0.22$, 첨도가 $-0.92 \sim 2.96$ 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V-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치와 분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아 존중감	전체평균	2.11	5.00	4.12	0.62	-0.84	0.19
	자아존중감 1	1.33	5.00	4.08	0.67	-0.78	0.29
	자아존중감 2	1.33	5.00	4.16	0.66	-0.95	0.77
	자아존중감 3	2.00	5.00	4.12	0.74	-0.79	-0.07
여가활동 만족	전체평균	1.00	5.00	4.00	0.72	-0.91	0.66
	심리적 만족	1.00	5.00	4.03	0.79	-0.92	0.44
	교육적 만족	1.00	5.00	3.76	0.82	-0.26	-0.33
	신체적 만족	1.00	5.00	4.13	0.82	-0.80	0.08
사회적 지지	전체평균	1.05	5.00	3.96	0.64	-0.79	0.77
	정서적 지지	1.00	5.00	4.01	0.67	-0.56	0.31
	정보적 지지	1.00	5.00	3.99	0.69	-0.82	1.16
	물질적 지지	1.00	5.00	3.83	0.81	-0.73	0.32
	평가적 지지	1.00	5.00	4.00	0.68	-0.62	0.51
정책 신뢰	전체평균	1.00	5.00	3.65	0.79	-0.24	0.07
	정책 신뢰 1	1.00	5.00	3.92	0.98	-0.47	-0.57
	정책 신뢰 2	1.00	5.00	3.78	0.85	-0.25	-0.29
	정책 신뢰 3	1.00	5.00	3.50	0.92	-0.14	-0.16
	정책 신뢰 4	1.00	5.00	3.39	0.92	0.22	-0.20
노후준비	전체평균	1.85	5.00	3.83	0.67	-0.44	-0.49
	경제적 준비	1.00	5.00	3.45	1.01	-0.37	-0.92
	신체적 준비	1.00	5.00	3.93	0.80	-0.72	0.22
	정서적 준비	1.25	5.00	4.09	0.68	-0.68	0.57
성공적 노화인식	전체평균	2.00	5.00	4.42	0.49	-1.24	1.82
	심리 사회적 안녕	2.00	5.00	4.51	0.51	-1.59	2.96
	일상의 안녕	1.80	5.00	4.22	0.63	-0.68	0.10
	자기효능감	2.00	5.00	4.49	0.61	-1.32	1.40

2.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CFI, TLI, RMR, RMSEA 등의 값을 통해 확인하였고, 적합도 향상을 위해 AMO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MI값을 바탕으로 동일 잠재변수 내의 오차항에 대해 일부 공분산 연결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거쳐 최종적인 분석결과를 <표 IV-2>에 제시하였다.

1) 적합도 지수 및 집중 타당성 평가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χ^2 검정에서 χ^2 값은 664.615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검정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표본이 많을수록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최근에는 χ^2 검정보다는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적합도를 검증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도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홍세희(2000)가 권장한 CFI, TLI, RMSEA와 더불어 RMR값을 통해 모형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홍세희(2000)는 괜찮은 적합도의 기준을 CFI 0.9 이상, TLI 0.9 이상, RMSEA 0.08 이하 등으로 설명하였고, Hu & Bentler(1999)는 RMR 기준을 0.5 이하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21, TLI=.902, RMR=.040, RMSEA=.082 등으로 나타나 RMSEA를 제외하면 모두 괜찮은 적합도의 범주에 들며, 홍세희(2000)의 연구에서 RMSEA가 0.1 이하라면 보통 수준의 적합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관측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적재 값을 확인하여 집중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집중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들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으로, 표준화 요인적재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 평균분산추출 값(AVE), 합성 신뢰도(CR) 등으로 집중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3).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최소 0.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 분산추출 값(AVE)의 경우 0.5 이상, 합성 신뢰도(CR) 0.7 이상의 값을 가져야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Gerbing & Anderson,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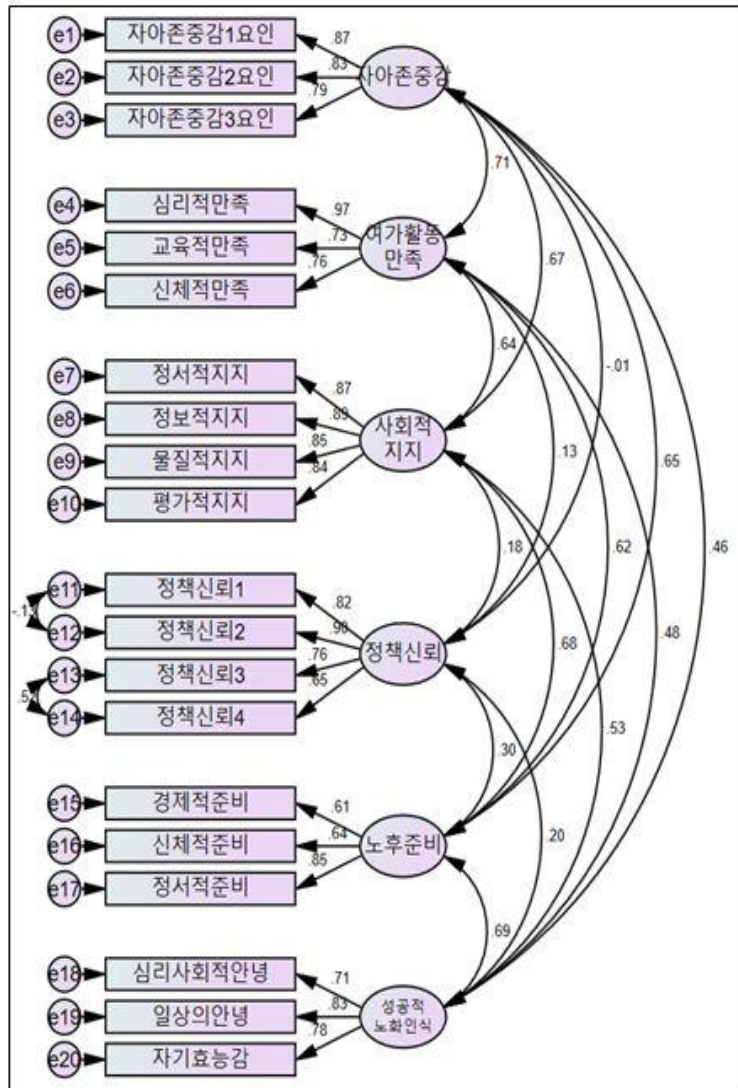
<표 IV-2>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 화	표준화	표준오차	Critical ratio	CR	AVE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 1	1.000	.874				
	자아존중감 2	.938	.831	.042	22.389	.872	.695
	자아존중감 3	.995	.794	.047	20.966		
여가활동 만족	심리적 만족	1.000	.967				
	교육적 만족	.789	.733	.039	20.292	.865	.685
	신체적 만족	.823	.763	.038	21.649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1.000	.874				
	정보 적지지	1.057	.887	.039	27.085	.922	.746
	물질적 지지	1.180	.851	.047	25.117		
	평가적 지지	.985	.844	.040	24.738		
정책 신 뢰	정책 신뢰 1	1.000	.821				
	정책 신뢰 2	.960	.905	.049	19.602	.868	.624
	정책 신뢰 3	.874	.759	.108	8.078		
	정책 신뢰 4	.748	.654	.097	7.738		
노후준비	경제적 준비	1.000	.611				
	신체적 준비	.831	.642	.073	11.415	.748	.503
	정서적 준비	.937	.849	.070	13.382		
성공적 노화 인식	심리 사회적 안녕	1.000	.712				
	일상의 안녕	1.437	.830	.092	15.649	.818	.601
	자기효능감	1.313	.779	.087	15.136		
적합도		$\chi^2=664.615$, $df=.153$, $p<.001$ CFI=.921, TLI=.902, RMR=.040, RMSEA=.082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자아존중감 0.794~0.874, 여가활동 만족 0.733~0.967, 사회적 지지 0.844~0.887, 정책 신뢰 0.654~0.905, 노후준비 0.611~0.849, 성공적 노화인식 0.712~0.830 등으로 나타나 모두 0.5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VE 값의 경우 자아존중감 0.695, 여가활동 만족 0.685, 사회적 지지 0.746, 정책 신뢰 0.624, 노후준비 0.503, 성공적 노화인식 0.601 등으로 나타나 모두 0.5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R값의 경우 자아존중감 0.872, 여가활동 만족 0.865, 사회적 지지 0.922, 정책 신뢰 0.868, 노후준비 0.748, 성공적 노화인식 0.818 등으로 나타나 모두 0.7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측정모형

2)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평가

판별 타당성의 검토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구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AVE의 제곱근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AVE 제곱근은 0.834이며, 다른 잠재변수와의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0.709로 AVE 제곱근 값이 더 크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 기준을 만족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여가활동 만족의 AVE 제곱근은 0.828, 다른 잠재변수와의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0.709, 사회적 지지의 AVE 제곱근은 0.864, 다른 잠재변수와의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0.680, 정책 신뢰의 AVE 제곱근은 0.790, 다른 잠재변수와의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0.296, 노후준비의 AVE 제곱근은 0.709, 다른 잠재변수와의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0.692, 성공적 노화인식의 AVE 제곱근은 0.775, 다른 잠재변수와의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0.692등으로 모든 잠재변수에서 AVE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 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IV-3>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와 판별 타당성 검증

	자아 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인식
자아존중감	.834					
여가활동 만족	.709***	.828				
사회적 지지	.668***	.638***	.864			
정책 신뢰	-.007	.128**	.181***	.790		
노후준비	.652***	.622***	.680***	.296***	.709	
성공적 노화인식	.464***	.483***	.530***	.196***	.692***	.775

주) 굵은 글씨는 AVE의 제곱근 값이며, 상하좌우의 상관계수와 비교

*p<.05, **p<.01, ***p<.001

3.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인식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AV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한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의 경우 본 연구의 표본 특성상 55~64세로 한정되므로 분석에 투입하지 않았다. 다른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 직업, 월 소득, 동거가족, 종교의 경우 응답 집단 내 표본 수가 적으면 유사한 집단과 병합하여 분석하였지만, 결혼상태의 경우 유사집단 병합이 곤란하여 그대로 분석하였다.

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4>와 같다.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는 남성 3.98, 여성 3.64로 나타나 남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t=5.667, p<.001).

학력에 따른 노후준비는 대학원 이상이 4.20으로 가장 높았고, 대졸 3.81, 고졸 이하 3.56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F=37.836, 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고졸이 하는 가장 낮았고, 대학원 이상은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른 노후준비는 사별이 3.95로 가장 높았고, 기혼 3.87, 이혼/별거 3.42, 미혼 3.40, 재혼 3.38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

인되었다(F=5.834, 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노후준비는 전문직 4.11, 비전문직 3.67로 나타나 전문직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t=7.443, p<.001).

월 소득에 따른 노후준비는 800만 원 이상이 4.22로 가장 높았고, 400~800만 원 미만 3.83, 200~400만 원 미만 3.56, 200만 원 미만 3.42 순으로 나타나 소득과 노후준비가 비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F=40.129, 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200만 원 미만 집단과 200~400만 원 미만 집단이 가장 낮았고, 800만 원 이상 집단은 가장 높았다. 동거가족에 따른 노후준비는 부부 가구가 3.88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 3.65, 한부모 가구 3.48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F=7.135, 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한부모 가구는 가장 낮았고 부부 가구 집단은 가장 높았다. 종교에 따른 노후준비는 종교 있음, 3.89, 종교 없음, 3.61로 종교가 있는 경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t=3.815, p<.001).

<표 IV-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

특성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274	3.98	0.65	5.667***	
	여성	222	3.64	0.66	(.000)	
학력	고졸 이하 (a)	160	3.56	0.64	37.836**	a<b<c
	대졸 (b)	206	3.81	0.68	*	
	대학원 이상 (c)	130	4.20	0.53	(.000)	
결혼 상태	미혼 (a)	13	3.40	0.86	5.834***	d<a<c<b<e
	기혼 (b)	418	3.87	0.66		
	이혼/별거 (c)	31	3.42	0.63		
	재혼 (d)	8	3.38	0.80		
	사별 (e)	26	3.95	0.63		
직업	전문직	176	4.11	0.60	7.443***	
	비전문직	320	3.67	0.66	(.00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a)	58	3.42	0.58	40.129**	ab<c<d
	200~400만원 미만 (b)	142	3.56	0.62		
	400~800만원 미만 (c)	136	3.83	0.64		
	800만원 이상 (d)	160	4.22	0.57		
동거가족	1인 가구 (a)	46	3.65	0.63	7.135***	c<b
	부부 가구 (b)	417	3.88	0.67		
	한부모 가구 (c)	33	3.48	0.69		
종교	유	387	3.89	0.68	3.815***	
	무	109	3.61	0.61	(.000)	

*p<.05, **p<.01, ***p<.00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는 성별, 학력, 결혼상태, 직업, 월 소득, 동거가족 유형,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중년 후기성인 연구대상자들 세대는 주로 남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는 매우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여성의 노후준비는 남성에 비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준비 수준이 높는데(정경희 외, 2005; 이경준 외, 2015),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4.72배 크고(김정미 외, 2014),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노후준비 (인은영 외, 2015; 이경준 외, 2015)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노후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전문직이 비전문직보다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상태에서는 사별의 노후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혼가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거가족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노후준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부부가구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은영 외(201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을 밝혀낸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개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유진(2005)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의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약 1.6배가량 높아 교육수준은 노후준비에도 정적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종교가 있을수록 노후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종교 활동 참여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노화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와 같다. (박하영, 2021). 이에 따라서, 종교 활동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자원을 제공하는 종교 공동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며, 이는 건강한 개인으로서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김양이 (200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배우자의 유무는 노후준비의 차이에 영향을 주어 무 배우자보다 유배우자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박윤희, 2017). 한부모 가구 구성원의 노후준비 수준이 가장 낮은 이유는 한 부모 가정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결혼상태와 노후준비에 따라서 노후준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차이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의 차이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IV-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은 남성 4.44, 여성 4.38로 나타나 남성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1.273$, $p=.204$).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은 대학원 이상이 4.58로 가장 높았고, 대졸 4.38, 고졸 이하 4.32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F=11.018$, $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은 사별이 4.60으로 가장 높았고, 미혼 4.58, 기혼 4.42, 이혼/별거 4.22, 재혼 3.88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F=4.947$, $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재혼 집단이 가장 낮았다.

직업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은 전문직 4.52, 비전문직 4.36으로 나타나 전문직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t=3.381$, $p<.001$). 월 소득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은 800만 원 이상이 4.55로 가장 높았고, 400~800만 원 미만 4.40, 200~400만 원 미만 4.34, 200만 원 미만 4.28 순으로 나타나 소득과 성공적 노화인식이 비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F=6.585$, $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200만원 미만 집단과 200~400만 원 미만 집단이 가장 낮았고, 800만 원 이상 집단은 가장 높았다. 동거가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은 1인 가구가 4.45로 가장 높았고, 부부 가구 4.42, 한부모 가구 4.29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1.128$, $p=.324$).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은 종교가 있음, 4.44, 종교가 없음, 4.33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t=2.125$, $p<.05$).

<표 IV-5>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차이

특성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274	4.44	0.45	1.273 (.204)	
	여성	222	4.38	0.54		
학력	고졸 이하 (a)	160	4.32	0.53	11.018** (.000)	ab<c
	대졸 (b)	206	4.38	0.52		
	대학원 이상 (c)	130	4.58	0.34		
결혼 상태	미혼 (a)	13	4.58	0.42	4.947*** (.001)	d<c<b<a<e
	기혼 (b)	418	4.42	0.48		
	이혼/별거 (c)	31	4.22	0.56		
	재혼 (d)	8	3.88	0.95		
	사별 (e)	26	4.60	0.35		
직업	전문직	176	4.52	0.42	3.831*** (.000)	
	비전문직	320	4.36	0.52		
월 소득	200 만원 미만 (a)	58	4.28	0.57	6.585*** (.000)	ab<d
	200~400 만원 미만 (b)	142	4.34	0.56		
	400~800 만원 미만 (c)	136	4.40	0.52		
	800 만원 이상 (d)	160	4.55	0.33		
동거가족	1인 가구	46	4.45	0.52	1.128 (.324)	
	부부 가구	417	4.42	0.49		
	한 부모 가구	33	4.29	0.52		
종교	유	387	4.44	0.50	2.125* (.034)	
	무	109	4.33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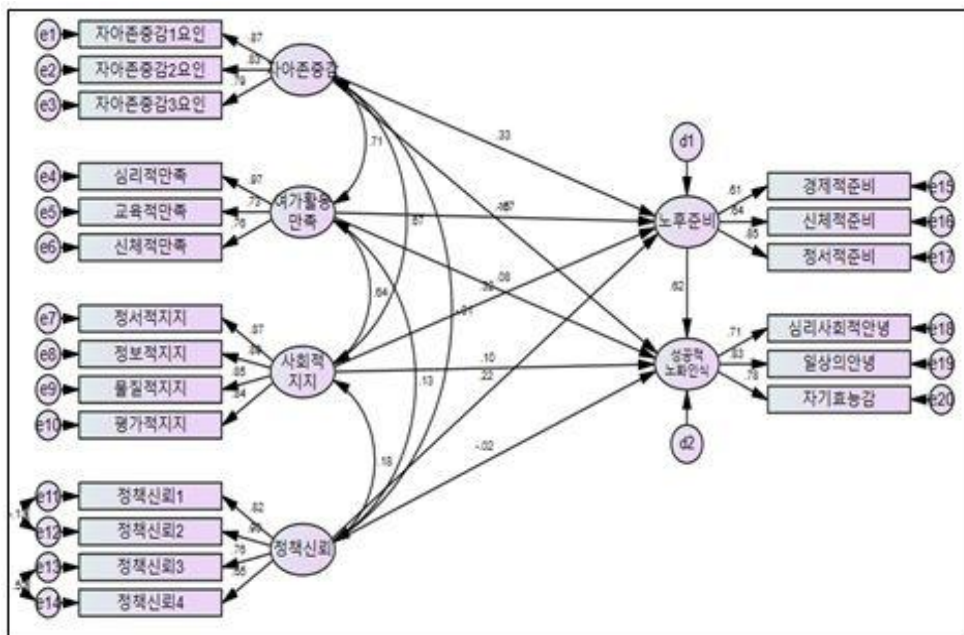
*p<.05, **p<.01, ***p<.00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은 성별, 학력, 직업, 월 소득, 결혼 상태,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차이로 인한 노후준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노후준비의 결과와 같이 성공적 노화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동거가족 유형에 따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1인 가구, 부부가구, 한 부모 가구 순으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사별인 중년 후기성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가장 높았고, 미혼, 기혼, 이혼/별거, 재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큰 차이는 아니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으며, 강유진, 한경혜(2002)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년기 적응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여성 성인 후기 중년들의 외로움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분석결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이 중년 후기성인(55세~64세)이면서, 조사대상자의 남녀 비율이 유사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불어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으로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 심리 사회적 안녕으로 정의된 특성에 의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4.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연구모형을 반영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과 동치모형이므로 적합도 지수 또한 CFI=.921, TLI=.902, RMR=.040, RMSEA=.082로 동일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총 9개 경로 중 5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은 <그림 IV-2>에 제시하였고, 자세한 분석결과는 <표 IV-6>에 제시하였다.



<그림 IV-2> 구조방정식 모형

<표 IV-6>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Critical ratio	p
자아존중감→노후준비	.344	.328	4.415	.000***
여가활동 만족→노후준비	.127	.156	2.447	.014*
사회적 지지→노후준비	.341	.322	4.999	.000***
정책 신뢰→노후준비	.170	.220	4.430	.000***
자아존중감→성공적 노화인식	-.040	-.066	-7.84	.433
여가활동 만족→성공적 노화인식	.038	.080	1.155	.248
사회적 지지→성공적 노화인식	.065	.105	1.452	.146
정책 신뢰→성공적 노화인식	-.007	-.016	-.325	.745
노후준비→성공적 노화인식	.362	.618	6.172	.000***
적합도	$\chi^2=664.615$, $df=.153$, $p<.001$ CFI=.921, TLI=.902, RMR=.040, RMSEA=.082			

*p<.05, **p<.01, ***p<.001

비 유의한 경로 4개는 모두 외생변수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으로 가는 직접 경로다. 유의한 경로들을 비교해보면,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beta=.618$, $p<.001$)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경로들은 외생변수들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들인데 미시체계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beta=.328$, $p<.001$), 외체계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beta=.322$, $p<.001$), 거시체계 요인인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beta=.220$, $p<.001$), 중간체계 요인인 여가활동 만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beta=.156$, $p<.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미시체계요인인 자아존중감, 중간체계 요인인 여가활동 만족, 외체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 거시체계 요인인 정책 신뢰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좋다고 인식하며, 노후준비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후기성인들의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노후준비에 만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 노화인식과는 직접적 영향이 없고, 오로지 노후준비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노후준비가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준비로 구성되고, 성공적 노화인식이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된 변인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신체, 경제, 정서적 차원의 노후준비가 달성되었다고 인식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적 노화인식인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시체계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포함함을 시사한다 (정옥분, 2005).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의 성공 여

부 보다 그 과정과 노력에 만족감을 느끼며 실패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여긴다. 그뿐만 아니라, 나 존중, 타인존중으로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유정희, 2014).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상정된 미시체계 요인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노후준비에 대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프로그램 개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미시체계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나이가 들수록 하락이 증폭되므로(박종원, 2020),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회시스템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현영, 2016).

중간체계요인인 여가활동 만족이 사회활동 참여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는 고정 형태가 아닌 가변적이고 이 동적 특성을 보여준다 (배지연, 2005). 따라서, 여가활동 만족은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생태체계에 있어서 중간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추구하며 재충전한다는 (김송희, 2006)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년기 여가활동의 순기능은 건강증진, 대인관계의 확대, 일상에 대한 만족감 증대, 신체 및 심리적 자신감 확대, 자립성 증진, 자기 가치성과 유용성 증진 등이 있는데 (이금룡 외, 2004), 이는 경제적 소득의 보충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적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다. 더불어 사회·심리적으로는 생에 대한 애착이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신적으로는 긴장감을 해소하며, 적절한 정신적인 자극을 주게 되어서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루다, 2019).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중년 후기성인의 여가활동 만족은 노후준비(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준비)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상정된 미시체계 요인인 여가활동 만족이 미치는 노후준비에 대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프로그램 개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외체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중년 후기성인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미경, 2017).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발달과 건강한 적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은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적응하는 능력도 높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환경과 관련된 변인으로써 신체적이며 심리적인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미숙, 2016). 이가영과 박태진(1997)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고, 폭넓은 유대관계를 가진 노인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지원망의 크기가 클수록, 지원 망에 속한 성원과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가 많을수록 노

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 (박경숙 1999).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상정된 외체계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정보 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미치는 노후준비에 대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생태체계 관점에서 분류한 거시체계 요인인 정책 신뢰는 개인은 가족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웃, 지역사회, 국가 등 사회환경으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현숙, 2009). 이러한 거시체계는 개개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일반적인 문화, 정치, 종교, 법, 교육, 경제정책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조적인 맥락 관점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박은선, 2005; 조기곤, 2008; 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따라서, 본 연구가 상정한 거시체계 요인으로서의 정책 신뢰는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 내에서의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유행을 의미하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후와 관련된 정책은 국가의 전반적 복지정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형성된 정책 신뢰는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낮추고 노후에 대한 기대가 증가시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생활 관련 정책들에 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가 확인한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 신뢰의 영향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가 상정한 각 생태체계 요인들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결과를 통해 생태체계 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 하위변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의 모든 하위변인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가 높아질수록 성공적 노화인식(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신체기능의 저하는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된다. 따라서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삶의 질과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참여 활동 빈도도 낮아져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여가생활을 영위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대비가 요구된다.

신체적 측면의 노후준비와 함께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를 들 수 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질병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비용이 지출되지만 많은 사람이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이지모, 2021). 경제적 문제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역할 및

지지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 노인의 신체적 질환 및 만성질환의 수가 많다는 것은 적절한 의료적 관리와 재정적 어려움 및 가족의 돌봄 수행 역할과도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과정은 신체적 준비 정도로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신체적, 경제적 요인들은 필연적으로 심리,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 다시 말하면 중년 후기성인의 신체적 노화나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년기의 정서적 문제는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 보다 그 중요성은 크게 부각 되지 않은 채 노년기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강유진, 2005).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확산, 황혼이혼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노년기의 정서적 준비를 가족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정서적 노후준비는 과거와 구별되는 자아정체성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는 은퇴 이전의 삶과는 대별 되는 존재로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이에 관한 결과가 바로 사회참여의 형태로 도출된다 (Elosua, 2011; Hellströmet al., 2004; 김미령, 2013; 오병철, 2012; 임종미, 2012). 이러한 정서적 노후준비는 준비된 노후에 관한 자신감으로 가족 및 직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사회활동 영역을 찾을 수 있게 한다 (Krause, 2003; Krause, 2008; Kreitler & Kreitler, 2006). 즉, 중년 후기세대 역시 노후준비를 통해 축적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할 사회참여를 시도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처럼 중년 후기세대의 사회참여는 자신의 능력이 건재하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의문을 충족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중년 후기세대가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형태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와 같은 지연·혈연 기반의 모임과 더불어, 동호회, 종교모임과 같은 가치관과 기호를 공유하는 범주로서 정립된다 (주경희, 2011a, 주경희, 2011b). 기존 선행연구(박경미, 2013; 배문조, 2011; 신수민, 2013)에서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를 통해 축적된 역량 수준에 관한 만족감은 주변인과의 관계 정립에 일정한 상관성이 있으며, 이것을 지속화하는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인숙(2015) 역시 노년기의 역할상실에 따른 삶의 고독감 및 정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지속해서 삶의 고독감 및 정서적 문제의 해결, 이웃, 친지 그리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서적 노화 준비를 위한 부정적 정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정서를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5. 매개 효과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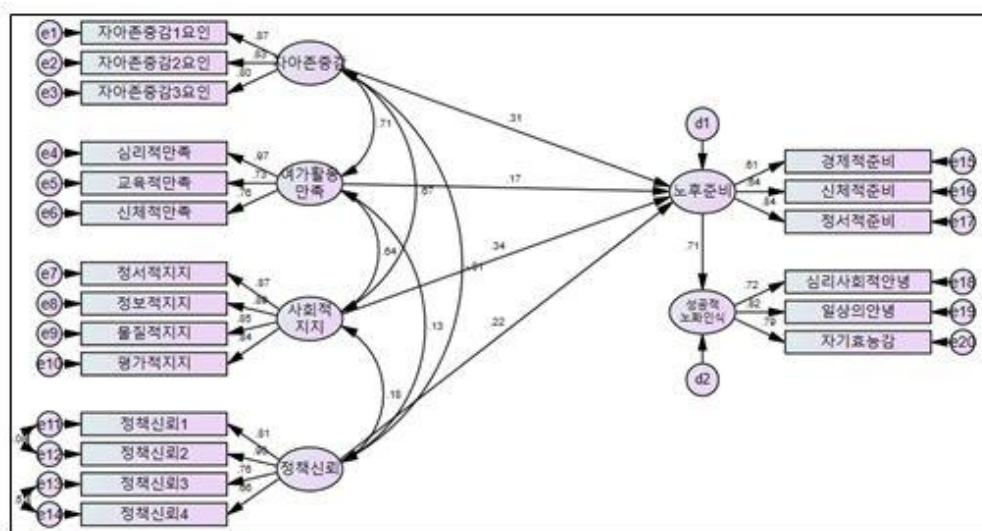
1) 매개모형 검증

매개 효과검증을 위해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부분 매개모형은 앞서 분석한 구조방정식 모형이며, 완전 매개모형은 해당 모형에서 외생변수-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 간의 직접 경로를 제거한 모형이다. 앞선 분석에서 외생변수-성공적 노화인식, 노후준비 간의 직접 경로들은 모두 비유의 하였기 때문에 완전 매개모형이 더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IV-7>의 분석결과에서도 모형 간 차이검증이 유의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당 χ^2 값이 3.84 이상 벌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의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의 자유도 1당 χ^2 값은 0.913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미세한 차이지만 좋은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모형을 매개 효과검증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완전 매개모형은 <그림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7>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의 차이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R	RMSEA	차이검증
부분 매개	664.615	153	.921	.902	.040	.082	$\Delta\chi^2=3.750,$ $\Delta df=4$
완전 매개	668.365	157	.921	.905	.040	.081	$\Delta\chi^2/df=.913$



<그림 IV-3> 완전 매개모형

2) 매개 효과검증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미시체계요인인 자아존중감, 중간체계 요인인 여가활동 만족, 외체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 거시체계 요인인 정책 신뢰와 성공적 노화인식 간의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정을 하였다. 부트스트랩 검정에서는 분석 표본 수와 같은 표본 수(본 연구에서는 496건)를 가지는 표본 세트를 무작위 복원 추출로 구성하고, 이를 정해진 횟수(본 연구에서는 5000회로 설정)만큼 반복하여 각 표본 세트들에서 계산된 간접효과 값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신뢰구간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 신뢰구간의 양극단 2.5%를 제외한 95%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값인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분석결과 4개의 매개 경로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미시체계요인인 자아존중감, 중간체계 요인인 여가활동 만족, 외체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 거시체계 요인인 정책 신뢰는 직접 적으로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노후준비 인식을 개선 시켜 성공적 노화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매개 효과 검정은 <표 IV-8>에 제시하였다.

<표 IV-8> 매개 효과검증

경로	비표준 화 계수	Boot SE	Boot 95% CI		p
			LLCI	ULCI	
자아존중감→노후준비→성공적 노화인식	.136	.038	.073	.226	.000***
여가활동 만족→노후준비→성공적 노화 식	.059	.028	.005	.116	.034*
사회적 지지→노후준비→성공적 노화인식	.149	.033	.083	.213	.001**
정책 신뢰→노후준비→성공적 노화인식	.070	.023	.030	.120	.000***

*p<.05, **p<.01, ***p<.001

분석결과, 생태체계 요인들이 노후준비를 매개로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체계 요인들이 노후준비를 통해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효과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중년 후기성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의 영향은 노후준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박만자 (202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성인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최근 웰에이징 (well-aging) 또는 웰다잉 (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나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성인 후기인 중년기부터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체계적 요인들은 중년 후기성인의 다양한 관점과 요소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코 이 요소들이 충족되기만 한다고

성공적 노화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공적 노화인식이 단일 개념이 아닌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으로 이루어진 복합변인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중년 후기성인의 상태 체계적 요인들의 총족 수준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수반할 때 성공적 노화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 후기성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의 형성을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단순한 안녕감이나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후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6.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조절 효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집단당 표본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성별, 학력, 직업, 종교 등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하였고, 측정 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을 확인하였다. 측정 동일성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형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다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한 검증 절차이다 (우종필, 2012). 이는 예를 들어 성별을 조절 효과로 투입하고 남성과 여성 집단의 특성을 분석할 때 두 집단이 모두 측정 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설문 내용을 동등하게 이해했는지 검증하고, 다르게 인식했다면 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측정 동일성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연구는 분석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워서 다집단 분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측정 동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집단 분석을 위해 조절 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대홍별 모수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응 별 모수 비교 방법은 각 집단의 특정한 경로 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며 본 연구의 학력 집단과 같은 3개 이상 집단에 대한 다집단 분석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성별의 조절 효과

성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여성과 남성 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해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 <표 IV-9>.

아무 제약을 하지 않은 형태 동일성 모형의 경우 CFI=.921, TLI=.902, RMR=.044, RMSEA=.059 등으로 모두 괜찮은 적합도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형과 비 제

약 모형 간에 χ^2 차이검증을 한 결과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성별 간 측정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차이검증이 아닌 적합도 지수의 비교를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는 ΔCFI 0.01 이하(Cheung & Rensvold, 2002), $\Delta RMSEA$ 0.015 이하(Chen, 2007) 등의 기준은 충족하므로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IV-9> 성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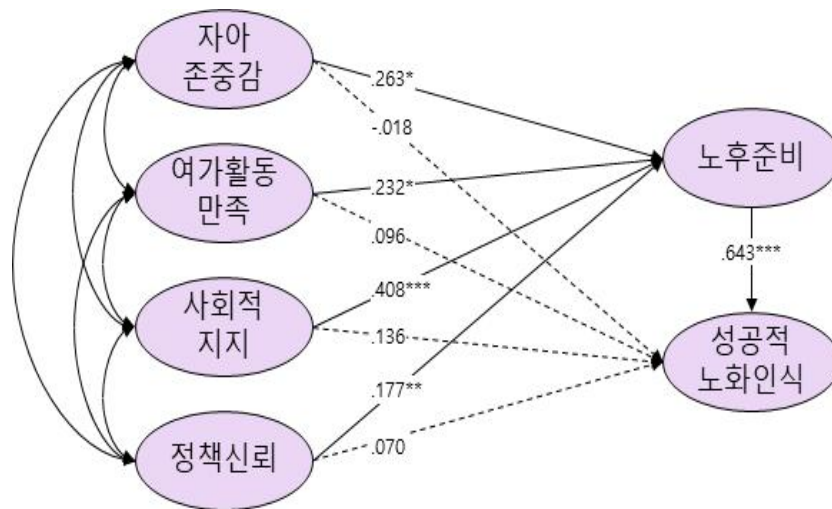
모형	χ^2	df	CFI	TLI	RMR	RMSEA	차이검증
비제약	833.401	306	.921	.902	.044	.059	$\Delta\chi^2=52.208,$ $\Delta df=14$ ($p<.001$)
요인부하제약	885.608	320	.915	.899	.048	.060	

각 경로계수 들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대응 별 모수 비교를 한 결과 9개 경로 중 1개 경로의 계수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0>. 집단 간 경로 모수치의 차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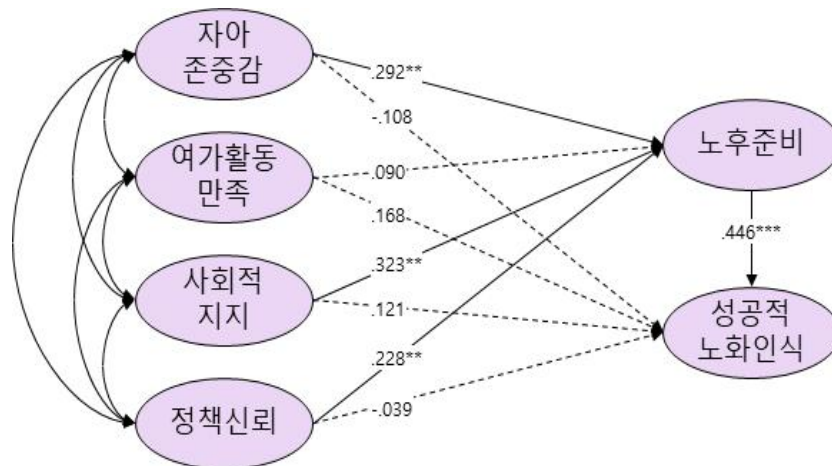
<표 IV-10> 성별에 따른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

경로	남성(N=274)		여성(N=222)		대응비교 Critical ratio
	비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자아존중감→노후준비	.323*	.263	.199**	.292	-.773
여가활동 만족→노후준비	.245*	.232	.045	.090	-1.556
사회적 지지→노후준비	.573***	.408	.200**	.323	-2.799**
정책 신뢰→노후준비	.241**	.177	.101**	.228	-1.569
자아존중감→성공적 노화인식	-.010	-.018	-.070	-.108	-.581
여가활동 만족→성공적 노화인식	.048	.096	.080	.168	.416
사회적 지지→성공적 노화인식	.090	.136	.071	.121	-.219
정책 신뢰→성공적 노화인식	.045	.070	-.016	-.039	-1.211
노후준비→성공적 노화인식	.305***	.643	.421***	.446	.841

* $p<.05$, ** $p<.01$, *** $p<.001$



<그림 IV-4> 남성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IV-5> 여성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성별에 따라 구분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의 모형에서는 변인 간 경로 9개 중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미시체계요인인 자아존중감, 중간체계요인인 여가활동 만족, 외체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 거시체계요인인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이르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 집단에서는 다른 요인들은 남성 집단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가활동 만족은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중년 후기성인 여성의 경우 여가활동 만족이 노후준비나 성공적 노화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여가활동의 질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학력의 조절 효과

학력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집단들 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해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 <표 IV-11>.

아무 제약을 하지 않은 형태 동일성 모형의 경우 CFI=.899, TLI=.875, RMR=.044, RMSEA=.052 등으로 CFI와 TLI가 기준값 0.9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RMR과 RMSEA는 괜찮은 적합도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형과 비 제약 모형 간에 χ^2 차이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력 간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IV-11> 학력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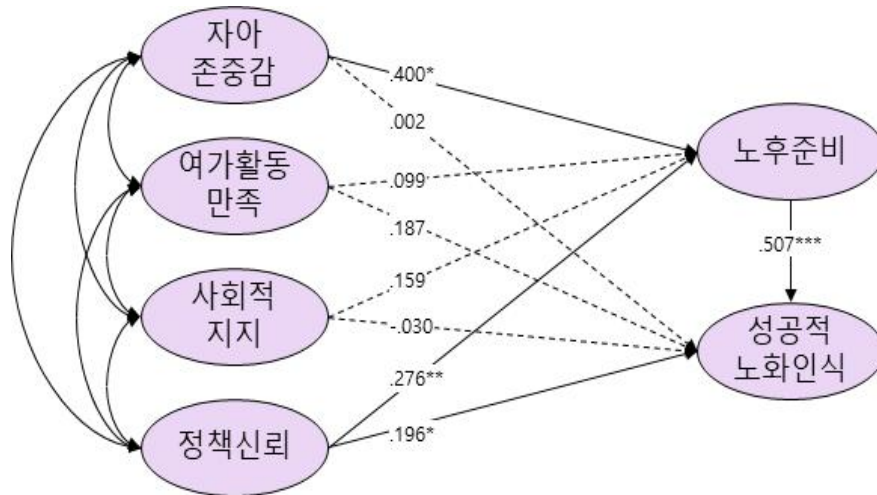
모형	χ^2	df	CFI	TLI	RMR	RMSEA	차이검증
비제약	1062.636	459	.899	.875	.044	.052	$\Delta\chi^2=30.868$, Δ df=28 (p=.323)
요인부하 제약	1093.503	487	.899	.882	.048	.050	

각 경로계수 들이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대응 별 모수 비교한 결과 9개 경로 중 3개 경로의 계수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고졸 이하 집단 ($B=.119$, n.s)과 대졸 집단($B=.310$, $p<.01$)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학원 이상 집단($B=.734$, $p<.001$)은 나머지 집단보다 정(+)의 영향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고졸 이하 집단($B=.146$, $p<.01$)은 다른 집단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졸 집단($B=.171$, $p<.01$)은 대학원 이상 집단($B=.008$, n.s)에 비해 정(+)의 영향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신뢰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대학원 이상 집단 ($B=-.038$, n.s)은 다른 집단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졸 이하 집단 ($B=.084$, $p<.05$)은 정(+)의 영향이 나타나고 대졸 집단($B=-.081$, $p<.05$)은 부(-)의 영향이 나타나 서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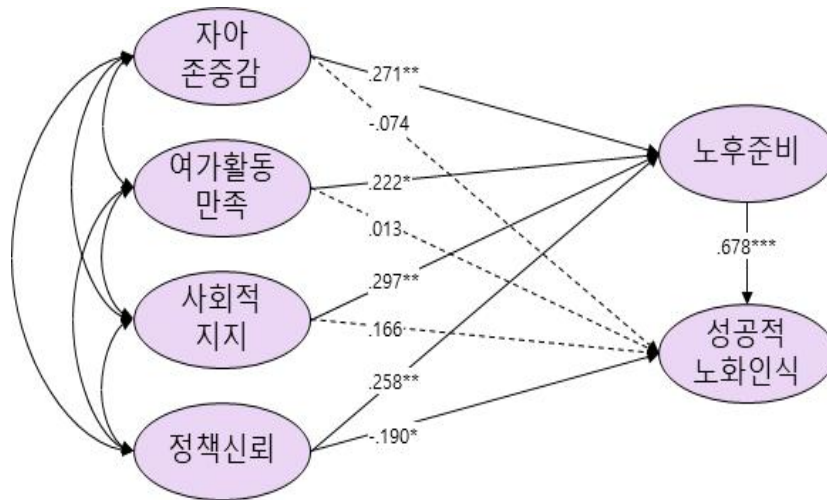
<표 IV-12> 학력에 따른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

경로	고졸 이하 (N=160)(a)		대졸 (N=206)(b)		대학원 이상 (N=130)(c)		대응비교 Critical ratio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a↔b	a↔c	b↔c
	계수	계수	계수	계수	계수	계수			
자아존중감→노후준비	.291*	.400	.309**	.271	.174	.150	.112	-.682	-.810
여가활동 만족→노후준비	.056	.099	.187*	.222	.017	.020	1.223	-.319	-1.375
사회적 지지→노후준비	.119	.159	.310**	.297	.734***	.732	1.458	3.021**	2.033*
정책 신뢰→노후준비	.146**	.276	.171**	.258	.008	.011	.325	-1.859	-2.122*
자아존중감→성공적 노화인식	.001	.002	-.054	-.074	-.026	-.031	-.440	-.186	.205
여가활동 만족→성공적 노화인식	.085	.187	.007	.013	.046	.076	-.964	-.382	.388
사회적 지지→성공적 노화인식	-.018	-.030	.112	.166	.242	.340	1.294	1.435	.706
정책 신뢰→성공적 노화인식	.084*	.196	-.081*	-.190	-.038	-.079	-3.010**	-1.935	.717
노후준비→성공적 노화인식	.411***	.507	.438***	.678	.298	.420	.165	-.556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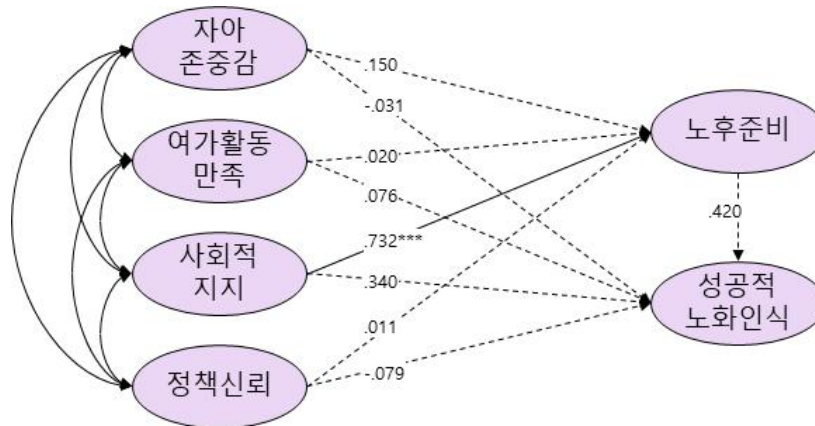
*p<.05, **p<.01, ***p<.001



<그림 IV-6> 고졸 이하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IV-7> 대졸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IV-8>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학력에 따라 구분된 고졸 이하 집단, 대졸 집단,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고졸 이하 집단의 모형에서는 변인 간 경로 9개 중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자아존중감과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이르는 경로, 정책 신뢰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 그리고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대졸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이르는 경로, 그리고 정책 신뢰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의 모형에서는 유일하게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이르는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차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얻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유진 (2005) 역시 공적연금 가입 여부가 개인의 학력과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학력은 노후준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후기성인의 학력을 고려하여 노후준비 및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한 교육이나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3) 직업의 조절 효과

직업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전문직과 비전문직 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해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표 IV-13>.

아무 제약을 하지 않은 형태 동일성 모형의 경우 CFI=.902, TLI=.879, RMR=.042, RMSEA=.063 등으로 TLI가 기준 값 0.9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대부분 괜찮은 적합도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형과 비 제약 모형 간에 χ^2 차이검증을 한 결과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직업 간 측정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차이검증이 아닌 적합도 지수의 비교를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는 ΔCFI 0.01 이하(Cheung & Rensvold, 2002), $\Delta RMSEA$ 0.015 이하(Chen, 2007) 등의 기준은 충족하므로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IV-13> 직업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R	RMSEA	차이검증
비 제약	906.804	306	.902	.879	.042	.063	$\Delta\chi^2=25.570$, Δ df=14 ($p<.05$)
요인부하 제약	932.374	320	.900	.882	.045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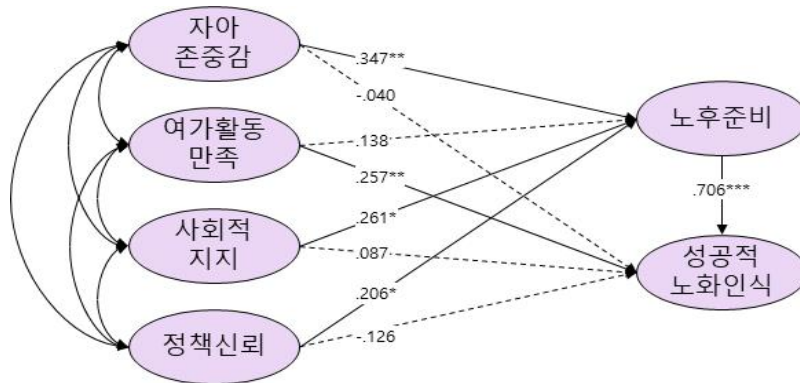
각 경로계수 들이 직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대응 별 모수 비교한 결과 9개 경로 중 1개 경로의 계수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4>.

여가활동 만족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전문직 집단($B=.176$, $p<.01$)에서는 유의하였지만, 비전문직 집단($B=.007$, n.s)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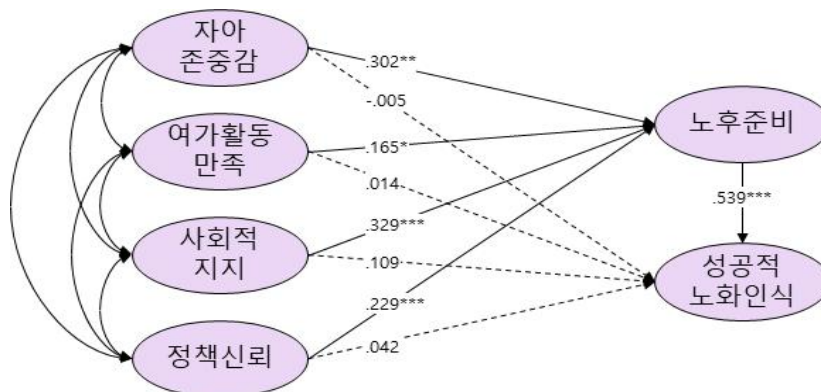
<표 IV-14> 직업에 따른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

경로	전문직(N=176)		비전문직(N=320)		대응비교 Critical ratio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 수	
자아존중감→노후준비	.473**	.347	.267**	.302	-1.059
여가활동 만족→노후준비	.128	.138	.113*	.165	-.138
사회적 지지→노후준비	.275*	.261	.305***	.329	.218
정책 신뢰→노후준비	.140*	.206	.158***	.229	.228
자아존중감→성공적 노화인식	-.040	-.040	-.003	-.005	.272
여가활동 만족→성공적 노화인식	.176**	.257	.007	.014	-2.126*
사회적 지지→성공적 노화인식	.068	.087	.069	.109	.008
정책 신뢰→성공적 노화인식	-.063	-.126	.020	.042	1.568
노후준비→성공적 노화인식	.522***	.706	.365***	.539	-1.090

*p<.05, **p<.01, ***p<.001



<그림 IV-9> 전문직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IV-10> 비전문직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직업에 따라 구분된 전문직 집단 및 비전문직 집단이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전문직 집단의 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 9개 중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그리고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이르는 경로, 여가활동 만족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 그리고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비전문직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이르는 경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했다. 이러한 차이는 전문직 집단은 비전문직 집단보다 수입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금전적 지출이 요구되는 관계형 여가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 관계형 여가보다는 활동형 여가를 즐길 때 만족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 (남은영, 최유정, 2008).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계층적 변인에 의하여 여가의 차이를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의 만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의 직업 분야는 경제적 수준과 높은 관련이 있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여가생활의 유형과 만족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노후준비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종교의 조절 효과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인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강성욱, 하규수,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중년 후기성인의 종교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종교를 조절 효과로 투입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종교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종교가 있는 집단과 종교가 없는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해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 <표 IV-15>.

아무 제약을 하지 않은 형태 동일성 모형의 경우 CFI=.908, TLI=.885, RMR=.045, RMSEA=.063 등으로 TLI가 기준값 0.9에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대부분 괜찮은 적합도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형과 비 제약 모형 간에 χ^2 차이검증을 한 결과 $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종교 간 측정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차이검증이 아닌 적합도 지수의 비교를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는 ΔCFI 0.01 이하(Cheung & Rensvold, 2002), $\Delta RMSEA$ 0.015 이하(Chen, 2007) 등의 기준은 충족하므로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IV-15> 종교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R	RMSEA	차이검증
비제약	896.592	306	.908	.885	.045	.063	$\Delta\chi^2=34.986$, Δ df=14 (p<.01)
요인부하 제약	931.578	320	.904	.887	.057	.062	

각 경로계수 들이 종교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대응 별 모수 비교한 결과 9개 경로 중 2개 경로의 계수가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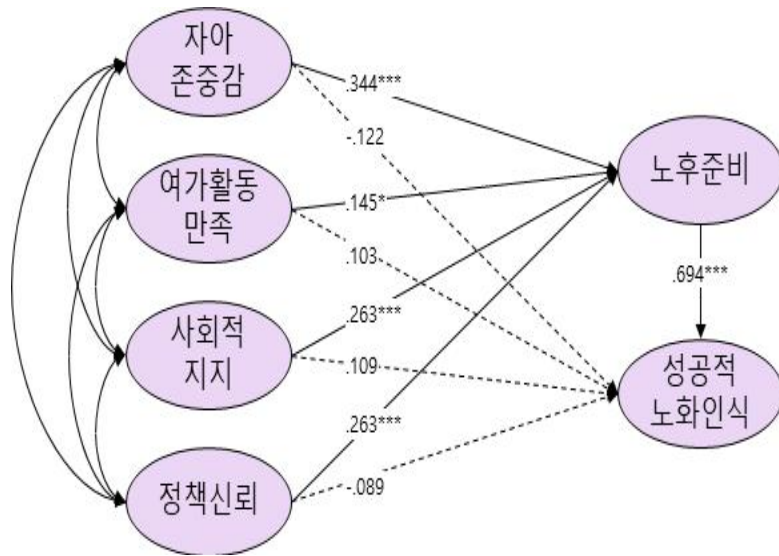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종교가 있는 집단(B=.203, p<.001)은 유의하였지만, 종교가 없는 집단(B=.007, n.s)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종교가 있는 집단(B=.426, p<.001)에서는 유의하였지만, 종교가 없는 집단(B=.079, n.s)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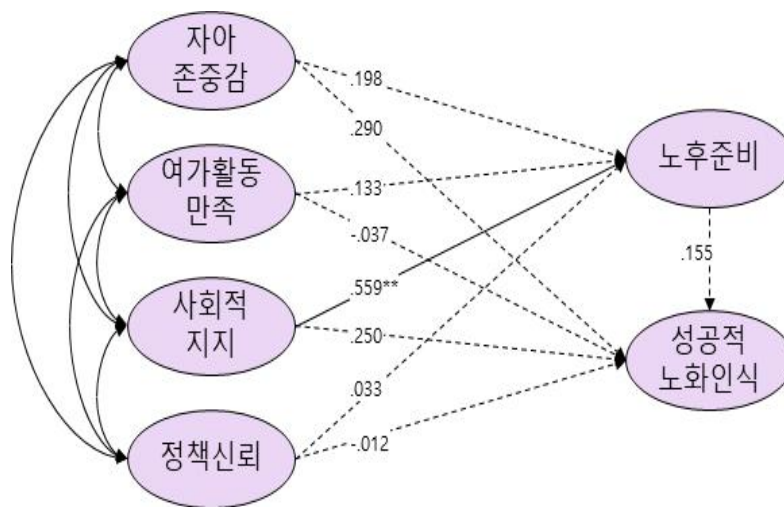
<표 IV-16> 종교에 따른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차이

경로	종교 있음(N=387)		종교 없음(N=109)		대응비교 Critical ratio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 수	
자아존중감→노후준비	.399***	.344	.191	.198	-.941
여가활동 만족→노후준비	.122*	.145	.106	.133	-.127
사회적 지지→노후준비	.281***	.263	.625**	.559	1.595
정책 신뢰→노후준비	.203***	.263	.007	.033	-3.026**
자아존중감→성공적 노화인식	-.087	-.122	.144	.290	1.647
여가활동 만족→성공적 노화인식	.053	.103	-.015	-.037	-.853
사회적 지지→성공적 노화인식	.072	.109	.144	.250	.469
정책 신뢰→성공적 노화인식	-.042	-.089	-.001	-.012	1.334
노후준비→성공적 노화인식	.426***	.694	.079	.155	-2.386*

*p<.05, **p<.01, ***p<.001



<그림 IV-11> 종교가 있는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IV-12> 종교가 없는 집단의 표준화 경로계수

종교 유무에 따라 구분된 종교가 있는 집단과 종교가 없는 집단이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종교가 있는 집단의 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 9개 중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그리고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이르는 경로, 그리고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종교가 없는 집단의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

화인식에 이르는 경로만이 유일하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종교 활동의 참여는 중년 후기성인의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거나,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정정서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박하영, 2021). 즉, 종교 활동은 평화로운 일상의 영위를 위해 소속된 종교 공동체로부터 인적, 물질,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자원을 제공하는 종교 공동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며, 이는 건강한 개인으로서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 지원과 성공적 노화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종교단체의 참여 활동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노인이 존재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작동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지역사회 중심의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여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1. 연구의 논의 및 함의

1) 연구의 논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백세시대를 맞이하면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생애에서 노인으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어졌고 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하고 2021년 7월에는 국가 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공적 노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중년 후기의 생태체계 요인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태체계 요인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서 도출하고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를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관점에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고, 미시체계를 자아존중감, 중간체계를 여가활동 만족, 외체계를 사회적 지지, 거시체계를 정책 신뢰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년 후기성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도모함을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노년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중년기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가족학 전문가들이 생태체계적 관점 접근의 필요성과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중년기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대 변화를 인식하고,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가족학 전문가는 모든 사람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학 전문가들이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후준비의 의미 및 중요성을 반영하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분석해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 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하였다. 이 예비조사는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전국의 55세~64세 중년 후기 남녀로, 사회적 분위기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550부 중 불성실한 응답 및 연령 구간(55세~64세) 제외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 후 496부에 대하여 최종 분석을 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를 측정 도구의 신뢰도 확인과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versio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변수에 대한 개념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versio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으며, 상정된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전체 구조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조절변수로 하여 다집단 분석을 하고, 집단 간 경로의 차이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직업, 월 소득, 동거가족,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학력, 결혼상태, 직업, 월 소득, 동거가족 유형, 종교 유무로 확인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노후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성욱 외(2013)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준비 수준이 높다고 밝힌 결과와는 상반된다. 현재 중년 후기성인 연구대상자들 세대는 주로 남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는 매우 낮았다. 따라서 대체로 여성의 노후준비는 남성에게 비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는 비단 경제적 능력이나 보유자산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인식하는 준비도를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준비 수준이 높는데(정경희 외, 2005; 이경준 외, 2015),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4.72배 크고(김정미, 엄기욱, 2014),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노후준비(인은영 외, 2015; 이경준 외, 2015)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노후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전문직이 비전문직보다 노후준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가족 유형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노후준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부부가구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은영 외(201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을 밝혀낸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개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유진(2005)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의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게 비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약 1.6배가량 높아 교육수준은 노후준비에도 정적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중

교가 있을수록 노후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종교 활동 참여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라 노화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와 같다. (박하영, 2021). 이에 따라서, 종교 활동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자원을 제공하는 종교 공동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며, 이는 건강한 개인으로서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김양이·이채우(200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배우자의 유무는 노후준비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무 배우자보다 유배우자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더 높다 (박윤희, 2017). 한부모 가정이 노후준비가 가장 낮은 이유는 한 부모 가정의 어려움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선행연구와는 달리 결혼상태와 노후준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결혼상태, 동거가족 유형, 직업, 월 소득, 종교 유무로 확인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차이로 인한 노후준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높았으며, 전문직 집단이 비전문직 집단보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노후준비와 같이 월 소득과 성공적 노화인식은 비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은주(2017)의 연구에서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에 경제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을 연구한 장영은(2022)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종교 유무 역시 종교가 있는 경우, 동거가족 유형에 따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1인 가구, 부부가구, 한 부모 가구 순으로 나타나 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사별이 가장 높았고, 미혼, 기혼, 이혼/별거, 재혼 순으로 나타났다. 강유진, 한경혜(2002)가 지적한 바와 같이, 노년기 적응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여성 성인 후기 중년들의 외로움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석결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이 중년 후기성인(55세~64세)이면서, 조사대상자의 남녀 비율이 유사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불어 성공적 노화인식의 하위변인으로 일상의 안녕, 자기효능감, 심리 사회적 안녕으로 정의된 특성에 의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따르면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둘째, 생태체계학적 관점에 따라 분류한 미시체계요인인 자아존중감, 중간체계요인인 여가활동 만족, 외 체계요인인 사회적 지지, 거시체계요인인 정책 신뢰는 노후준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공적 노화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먼저 생태체계 관점에서 분류한 미시체계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시체계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포함함을 시사한다 (정옥분, 2005).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의 성공 여부 보다 그 과정과 노력에 만족감을 느끼며 실패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여긴다. 그뿐만 아니라, 나 존중, 타인존중으로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유정희, 2014).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노후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상정된 미시체계 요인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노후준비에 대한 유의미한 정적(+인)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프로그램 개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미시체계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나이가 들수록 하락이 증폭되므로(박종원, 2020),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회시스템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현영, 2016).

다음으로 생태체계 관점에서 분류한 중간체계 요인인 여가활동 만족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는 중간체계요인인 여가활동 만족이 사회활동 참여나 상호관계를 의미하다는 점에서 이는 고정 형태가 아닌 가변적이고 이 동적 특성을 보여준다 (배지연, 2005). 따라서 여가활동 만족은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생태체계에 있어서 중간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추구하며 재충전한다(김송희, 2006)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년기 여가활동의 순기능은 건강증진, 대인관계의 확대, 일상에 대한 만족감 증대, 신체 및 심리적 자신감 확대, 자립성 증진, 자기 가치성과 유용성 증진 등이 있는데 (이금룡 외, 2004), 이는 경제적 소득의 보충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적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다. 더불어 사회·심리적으로는 생에 대한 애착이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신적으로는 긴장감을 해소하며, 적절한 정신적인 자극을 주게 되어서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루다, 2019).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중년 후기성인의 여가활동 만족은 노후준비(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준비)에 유의미한 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상정된 미시체계 요인인 여가활동 만족이 미치는 노후준비에 대한 유의미한 정적(+인)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프로그램 개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생태체계 관점에서 분류한 외체계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중년 후기성인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미경, 2017).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을 형성

함으로써 인간의 발달과 건강한 적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은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적응하는 능력도 높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환경과 관련된 변인으로써 신체적이며 심리적인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미숙, 2016). 이가영과 박태진(1997)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고, 폭넓은 유대관계를 가진 노인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지원 망의 크기가 클수록, 지원 망에 속한 성원과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가 많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 (박경숙 1999).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상정된 외체계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인 정서적 지지, 정보 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미치는 노후준비에 대한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생태체계 관점에서 분류한 거시체계 요인인 정책 신뢰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에 정(+)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개인은 가족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웃, 지역사회, 국가 등 사회환경으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현숙, 2009). 이러한 거시체계는 개개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일반적인 문화, 정치, 종교, 법, 교육, 경제정책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조적인 맥락 관점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박은선, 2005; 조기곤, 2008; 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따라서 본 연구가 상정한 거시체계 요인으로서의 정책 신뢰는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 내에서의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유행을 의미하고,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후와 관련된 정책은 국가의 전반적 복지정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형성된 정책 신뢰는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낮추고 노후에 대한 기대가 증가시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 생활 관련 정책들에 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가 확인한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 신뢰의 영향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시체계요인인 자아존중감, 중간체계요인인 여가활동 만족, 외 체계요인인 사회적 지지, 거시체계요인인 정책 신뢰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노후준비를 통해 노후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여 성공적 노화인식에 변화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후기성인들의 생태체계적 요인들은 성공적 노화인식과는 직접적 영향이 없고, 오로지 노후준비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 후기성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요인들이 직접적 영향을 보인다고 나타났으며,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적 매개 효과를 가짐으로써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년 후기성인의 생태체계적 각 요인 수준은 신체, 경제, 정서적 차원의 노후준비가 달성되었다고 인식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적 노화인식인 일상의 안녕, 심리 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 후기성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의 형성을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단순한 안녕감이나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후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한 결과, 먼저 성별에 의한 조절 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 만족은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 모두 유의미한 경로로 확인되었으나, 남성의 경우 .643, 여성의 경우 .446으로 남성이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여가활동 만족이 높으나, 여가활동 만족이 노후준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은 여가활동 만족이 높지 않지만, 노후준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중년 후기 남성의 경우 경제사회 활동에 집중된 상황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중년 후기 여성의 경우 경제사회 활동보다는 여가활동에 집중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과 남성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가활동 만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남녀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결과는 중년 후기성인의 여가활동 참여율 차이, 더 나아가 여가 행동의 차이를 밝히는데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력에 의한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학력에 따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의미가 없으며 대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대학원 이상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정책 신뢰는 고졸 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에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는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학력의 조절 효과에서 정책 신뢰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고졸 이하의 집단에서는 정(+)의 영향이 나타나고, 대졸 집단에서는 부(-)의 영향이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얻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유진(2005) 역시 공적연금 가입 여부가 개인의 학력과 높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학력은 노후

준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후기성인의 학력을 고려하여 노후준비 및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한 교육이나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직업에 따라 구분된 전문직 집단 및 비전문직 집단이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전문직 집단의 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 9개 중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그리고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이르는 경로, 여가활동 만족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 그리고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비전문직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이르는 경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했다. 전문직 집단과 비전문직 집단에서의 차이점에서 여가활동 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후준비에 미치는 인식이 비전문직 집단에서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전문직 집단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인식과의 관계는 전문직 집단에서 정(+)^{의 영향을 보였으나, 비전문직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은영, 최유정(2008)의 지적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 중에서도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 계층적 변인은 여가의 차이를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연구의 분석결과 전문직 집단이 비전문직 집단과 비교하면 여가활동의 만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가생활 만족이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였음을 반영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직 집단에서는 지출을 동반한 관계형 여가를 추구하며, 비전문직 집단에서는 관계형 여가보다는 활동형 여가가 더 만족도가 높고 여가의 내적 가치를 통해 삶의 만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남은영, 최유정, 2008)는 것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활발한 여가활동이 만족감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가활동 만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전문직 집단은 비전문직 집단보다 수입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금전적 지출이 요구되는 관계형 여가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 관계형 여가보다는 활동형 여가를 즐길 때 만족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 (남은영, 최유정, 2008).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 계층적 변인에 의하여 여가의 차이를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의 만족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의 직업 분야는 경제적 수준과 높은 관련이 있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여가생활의 유형과 만족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노후준비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조절 효과는 거시체계요인인 정책 신뢰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종교를 가진 집단은 정적(+)^{의 영향을 보였으나 비종교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종교인 집단에서}

정적(+의 영향을 미쳤지만, 비종교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종교 활동 참여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및 노화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하영, 2021). 이에 따라서, 종교 활동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자원을 제공하는 종교 공동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며, 이는 건강한 개인으로서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종교 활동은 평화로운 일상의 영위를 위해 소속된 종교 공동체로부터 인적, 물질,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자원을 제공하는 종교 공동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며, 이는 건강한 개인으로서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 지원과 성공적 노화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종교단체의 참여 활동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노인이 존재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작동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지역사회 중심의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여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 성공적 노화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함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을 살펴본 연구이다.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기나 노년기를 연구대상으로 한 생태체계학적 관점이나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특히 성공적 노화인식이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매우 극소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그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가족과의 관계보다 또래 집단의 관계, 여가활동 만족 등과 같은 보다 폭넓은 대인관계에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간 국내에서 행해진 다수의 연구가 가족관계 중심으로 대인관계나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다 보니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년기의 가치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중간체계를 가족관계나 대인관계가 아니라, 여가활동 만족으로 보았고, 사회적 지지 역시 또래 집단이나 이웃 등 보다 다양한 대인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다 집단 분석을 통하여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공적 노화나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하였다. 연구자

에 따라 성별이나 연령, 학력, 소득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조절 효과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중년 후기성인의 성별, 학력, 직업, 종교 유무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하여 집단 간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노후준비 혹은 성공적 노화인식을 종속변수로 산정하여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계를 본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계를 살펴봄에 따라 자아존중감, 여가활동 만족, 사회적 지지, 정책 신뢰의 변수들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를 통해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를 보임을 규명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2. 연구의 제언 및 한계점

1) 연구의 제언

앞에서의 연구결과와 결론 및 본 연구의 의의를 바탕으로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공적 노화와 노후준비는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는 당위적 차원의 인식이 기존에는 만연하여 있었으나 이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해 직접적 영향보다 노후준비를 통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를 함께 통합적으로 교육하거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효과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후준비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책적 프로그램에도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계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노후준비나 성공적 노화인식에 있어서 성별, 소득, 직업, 학력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에서 학력의 차이가 보이는 결과는 정부의 노인 정책들이 더욱 세심하게 계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 인해 개인 소득에 대한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한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못했지만 분명 소득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바 소득별로 분류하여 노후준비에 대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계층에 따라 다른 정책적 수요에 맞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적 노화 혹은 노후준비는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족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정부의

정책지원 역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처럼 향후 노년의 삶은 가족 중심에서 탈피해 개인 중심으로 재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만들 수 있는 노력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즉, 개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활동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정책적 차원에서도 중년 후기성인, 노년기 성인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현재의 중년 후기성인들은 지금의 노년과는 다른 점을 보인다. 그들은 은퇴 이후에도 왕성한 신체적 에너지와 사회적 에너지,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기에 부족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노년층이 될 '뉴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프로그램, 사회봉사 멘토링 프로그램, 이들의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들이 세밀하게 설계되어 그들이 가진 지혜와 노하우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진입이라는 사회문제를 앞두고 노인복지, 노인 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금은 노후준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노후의 삶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과 '노년'에 대한 패러다임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정책적으로 노인의 일자리나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노년의 삶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세대 진입을 앞둔 현재 중년 후기성인들의 생활은 지금의 노인과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정책에 대한 요구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새로운 노년층에 대한 분석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빈곤이나 일자리 문제를 넘어 심리·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 여가활동 만족과 같은 다양한 '노년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는 현재의 청·장년층이 가지는 노년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면조사가 힘들어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비대면 조사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컴퓨터 활용이 일상화되어 메일, SNS 사용이 쉬운 계층을 중심으로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학력이나 소득, 직업 등에 있어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중년 후기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 및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조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나 성공

적 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인식을 담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심층 면접이나 인터뷰, FGI와 같은 다양한 질적 연구의 방법들을 병행하여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나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생태체계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나 다양한 하위변인을 살펴보지 못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 후기성인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하위변인 이외에 다양한 변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옥 (2013).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성옥, 하규수(2013).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2), 121-144.
- 강신기, 조성숙(2013).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 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디지털 융복합연구, 11(11), 117-132.
- 강영숙 (2005). 고령화 사회 중,장년층 여성의 노후준비의식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유진 (2004). 중년 후기 한국 여성의 전환기 경험, 대한가정학회지, 42(7), 145-164.
- 강유진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강유진, 한경혜(2002). 한국 여성 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 인생 전환점·삶의 맥락·적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 강인 (2016). 베이비붐세대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460-472.
- 강해자 (2012). 노인의 노화 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57), 191-221.
- 강현욱, 박경민 (2012).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한국노년학, 32(1); 129-143.
- 고기숙 (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인숙, 홍성희, 이경희(2007).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 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21-42.
- 권미경 (2017).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수연 (2016). 간호사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2), 62-76
- 권중돈 (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경희 (1993). 한국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계옥, 김용민 (2016).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정책연구 16.4, 37-52.
- 김규리 (2021). 중년여성의 생태체계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남순 (2009). 중년층 노동자의 노후설계 인식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남옥, 석승혜, 장안식 (2016) 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는 감소하는가? 한국 이론 사회학회, 1(28), 33-67
- 김덕경 (2011). 자기표현 훈련프로그램이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배, 이희연(2003). 사회복지실천의 생태체계 패러다임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연세 사회복지 연구소, 9, 27-58.
- 김동배, 권중돈(2004). 인간행동 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2012). 노인의 과거 노후준비 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 만족도의 매개 효과, 노인복지연구, 58, 325~352.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명소, 임지영 (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과의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 여성, 8(1), 83-97.
- 김명일, 신혜리 (2013). 노인의 우울과 자살 생각 간 관계에서 사회참여와 과거 노후준비가 가지는 조절 효과: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 도시연구, 14(4). 185-201.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문겸 (2019). 중장년의 노후준비도가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순복음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령 (2005).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 사회사업연구, 2(1), 99-121.
- 김미령 (2008).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 노년학, 28, 33-48.
- 김미령 (2013). 노후 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차이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복지학, 65(1), 227-245.
- 김미숙 (2018).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26(2), 35-52
- 김상균, 조홍식, 김혜란, 2002,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 김선희 (2019). 중년층의 노후준비의식이 성공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연구: 사회복지정책을 매개변수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규 (2016).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 동기가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남 (2012).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영국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희 (1996). 중년여성의 노후 생활 준비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2009). 장애인 생활체육 예비지도자들의 기대 직업만족도와 여가활동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진 (2021).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변화, 노인실태조사 심층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송희(2006). 여가활동 참여자의 생활 만족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수현 (2009). 직장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희 (1998). 노부모 부양의식과 노후 생활 전망: 중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신철 (2021).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교육서비스 인식분석: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순 (2015). 장노년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김양이 ·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 조사연구, 19(1), 52-82.
- 김연선 (2008). 셀프 리더십이 팀웍과 자기효능감, 직무 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특급호텔 Wine & Dining Restaurant 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연선 (2015). 사회복지사의 노후 생활 인식과 퇴직 태도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지, 이주희, 이영주(2018). 중년 후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임상건강증진학회, 18(2), 90-97
- 김영욱 (2020). 중년기 성인의 가족건강성과 노후준비도가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매개 효과, 서울벤처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오중 (1994). 여가 레크리에이션. 대경 출판사.

- 김왕기 (2019).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중요도 및 실행 도와 은퇴불안 - 충청남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정 (2009). 중년 부부의 삶의 의미:코오리 엔테이션 모델 적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주, 김영희 (2011). Successful Aging Theory(SAT)에 근거한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예측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4), 378-387.
- 김인숙 (2004). 중년여성의 노후 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미, 엄기욱(2014).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 16(4), 197-221
- 김정희 (1996). 한국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인구요인, 한국 노년학, 16(2), 120-136.
- 김재중 (2008).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희, 김옥(2013). 노인의 노후준비가 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노인복지연구, 62(겨울), 231-256.
- 김종선 (2016). 한국 노인의 사회 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종진 (2018). 경제적·신체적 노후준비가 은퇴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여가생활의 매개 효과와 은퇴 자발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주성, 최수일 (2010). 라이프 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 복지학, 15(3). 97-119.
- 김주연 (2016) 뷰티서비스종사자의 일터학습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지경 (2006).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이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 동행동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31-44.
- 김지수, 심준섭(2011). 투명성이 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149-178.
- 김지영 (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현주 (2018). 중년 기혼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낙관성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기민, 이정민 (2012). 노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가족 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57), 85-112.
- 남승호 (1994). 노부모 부양의식과 노후 생활 전망에 관한 조사연구 - 서울 거주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은영, 최유정(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57-84
- 노승욱 (1995). 한국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정서적 건강상태와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7(2), 259-269.
- 노은영 (2017).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불안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연구: Q방법론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 문태현 (1987). 공공정책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경미 (2013). 중년여성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년 인식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 박경숙 (1999). 여성장애인의 성 역할 태도와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길화 (2013). 중년여성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만자 (2020) 중·장년층의 사회적 지지가 죽음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노후준비도의 매개 효과-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명욱 (2017).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미현 (2008). 중년여성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여가 만족 및 생활 만족의 관계,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선영 (2013). 삶의 의미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의미감 증진 개발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성준 (2016).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순욱 (2014). 성공적 노화를 위한 목회상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현실치료와 이야기 치료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애경 (2017) 가족 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인터넷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아 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매개 효과검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윤영 (2015).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박윤희 (2017). 중년기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노후준비교육의 매개 효과 검증-,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선 (2005). 아동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 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희 (2016).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통합감의 매개 효과 :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인숙 (2015). 중·장년층의 자아효능감과 노후 생활 인식에 따른 은퇴 준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정훈 (2018). 중년여성의 사회 적지지, 자기효능감이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0),569-577
- 박종원 (2020).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직무 만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영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창우 (2008). 교회사회복지 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박창제 (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 사회 복지학회지, 60(3), 275-297.
- 박창제 (2011).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대비한 재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7(4), 327-351.
-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 행정학보, 33(2), 1-17.
- 박하영 (2021). 노년기 종교적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다층 매개효과.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39 No.4 Serial No.164.
- 박형란 (2011).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과정,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혜성 (2007). 노인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 및 심리적 복지 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현식 (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연구. 노인복지연구, 58(0), 281-302.
- 박희봉, 신중호, 황윤원. (2013). 정부 신뢰의 요인-정부 정책인가? 정치 태도인가?-. 한국 정책학회보, 22(1), 465-492.
- 박희현, 박은민, 박순희, 이주희, 문은미 (2016). 광주광역시 장년 세대 인생 이모작 실태 및 욕구 조사. 광주 평생교육 진흥원.
- 반기완 (2015). 청소년 활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에 관한 연구: 일반 청소년과 문제행동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계희 (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나래 (2007).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문조 (2009). 중년기 성인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회, 29(3), 1107-1122.
- 배문조 (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 생활 준비 의식이 노후 생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45-61.
- 배문조, 전귀연 (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2004.
- 배옥현 (1990). 노후 생활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시 중년층을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재덕 (2014). 중년층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 태도가 은퇴 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정희 (2017).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연 (2005).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이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인경 (2009).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지은, 최혜경 (2005). 한국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백지은 (2006).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비교문화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310.
- 보건복지부 (2017). 국민 인식조사
-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 서 전 (1991). 중년기 가족의 노부모 부양 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정숙 (2018).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석상훈 외 (2012).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 성말순 (2004). 중년여성의 노후 생활 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혜영, 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성혜영, 조희선 (2006). 연구논문: Rowe 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 노년학, 26(1), 105-123.
- 손덕순 (2005). 노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우울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덕화 (2016). 은퇴세대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 구조.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호중, 채원호 (2005).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3), 87-111
- 송기영 (2019). 노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9, 593-600 (8)
- 송영달, 손지아, 박순미 (2010).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분석, 한국 노년학, 30(2), 643-660.
- 송진영 (2017). 기독교 중년여성의 영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창국 (2008).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결정요인 연구 : 교단 은급 제도·국민연금과 사적 준비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향주 (2012). 중년여성의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 향상을 위한 TSL 프로그램 효과 - 뇌 생명 사회 과학적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경림 (1995). 유방절제술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체험연구, 간호학회지, 25(2), 295-315.
- 신근영, 고재욱(2014).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도를 매개 효과로,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680-70.
- 신기영, 옥선화 (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9(1), 161-178.
- 신명범 (2011). 노인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수민 (2013). 과거 노후준비가 노년기의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 사회적 자원의 매개 효과. 사회복지 연구,44(3),57-83.
- 신영희, 이혜정 (2009).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관련요인, 한국노년학, 29(4), 1327-1340.
- 신한은행 (2022). 2022 보통사람 금융 생활보고서, 신한금융지주회사.
- 안서연,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9).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8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 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안지선, 전해정 (2012). 중년기 은퇴로의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 효과. 한국 가족 관계학회지, 17(1), 65-85.
- 안영선 (2009). 중년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세정, 성영애 (2001). 노인 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양옥남, 김혜경, 김미숙, 정순돌 (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 엄명용 (2002).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여미옥 (2013).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참여 태도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염철기(2017). 노인의 고독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검증.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경민 (2000). 정부 신뢰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경민·박홍식 (2002). 정부 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 정책학회보, 11(3), 113-135.
- 오병철 (2012). 베이비붐 세대 남성 직장인들의 퇴직 태도, 노후준비, 노년기 사회참여 의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오영은 (2015). 농촌 노인의 고독감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사회적 자본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혜진 (2013). 중년 후기 여성의 미술학습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 50-60대에 미술을 시작한 세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경근 (2014). 노인 여가 수행과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계숙, 최연실, 성미애 편역(2003) 가족학 이론, 하우.
- 유정희 (2014). 청소년의 종교 활동이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지연 (2016).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애와 고용. 26(1), 153-172.
- 윤양희 (2010). 중년여성 자아존중감의 변인과 향상에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영애, 박용익(2010).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의료복지연구, 1(1), p.15-39.
- 윤종희 (2006). 건강 가정 지원 사업에서 가족-중심개입을 위한 개념모형 연구 :생태체계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44(3), 115-126.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가영, 박태진 (1997). 노인에서의 건강 행위와 신체적 건강상태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19(7) 83-116.
- 이건욱 (2016). 아들러 개인 심리학적 집단미술치료가 중년여성의 열등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혜 (1997). 중년 결혼 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 정체감 형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준 (2015). 민선 6기 광역시 도지사의 장애아동 관련 공약 이행계획 검토와 제언. 한국 장애아동 인권학회, 한국 장애아동 인권 연구 Vol.6 No.1
- 이계상 (2018). 언론인의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근영 (2020) 제주지역 중년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 논문
- 이금룡 외(2004). 여가. 일신사
- 이도영, 서혜영, 이백철, 정계현(2016).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4), 199-208.
- 이루다 (2019). 노인의 여가몰입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검증.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명희 (2020). 베이비부머의 자기효능감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순 (2006)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비교연구
- 이묘숙 (2012).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경제상태가 성공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7, 289-313.
- 이미재 (2010),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용산구 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서영 (2016). 성별 차이에 따른 농촌 지역 노인의 가족 관계망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저먼트학회, 17, 181-200.
- 이선영 (2004). 생태체계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의 영향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주(2018). 중년기 여성의 회복 탄력성이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원 (2016). 현대적 효 연구에서의 남녀 성별 고려의 필요성, 한국 효 학회, 23, 55-78(24)
- 이선형 (2001). 노인 부부관계를 위해 추정된 노후 월평균 생계비의 활용방안, 한국노년학연구, 10, 5-30.

- 이소정 (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신영 (2009). 도시 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205-224.
- 이신영 (2012). 중노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31(1), 287-306.
- 이영서(2012), 사별 노인의 생태체계요인이 자살 생각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별 및 자녀동거 여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자 (1995).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서울 여자 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 195 -242
- 이영애 (2019). 준·고령자의 가족탄력성과 노후준비 정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사회적 요인의 매개 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역 (1992). 인간발달 생태학, 교육 과학사
- 이원호 (2006). 사회적 배제의 측정과 빈곤 현상의 공간적 패턴: 서울시의 사례연구, 지리학연구, 40(3), 367-379
- 이윤선 (2021). 노인의 노후준비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희, 최정화(2004) 농촌 중년여성의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지, 23(1), 231-251.
- 이인수, 이승명, 정종식. (2006). 21세기 노인복지론. 대왕사.
- 이정우 (2010), 기초노령연금 수급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화 (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이재모 (2018).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민 (2014).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종길 (1992). 사회 체육활동과 생활 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주환 (2014).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 대한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지모 (2021). 중·고령자의 노후준비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지현, 김수영(2016). 문항 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척희 (2020). 사회적 배제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학식, 임지훈(2013).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0.0. 서울: 집현재.
- 이혜자 (2013). 가계지출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지출과 부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영 (2016).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회경 (2003). 중년층 직장인의 노후 생활 대책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대전광역시 사무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인원교 (2012). 중년기 성인의 중년기 위기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인은영, 김찬우(2015). 중간소득 이하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복지조사연구, 44, 25-52.
-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정문 (2014). 목회자의 생태체계가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종미 (2012). 중년층의 노후준비인식이 노후대책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 임진 (2017).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서비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특별시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영은 (2022). 중장년층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 인식기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명숙 (2011). 노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명숙, 박경숙(2012).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연구 32(2) 232-266.
- 장미숙 (2017). 웰다잉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의 죽음 태도, 자아통합 감 및 노후준비도A 에 미치는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은주 (2017) 중·장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자아효능감을 매개 효과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인협 (1998). 사회사업실천방법론(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홍영 (2021). 노인의 건강증진행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성공적 노화인식과 생활 만족도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희숙 (2007). 성공적 노화, 스트레스 연구 15권 4호, 대한스트레스학회, 325-330.
- 전귀연, 배문조 (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3-24.
- 전미숙 (2016). 쉼터 이용 청소년의 생태체계적 요인이 자립 준비에 미치는 영향-입과워먼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병구(2012).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여가활동 실태와 여가 만족·직무 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항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07-129
- 전병주, 최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 효과, 한국웰니스 학회지, 13(2), 263-276
- 전은희 (2011).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진우 (2002). 중년층의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 카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경희,오영희,황남희,신현구,남효정 (2013). 미래 고령사회 대응 베이비붐 세대 및 전후 세대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민자 (2016) 저소득층 조손 가족의 십대 손자녀가 지각한 역경과 가족 레질언스에 관한 질적 분석. 복지상담 교육 연구, 5(1),21-41
- 정민자 (1992). 임상-정상 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 스트레스, 가족 자원과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18
- 정병은, 이기홍(2010).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 조사연구, 조사연구 11(2), 45-69
- 정석환 (2011).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행복한 노년 개념 연구. 한국 기독교 상담 학회지, 21, 211-252.
- 정여진 (2011). 노인의 부부친밀감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옥분 (2005). 영유아 발달의 이해, 학지사.
- 정은호 (2015).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주희 (2021). COVID-19 환자치료병원 간호사의 외상후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회복 탄력성 매개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춘호 (2018) 전통무예 참여자 특성이 여가 정체성 및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홍인 (2018). 중장년 사무직 근로자의 신체적·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 노년학 38. (1), 27-45.
- 조국행 (2010). 우리나라 노인 자살 관련 요인의 생태체계학적 분석,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기곤 (2008). 아동 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미영 (2006). 중년층의 노후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 입주의사.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성남 외(1998). 고령화 사회와 중산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 조아라, 오희영(2017). 중장년 성인과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 성인 간호학회지, 29(1), 41-50.
- 조진희·김분한(2012), 중년여성의 성공적인 노화 인식과 우울, 한국 생활환경 학회지, 19(2), 259-266.
- 조추용, 송미영, 이근선 (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노인복지학회, 43, 135-156.
- 주경희 (2011a).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 지역사회 복지학, 39; 231-264.
- 주경희 (2011b). 사회참여 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5-39.
- 지민경 (2016). 중장년층 성인 학습자의 성찰학습수준과 노후준비의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 논문
- 지승훈 (2010).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지혜은 (2018).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학적 요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은진 (2011).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천연희 (2019).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경희 (1996). STS 교육의 이해와 적용. 서울 : 교학사.
- 최미진 (2019). 성공적 노화 자원으로 운동참여의 심리적 경험과 생활기술,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성재, 장인협 (2005).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성재 (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 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 노년학, 29(1), 329-352.
- 최용호, 전성남 (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생애 설계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

- 컴퓨터 정보학회 논문지. 18(6), 101-110
- 최은영, 최혜경 (2015). 성공적 노화인식과 은퇴 기대가 은퇴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1·2차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8(4), 23-57.
- 최은주 (2021). 행복 교육을 위한 유아 특수교육 생태체계 탐색 연구: 유아특수학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인영 (2007). 한국 중년 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 노화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혜경, 백지은, 서신영(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최혜련 (2011).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 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화강 (2012).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21). 2021 사회조사.
- 통계청 (2022). 장래인구추계: 2020~2070.
- 통계청 (2022). 2020 빈곤통계연보: 2020-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년 제4차 고령사회 포럼.
- 한경란, 안경실, 오병철 (2010). 중년 직장 남성의 직업 및 퇴직에 관한 태도. *한국노년학*, 30(2), 599-613
- 한경혜, 노영주(2000). 중년여성의 40대 전환기 변화 경험과 대응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12(1), 67-91.
- 황길주 (2020)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주 중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현진 (2012). 농촌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경숙 (2009). 생태체계 요인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금희·하주영 (2015). 중년 전·후기의 노화 불안과 성공적 노화 요소 및 노후준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1), 29-39.
- 홍석관 (2006).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비교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홍현방 (2002). 성공적 노화와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3), 245-259.
- 황남희, 유재언, 박은자, 김혜수, 양찬미, 김재호, 성혜영, 이금룡 (2019). 2019년도 노후준비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 (2019).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승희 (2012).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 및 노후 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 Anderson, J. F.&Kras, K. (2005). Revisiting Albert Bandura's Social Learning Theory to Better Understand and Assist Victims of Intimate Personal Violence, *Women & Criminal Justice*, 17(1),99-124.
- Austrom, M.G.& Perkins,A.J.& Damush,T.M,& Hendrie,H.C.(2003).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retired physicians and spouses, *Social Psychiatry Psychiatry Epidemiology*, Vol.38, 134-141.
- Baltes, P. B. & Baltes M. M.(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M. M., & Carstensen, L. L. (1996). The process of successful aging. *Ageing and Society*, 16(4), 397-422.
- Bandura, A.& Pastorelli, C. & Barbaranelli, C. & Caprara, G. V. (1999). Self-Efficacy Pathways to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258-269.
-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Borland,D.C.(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18,(4),379-386.
- Brightbill, C.K.(1960).*The challenge of leisure*.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Hall.
- Bromely, D.B (1974). *The Psychology of Human Aging*(2nd ed), New York. NY: Penguin Books

- Bronfenbrenner(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92). 인간발달생태학. 이영(역). 서울: 교육 과학사.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antril, H. (196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 Cassel, J. (1974) Psychological processes and stress: Theoretical form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4 471-482.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0). Assessing extreme and acquiescence response sets in cross-cultural research us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2), 187-212.
- Clinebell, H.J. 박근원 역 (1992). 목회상담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 Cobb,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ttle, T. J. (1965). Self-concept ideal and response to action. *Sociology and Research*, 23, 78.
- Compton, B. R., & Galaway, B., (1999). *Social work processes*, 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Conway. J(1989). *Men in middle crisis*,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 Conway,J. 한성열 역 (1992). *남자 나이 마흔이 된다는 것*, 학지사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sikszentmihalyi, M, ,Flow(1990) *The Psych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Collins.
- Darling, C.(1987). Family life education. In M. Sussman & S.Steinmetz,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815-833). NY:Plenum.
- Diener, E., & Eunkook .M. S.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umazedier,J.(1974). *Sociology of Leisure*. Amsterdam: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 Eisdorfer & M. P. Lawton (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pp. 598 - 61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losua, P. (2011). Subjective Values of Quality of Life Dimensions in Elderly People. A SEM Preference Model Approach. *Soc Indic Res*, Vol.104,427-437.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c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Norton.
- Fisher, B.J & Specht, D.K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 Fitch, V.L.& Slivinske, L. R.(1998). Maximizing effects of wellness programs for the elderly.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61-67
- Francis J. Turner(1996). *Social Work Trea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601-605.
- Gerbing, D. W., & Anderson, J. C. (1988). An updated paradigm for scale development 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 and its assess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2), 186-192.
- Goldhaber, D. (1986). "Life-span human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Hadaway, C. K. & Roof, W. C.(1978). Religious Commitment and Quality of life in American Societ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19(3),295-307.
- Hakel. M.D(1968), Personnel selection and place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7, 351-382.
- Havinghurst, R. J. (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Green.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 Havighurst, R. J. (1973). Social roles, work, leisure, and education. In C.
- Havighurst, R.J.김재은 역 (1996). *발달 업과 교육, 배영사*.
- Hellström, Y .& Persson, G. & Hallberg I. R.(2004). Quality of life and symptoms among older people living at hom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8(6), 584-59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eanneret, R.(1995) *The Role of a Preparation for Retirement i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People*. *Preparation for Aging*. New York, NY: Plenum Press, 55-62.

- Jimenez, I., Chiesa, R., & Topa, G.(2018).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ge-related differences among Spanish worker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 Jung, C. G. (1971). "The portable Jung" New York: Viking Press.
- Kaplan, G. (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Behavioral publications, New York.
- Kaplan, A. (1977). Social support: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Unpublished Bachelor Thesis, Brown University, Providence, RI
- Keele, S. & Alpert, P. T(2015). Preparing for Retirement in Uncertain Time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15(1), 50~55.
- King, J. & Yourman, L.& Ahalt, C. & Eng, C. & Knight, S. J. & Pe´rez-Stable, E. J. & Smith, A. K.(2012). Quality of Life in Late-Life Disability; "I Don't Feel Bitter Because I Am in a Wheelchair". *Ethnogeriatrics and Special Populations*, 60(3), 569-576.
- Krause,N.(2003). Race ,Religion, and Abstinence From Alcoholin Late Life. *Journal of Aging and Health*,15(3),508-533.
- Krause,N.(2008). The Social Foundation of Religious Meaning in Life. *Research on Aging*, 30(4),395-427.
- Kreitler,S. & Kreitler,M.M.(2006). Multidimensional Quality of Life; A New Measure of Quality of Life in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76,5-33.
- Lazarus, R. S, and Folkman (1984) .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New York.
- Levinson D. J.(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ew York :Knopf.
- Leitner, M. J., & Leitner, S. F. (1985). *Leisure in later life: A sourcebook for the provision of recreational services for elders (Vol. 1)*. Routledge.
- Levinson, Daniel J. (1994).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ashville : Broadman & Holman.
- Lin, N.(1986), Conceptualizing social support. in N. Lin, A. Dean & W.M. Ensel,(eds), *Social support, life event and depression*, 17-30. Orlando: Academic Press Inc.
- Malcolm Payne, 서진환 역,(2001). *현대사회복지실천이론*, 나남.
- Magnusson, D. & Allen, V. L., 1983, *Human development: An interaction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Moen. p. & Wethington, E (1999). Midlife development in a life course context, In Willis SL & Reid JD(Eds) *Life in Middle*. San Diego: Academic press.

- Neugarten, B. L., Moore, J. W. & Lowe, J. C. (1965). Age norms, age constraints, and adult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 229-236.
- Neulinger, J.(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leisure*. Springfield, Ill:Charles C. Thomas. Pub.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ark, K. R.,& Yi, Y. S.(2003), A Study on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3), 53-66
- Robbins, G., Powers, D., & Burgless, S(1997). *A Wellness Way Of Life*. Chicago: Brown and Benchmak.
- Robinson-Smith, G. & Jhonston, M. V. & Allen, J. (2000). Self-care Self-efficacy,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after stroke,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1(4), 460-464.
- Rosenberg, M. (1965).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16, 829-86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 Simons R. G(1971). *Black and white self-esteem the Urban school Child*. Washington D. C. Ros-Monography Series.
- Rowe, J. W. & Kahn, R. L. (1987), Human aging and successful, *science*, 237, 143-149.
- Rowe, J. W. & Kahn, R. L.(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Rowe, J. W. &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Random House.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J.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Schaie, K. W. (1982).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oston: Little, Brown. 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3), 234-247.
- Shaffer, D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Childhood & Adolescence. Broks. Cole.

- Shanas, L. S. (1979). The Family as a Social Support System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19(2), 454-458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 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SIC). 663 - 671.
- Staudinger, Ursula M., & Susan Bluck. (2001). "A view on midlife development from life-span theory." Handbook of mid life development, 3-39.
- Strawbridge, W. S., Wallhagen, M. L., Cohen, R. D., (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The Gerontologist, 42, 727-733.
- Taft, L. B. (1985)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d Nursing Science, 8(1), 77-84.
- Vaillant, G. E. (1994). Successful aging and psychosocial well-being: Evidence from a 45-year study, in Thompson, E. H. jr(eds), Older Men's Liv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22-41
- Wakefield, J.C. (1996), Does social work need the eco-systems perspective? part 2. "Does the perspective save social work from incoherence? Social Service Review, 70(2) 183-213.
- Walcheski, M., & Bredehoft, D. (2003). Internal dynamics of families. In M. J. Walcheski & D. J. Bredehft(Eds.), Family life education: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68-74). NCFR.
- Waters, J. S.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s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Will SL, Reid JD (1999). Life in the Middle. San Diego: academic Press.

[부록]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외금 입니다. 저는 현재 박사과정의 졸업을 앞두고 중년 후기성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통계자료로만 처리됩니다. 또한, 각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아래에 기재된 연구자의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년 3 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정 민 자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양 외 금
연구자 이메일: queenyyk@naver.com

본인은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I.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 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충분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처럼 일을 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자부심을 가질만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적어도 남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에 관해보다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 자신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다음은 여가활동 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주변과 관련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 감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나에게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하고있는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여가활동 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하고있는 여가활동은 나의 건강을 지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신체적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체력증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다양한 신체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1. 정서적 지지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주변 사람들은 항상 나를 보살피고 사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주변 사람들은 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야기를 경청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나쁠 경우 나를 이해해주고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보적 지지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을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게끔 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일에 대해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충고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물질적 지지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항상 기꺼이 지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물질적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직접 도울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늘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주변 사람들은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함께 상의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아픈 경우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적 지지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공정하게 평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하고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바람직한 일을 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정책 신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의료 관련 정책(국민건강보험, 의료 급여, 노인 의료 복지시설 등)은 전반적으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돌봄 관련 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방문목욕, 재가 노인지원, 방문 간호사 서비스 등)은 전반적으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소득 관련 정책(기초생활 보호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 제도 등)은 전반적으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고용 관련 정책(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은 전반적으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④
5 내가 사는 지역에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부/민간지원센터(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주민센터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노후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경제적 준비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후대책을 위해 사보험을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보험외에 매달 저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노후를 위해서 지금 절약하며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노후의 안정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기른다.	①	②	③	④	⑤

2. 신체적 준비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과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성인병에 대한 주의를 위해 지방이나 당분의 섭취를 적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노후의 건강준비를 위해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체중 관리를 위해 힘쓴다.	①	②	③	④	⑤

3. 정서적 준비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언제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음을 편안히 가져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의 모임에 늘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성공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일상의 안녕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란	전혀 중요하 지 않다	중요하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 다
1 시간을 보람 있게 잘 보내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적 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대소변에 문제가 없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활동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하루종일 마음이 평안한 것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심리 사회적 안녕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란	전혀 중요하 지 않다	중요하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 다
1 주변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친척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8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9 변화에 적응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을 위해 쓸 돈이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11 일생을 통해 이룩한 일에 감사함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자기효능감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후 생활이란	전혀 중요하 지 않다	중요하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 다
1 훌륭한 사고능력과 기억을 유지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의 삶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일상생활의 문제나 도전을 효과적으로 다룬다는 확 신을 갖는 것	①	②	③	④	⑤

VII.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세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4.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및 별거 ④ 재혼 ⑤ 사별 ⑥기타()

5.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문직 종사자 ② 사무직 종사자 ③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
④ 자영업자 ⑤ 농축 수산업자 ⑥ 생산 기술직
⑦ 주부 ⑧ 무직 ⑨ 기타()

6. 귀하의 월평균 총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금포함, 현재수입)

-현재 동거 가족의 수입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만원

7. 귀하께서는 현재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 ① 1인 가족 ② 부부 가족(자녀와 동거)
③ 부부 가족(자녀와 비동거) ④ 확대가족(3세대 가족)
⑤ 한부모가족 (노부모님과 동거) ⑥ 한 부모가족(자녀와 동거)

8.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Abstract

A Study on Preparation for Late-Middle-Aged Adults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Ecological Perspective

Yang, Oe-geum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Major Advisor: Jung, Min-Ja, Prof.

In the era of centenarians, people live longer and thus take more interest in successful aging. Accordingly, research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successful aging has been actively conducted.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found that preparation for old age is essential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successful aging.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eparation of late-middle-aged adults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systems in order to encourage the late-middle-aged to pursue successful a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majors of family studies understand and accept the trend of the times and the necessity of having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systems to provide them with useful expertise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governmental organizations dealing with family life education to develop policies or programs that help late-middle-aged adults develop the proper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to better prepare for old age. To this end, ecological perspective of the late-middle-aged were derived from microsystem, mesosystem, exosystem, and macrosystem with self-esteem, leisur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trust in policy as major variables.

In this study, late-middle-aged adults were defined as 55 to 64 years old. A questionnaire was revised after conducting a five-day preliminary survey from March 21 to March 25, and a main survey was conducted with 550 adults nationwide from March 28 to April 15. Excluding poor responses and those out of the scope of this study, 496 answer sheet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aration of

late-middle-aged adults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ecological perspective, self-esteem was selected as a microsystem factor, leisure satisfaction for the mesosystem, social support for the exosystem, and trust in policy for the macrosystem, and the effect of the factors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was analyzed. Furthermore, a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differences in pathways between the groups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verified.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monthly income, cohabitants, and religion were found to be the factors affecting preparation for old age and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Thes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have different effects respectively on the preparation of old age and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Second, as for the relationship of sub-factor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cological perspective, the higher the self-esteem, leisur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trust in policy, the higher the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It was also found that those with higher awareness of preparation for old age had a higher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self-esteem (microsystem), leisure satisfaction (mesosystem), social support (exosystem), trust in policy (macrosystem)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Instead, the factors changed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by improving their awareness of post-retirement life through preparation for old age.

Fourth, the multi-group analysis perfor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und that male subjects had a higher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 than female subjects. Additionally, leisure satisfaction showed no effect on the preparation of old age for female respondents, while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ale group. A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education level, social support showed the most noticeable effect in preparation for old age. Trust in poli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in groups of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while it had no significant effect in those with graduate degrees or above. As for occupation, the group of non-professional occupations revealed a positive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preparation for old age, while a negative effect was found in those with professional occupations. In addition, a positive effect was found on successful aging in the group of professional workers, while no significant result was found in the group of non-professional workers.

Lastly, the moderating effect of religion on the effect of trust in policy in preparation for old age was positive in the religious group, while the non-religious group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In addition, religion had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in the religious group, while no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in the non-religious group.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Since preparation for old age has an indirect effect on successful aging,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mprehensive education about preparation for old age and successful aging and to develop an integrated policy. In addition, policy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successful aging should be established b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going beyond family relationships should be covered by social support.

Keywords: Ecological system, successful aging, preparation for old age, the late-middle-age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